



우리마을 | 마을기록학교
우리기록 | 기초과정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강의일정표

5.11. 2021
7.6.

차시	일자(요일)	시 간	교육 내용	강사명	교수 방법	비 고
1	5.11(화)	14:00~16:00	기록에 대한 이해	김하나	대면↔비대면 강의식	기록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기쉽게 설명
2	5.11(화)	16:00~18:00	일상 아카이브 - 기억, 공간 그리고 기록	김하나	대면↔비대면 강의식	기록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하고 있음을 설명
3	5.18(화)	14:00~16:00	마을 아카이브 1 - 마을의 다섯가지 얼굴	주현미	대면↔비대면 강의식	마을아카이브의 개념과 사회적 필요성
4	5.18(화)	16:00~18:00	마을 아카이브 2 - 마을의 다섯가지 얼굴	주현미	대면↔비대면 강의식	마을아카이브의 유형과 방법
5	5.25(화)	14:00~16:00	우리마을 박물관 만들기	김혜영	대면↔비대면 강의식	마을박물관 만들기 절차와 방법
6	5.25(화)	16:00~18:00	마을 기록 사례 1 - 해방촌	이규원	대면↔비대면 강의식	마을기록키트 등 마을기록의 다양한 시도
7	6.3(목)	10:00~15:00	세종시 마을기록관 견학	총괄팀	체험학습	2개소 견학
8	6.8(화)	14:00~16:00	나의 마을 알아보기	안여중	대면↔비대면 강의식/실습	마을알아가기 모둠활동 (우리마을 알아보기)
9	6.8(화)	14:00~16:00	구술 기록에 대한 이해1	이은하	대면↔비대면 강의식	구술기록의 절차와 방법
10	6.15(화)	14:00~16:00	마을 기록 사례 2 - “증평기록은 증평을 닮았다”	신유림	대면↔비대면 강의식	공공기관 주도 마을아카이브 사례
11	6.15(화)	16:00~18:00	구술 기록에 대한 이해2	이은하	대면↔비대면 강의식/실습	구술기록 실습
12	6.22(화)	14:00~16:00	마을 기록물 수집과 생산1	송영랑	대면↔비대면 강의식	이론강의
13	6.22(화)	16:00~18:00	마을 기록물 수집과 생산2	송영랑	대면↔비대면 강의식/실습	실습(수립계획서 작성)
14	6.29(화)	14:00~16:00	마을 기록물 분류, 기술1	송영랑	대면↔비대면 강의식/실습	이론강의 및 실습(분류체계 설계)
15	6.29(화)	16:00~18:00	마을 기록물 분류, 기술2	송영랑	대면↔비대면 강의식/실습	실습(분류체계 설계)
16	7.6(화)	14:00~16:00	마을문화와 기록	한상헌	대면↔비대면 강의식	마을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17	7.6(화)	16:00~18:00	평가, 발표	김하나	대면↔비대면 발표	모둠발표 및 총평

* 강의 시간과 날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의형태는 오프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강 80%의 참여자들에게는 교육참여를 증명하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Content

우리마을 | 마을기록학교 우리기록 | 기초과정

003	강의일정표
007	1강. 기록에 대한 이해 / 김하나
019	2강. 일상아카이브 / 김하나
033	3강. 마을, 아카이브 하자 / 주현미
043	4강.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 주현미
065	5강. 우리마을 박물관 만들기 / 김혜영
079	6강. 마을기록사례 - 해방촌 / 이규원
115	7강. 체험학습 - 세종시 마을기록관 견학 / 총괄팀
121	8강. 나의 마을 알아보기 / 안여종
145	9강. 구술기록에 대한 이해 / 이은하
151	10강. 마을기록사례 - 증평 / 신유림
161	11강. 워크숍 - 구술기록에 대한 이해 / 이은하
167	12강. 마을기록물 수집과 생산 I / 송영랑
183	13강. 마을기록물 수집과 생산 II / 송영랑
198	14강. 마을기록물 분류/기술 I / 송영랑
225	15강. 마을기록물 분류/기술 II / 송영랑
231	16강. 마을문화와 기록 / 한상헌
245	17강. 평가 및 발표 / 김하나

이



기록에 대한 이해

김하나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01

1강. 기록에 대한 이해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 하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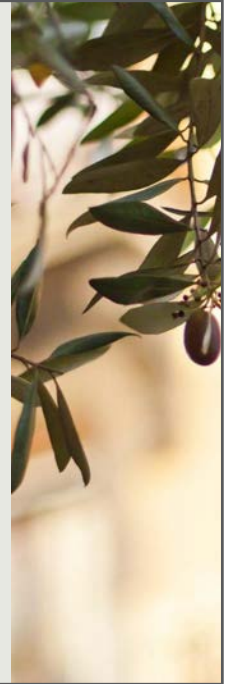
기록이란...

개인 또는 조직/단체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획득한 데이터나 정보를 매체에 고정시킨 것
활동의 지속적 재현이며 어떤 활동을 표현하는 재현물



遇里談記

기록은 이다.



인간은 기록을 통해...

- 훗날 그 활동을 복원
- 업무나 생활에 참조
- 증거로 활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담보



기억의 소환, 상처 치유...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운행될
전동차 6량이 1974. 3. 28.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습

* 출처 : 서울기록원

기록관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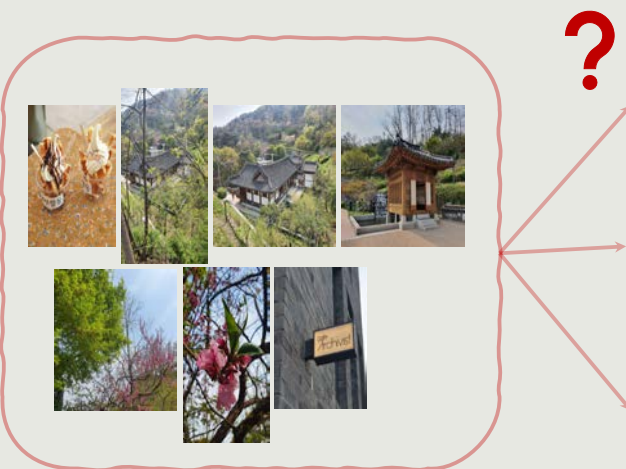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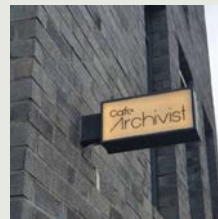
생산 · 수집
등록, 이관

분류 · 정리
기술

선별 · 평가
(보존 or 폐기)

활용
(서비스)

✓ 2021년 4월 11일 일요일 부암동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



분류 · 정리 ▶ 기술 ▶ 선별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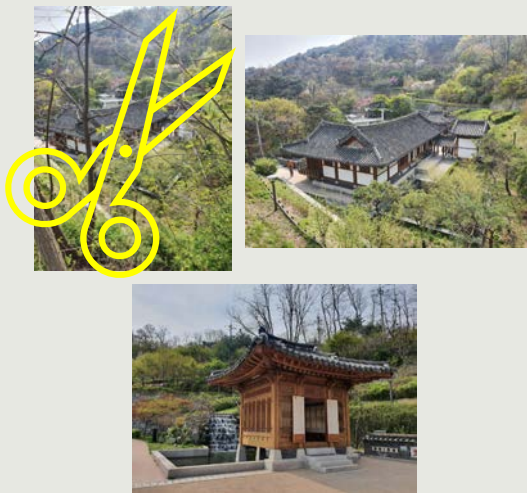


- 2019년
 - 1월
 - 2월
 - 3월
 - 4월
 - ...
- 2020년
 - 10일
 - 11일
 - 12일
 - ...
- 2021년
 - ...

- 볼거리
 - 한식
 - 중식
 - 디저트
 - ...
- 먹거리
 - ...
- 즐길거리
 - ...

- 서울
 - 부암동, 효자동
- 경기
 - 혜화동, 돈암동
 - ...
- 제주
 - ...

분류 · 정리 ▶ 기술 ▶ 선별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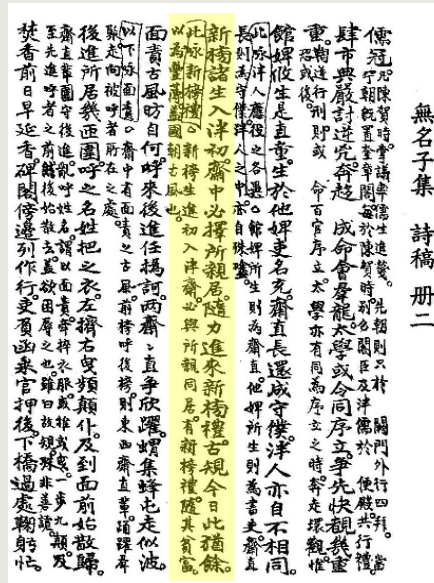


기록의 활용



성균관 스캔들

2010년 성균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無名子集 詩稿冊二

윤기의 시집

무명자집, 반증집영 63수

기록의 활용

평생도, 삼일유가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한 사람에게 왕은 머리에 어사화(御賜花)를 꽂아 주고, 삼일유가(三日遊街)를 하게 함
삼일유가는 삼일 동안 거리를 돌아다니며 채점관과 선배들, 그리고 친족을 방문하는 축하 행사를 말함



*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성균관과 빈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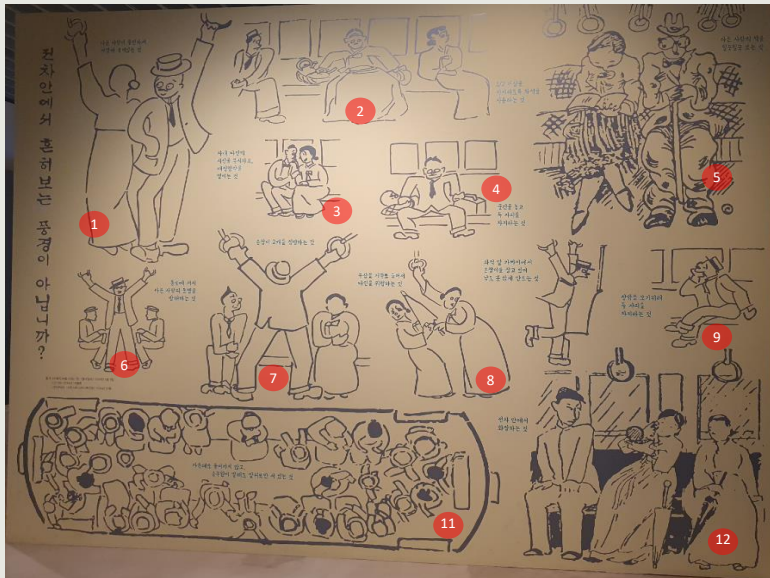
기록의 활용



왕세자입학도첩

효명세자가 1817년(순조 17)에 성균관에 입학하는 모습을 절차에 따라 기록한 그림 입학례 순서에 따라 〈출궁의〉, 〈작헌의〉, 〈왕복의〉, 〈수폐의〉, 〈입학의〉, 〈수하의〉에 이르기까지 여섯 장면이 수록
세자시강원 관원 13명이 입학례를 경하하는 뜻에서 지은 찬시가 실려 있으며 남공철이 쓴 발문을 통해 이 화첩의 제작 경위를 알 수 있음

기록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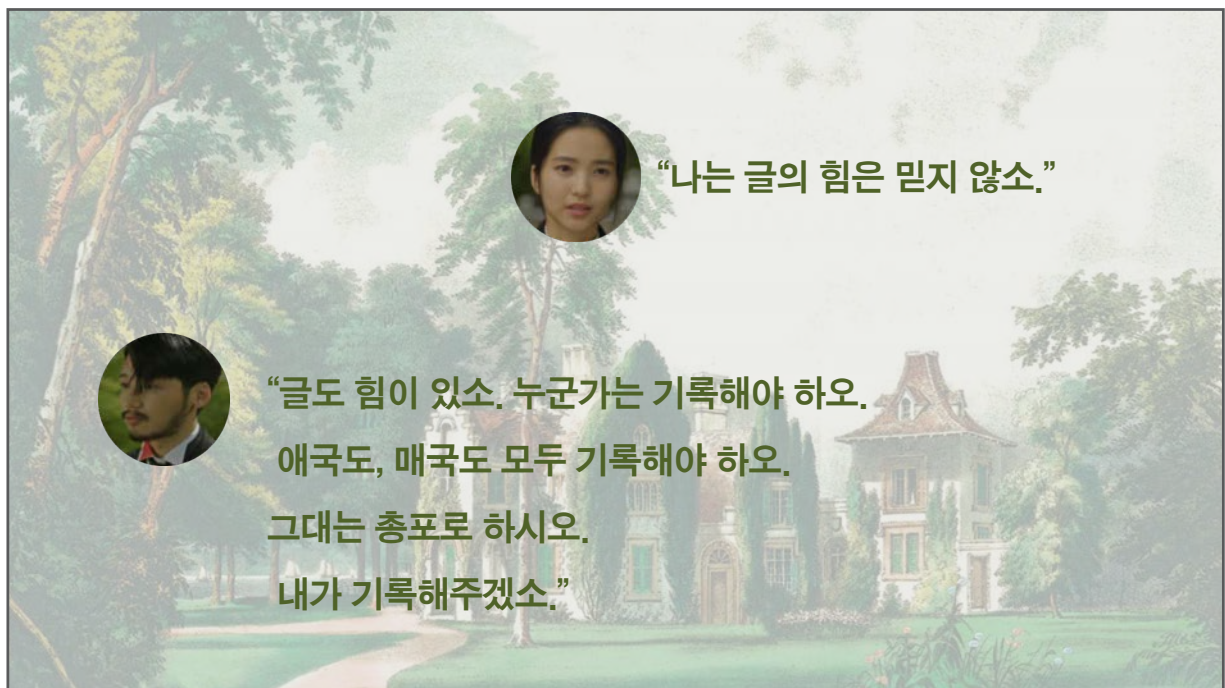


- 1)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가깝게 붙어 있는 것
- 2)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좌석을 사용하는 것
- 3) 차내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고,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
- 4) 물건을 놓고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
- 5) 다른 사람의 책을 힐끗힐끗 보는 것
- 6) 통로에 서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
- 7) 손잡이 2개를 점령하는 것
- 8) 우산을 거꾸로 들어서 타인을 위협하는 것
- 9) 좌석 앞 가까이에서 손잡이를 잡고 있어 남도 못 앉게 만드는 것
- 10) 창 밖을 보기 위해 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
- 11)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고, 승무원이 말해도 앞뒤로만 서 있는 것
- 12) 전차 안에서 화장하는 것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서울의 전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 한국기록유산

-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1997)
-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 승정원일기 (2001)
-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 의궤 (2007)
- 동의보감 (2009)
- 일성록,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2015)
- 조선왕조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2017)





기록은

이다.

감사합니다.

MEMO

.....

.....

.....

.....

.....



일상아카이브

-기억, 공간 그리고 기록

김하나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2강. 일상 아카이브

- 기억, 공간 그리고 기록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하나

#아카이브

카페

아카이브 카페

- ✓ 카페 아카이브
- ✓ 영원아카이브
- ✓ 1708아카이브
- ✓ 파프롬아카이브
- ✓ 아카이브25
- ✓ 아카이브 커피스테이션
- ✓ 로스팅 아카이브

⋮



방송

영화



도서

KYOBO 교보문고

아카이브

- ✓ 호빵책: 디 아카이브
- ✓ 명탐정 코난 아카이 슈이치&아무로토오루 시크릿 아카이브
- ✓ 삶의 아카이브
- ✓ 2016 작가가 걸오온 길: 화가와 아카이브
- ✓ 패션디자인 아카이브
- ✓ 불멸의 날들 케이스 아카이브

⋮

패션





아카이브란...

-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가 있어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
-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는 장소나 시설



〈커피사회〉전

문화역 서울 284



근현대생활문화에 녹아들어난 커피문화의 변천사를 조명하고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 사회의 커피문화**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되었다.

'커피사회'는 맛과 향기 속에 담겨진 역사와 문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커피를 통한 사회문화 읽기라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커피를 담은 아카이브와 다방, 찻집, 그리고 카페로 진화해온 과정에 담긴 다양한 징후들을 들여다보며 **커피가 상징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의미**를 포착하여 전달한다. 또한 **커피와 커피문화를 담았던 시간성과 장소에 대한 기억과 추억, 사물들, 사람들의 이야기**로 오늘날 커피의 문화에 대한 담론을 새롭게 형성하고자 한다.

〈커피사회〉 전

문화역 서울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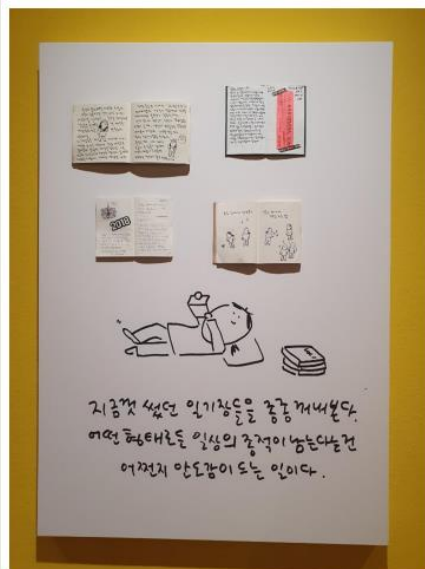


마호병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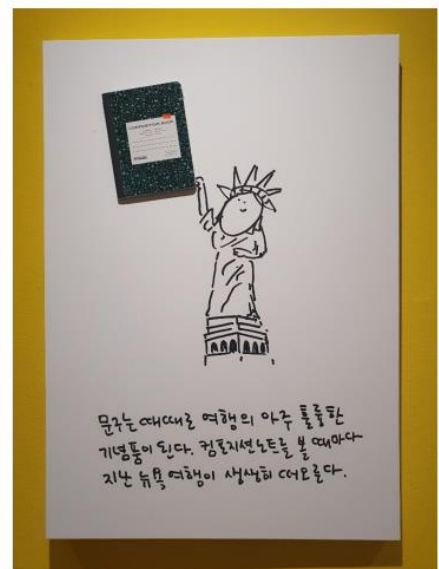
다방 커피 또는 삼박자 커피!!
커피를 못 먹던 아이 시절, 프리마마 타 먹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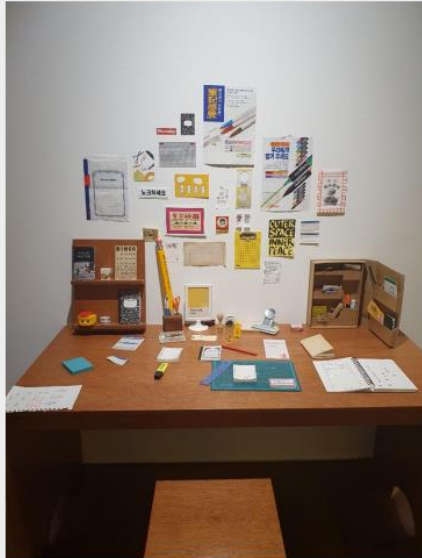
규림문방구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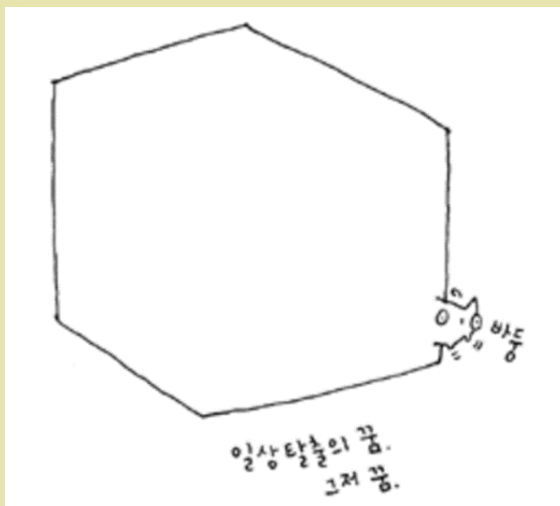
문구를 사랑하는 그녀



규림문방구 展



일상은...



-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 거리가 멀지만, 어떠한 사건들도 일상의 바탕없이 일어나지 않음"
- 정형화되어 보이지만 비정형화 되어 있고, 반복된 패턴이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



일상 아카이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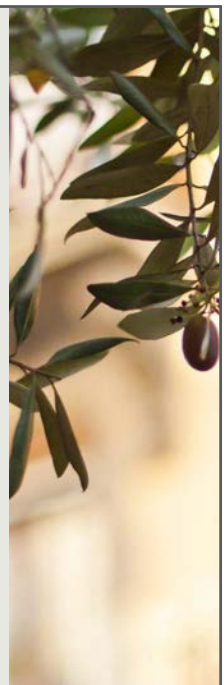
일상을 둘러싸고 있는 또는 일상을 존재하게 하는 것들 중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해 그 대상을 기록화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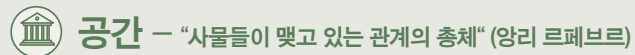


왜 일상 아카이브?

- 기존 아카이브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삶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며, 보통 사람들의 삶의 일상성 속에 감춰진 소외 현상을 밝혀내지 못함
- 역사의 주체인 개개인들이 역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사회, 그 사이에서 생산된 기록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는 최상의 방안
- 보통 사람들의 기록을 공유하고 나눔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
- 개인의 기억이 모여 사회적 기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

일상아카이브는 실종된 '구체적 삶'의 복원이 목적





- 공간의 변화는 삶의 변화와 밀착되어 있음
- 공간의 모습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곳
- 개개인의 성격과 처한 상황, 경험에 따라 같은 공간을 다르게 느끼고 기억함
- 공간은 기억과 경험을 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
- 일상 공간은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재현”하고, 그 공간에는 “매일 반복되는 삶의 과정에서 생산된 의미가 퇴적”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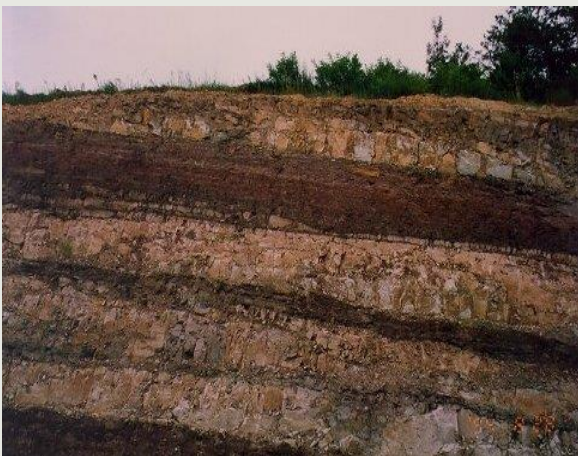


장소

- 인간이 의미있는 활동을 통해 공간에 시간을 쌓아 만드는 곳
- 기억이 축적되는 특별한 저장소
- 장소 기억이란 과거를 현재에 소생시키고, 사회적 기억의 생산과 재생산을 수행하는 장소의 능력



장소의 기억의 층위



2016~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기억

2014년 세월호 참사 분향소 기억

2009년 노무현 대통령 노제 기억

2002년 월드컵 응원
호순이·미선이 추모집회 기억

1987년 6.10 민주 항쟁 기억



장소의 상징적 성격



전통의 장소



예술의 장소



재현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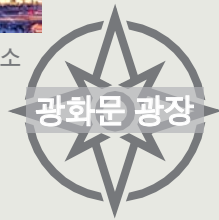
국민권력의 장소



추모와 애도의 장소



시민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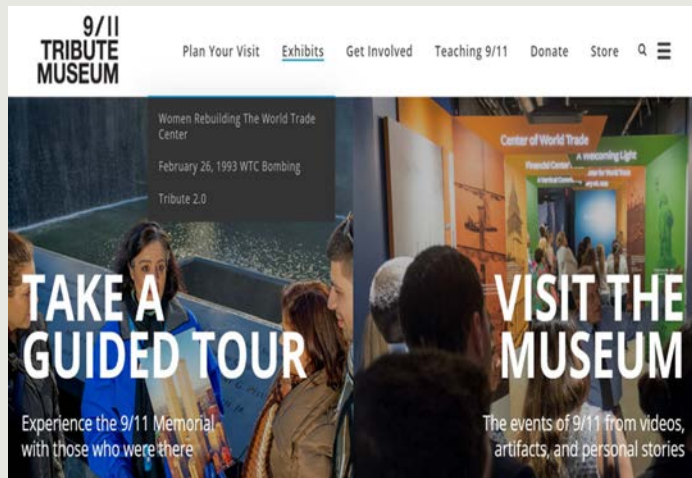


911 테러를 기억하다

미국

911 Tribute Museum

- 2006. 9. 6. 911가족협회 프로젝트로 911 Tribute Center 개관
- 911 가족, 긴급 구조자, 생존자, 민간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주민, 복구 근로자 등 911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은 사람들이 참여
- 비영리 단체로 모든 수익은 교육 프로그램과 박물관 운영에 쓰임



911 테러를 기억하다

미국

911 Memorial & Museum

- 2014.5.21. 93년 2월
폭탄테러와 01년 9월 테러로
죽은 3,000여명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개관
-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에
기념관과 박물관으로 구성



폴 주변에 새겨진 희생자 이름



생존자 나무



메모리얼 풀(North Pool, South Pool)



911 Memorial Glade

911 테러를 기억하다

미국



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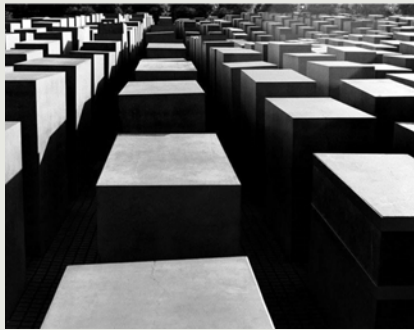
- 911 테러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수집, 보존하는 아카이브
- 조지 메이슨 대학의 Roy Rosenzweig
역사 뉴미디어 센터(RRCHNM)와 뉴욕
시립대 대학원 센터의 미국 사회사
프로젝트로 오메카를 통해 아카이브
구축, 미의회도서관과 제휴
- 911 사건 경험자들로부터 이야기, 사진,
구술, 동영상 등을 기증받음

나치의 유대인학살을 기억하다

독일

홀로코스트 뮤지엄

- 규모의 방, 가족의 방, 이름의 방, 지역의 방으로 전시관이 구성



“그것은 발생했다. 그러므로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해야만 하는 것의 핵심이다”

- 프리모 레비 -



역사채널[®] - 기억을 기억하라

“한 장소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 장소에 기억과 연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장소로 돌아가면 그 씨앗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장소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능성이다.”

Solnit, (2001). <걷기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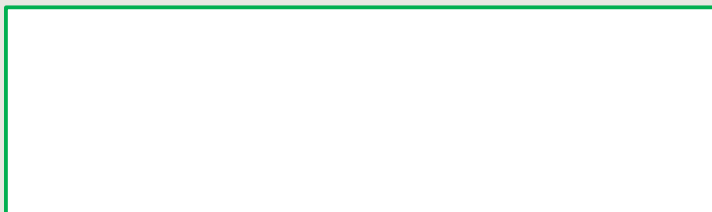
“공간의 구축은 경험의 구축이자 삶의 구축이다. 공간을 거니는 것은 삶을 거니는 것이다. 공간을 향기 맡고, 듣고,
만지는 것은 삶을 향기 맡고, 듣고, 만지는 것이다. 공간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다.”

김종진, (2011). <공간 공감>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억의 장소'는 어떤 드라마틱한 기억 속 이벤트의 백그라운드가 돼 준 장소보다 지겹고 별
볼일 없는 일들이 쌓이고 반복되던,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곳일지도 모른다. 반복된 방문이 패턴을 만들고, 패턴은
삶의 궤적을 만들고 우린 그 궤적 안에서 기억을 쌓아간다.”

구승희, (2013). <건축학개론, 기억의 공간>

공간(장소)-기억을 기록화한다는 것은...



이다.





아키비스트들이 기록유산을 선별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현재와 과거에 대하여 무엇을 알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MEMO

.....

.....

.....

.....

.....



마을, 아카이브 하자

-마을의 다섯가지 얼굴

주현미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마을, 아카이브 하자 -마을의 다섯가지 얼굴-

2021.05.18.

강사 : 주현미

박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아키비스트 (노회찬아카이브)

00 | 들어가면서

주현미 강사는?

- 현 노회찬재단 기록연구실 국장, '노회찬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박사 (2020, 마을의 다섯 가지 얼굴 - 마을아카이브, 사랑과 환대의 기록)
- 현 금천 마을공동체기록관 자문위원, 가산동 마을기록가 양성과정 강사
- 전 안산, 과천, 평택 등에서 마을아카이빙 강좌 진행
- 전 (사)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아키비스트

2

00 | 들어가면서

왜 <마을의 다섯 가지 얼굴> 인가?

- 마을 기록을 소개하고 마을 활동과 마을 기록의 의미를 드러내는 과정
- 마을과 마을 활동을 구성하는 다섯가지 주제 - ‘공간’, ‘주체’, ‘관계’, ‘일’, ‘놀이’
- 현상과 의미를 드러내는 ‘얼굴’로 마을 기록의 현상과 의미를 표현
- 마을기록 활동가들과의 인터뷰와 마을 기록들을 각각의 주제를 읽는 재료로 사용
- ‘사랑과 환대’를 마을 활동의 동기와 지향, 추동하는 힘으로 상정하고 마을 기록 읽기
- 마을 기록, 생산도 중요하고 수집도 중요하지만 마을 기록 속 숨은 이야기를 드러내는 ‘마을 기록 읽기’도 중요

3

00 | 들어가면서

강의의 구성

01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 아카이브, 마을 기록, 아카이빙, 마을아카이빙? 마을아카이브를 둘러싼 개념들
- 마을 아카이브, 왜 해야 할까? 필요성과 그 의미 알아보기

02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 마을들은 어떤 아카이브를 하고 있나? 사례들 보기
-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아카이브의 주제들 살펴보기

4

01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기록(Records & Archives)

-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간행물,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

기록의 종류(유형)

- 전자기록 : 전자문서시스템 등 정보처리 장치에 의해 생산, 관리, 활용되는 기록
- 종이기록물 : 전통적 기록물의 형태로 문서, 간행물, 도면, 카드, 대장 등
- 시청각기록 : 영상 및 음성 기록
- 행정박물 : 기관에서 생산한 박물류, 접수된 선물, 관인, 현판 등 업무수행 중 가치 있는 물품

6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아카이브(Archives)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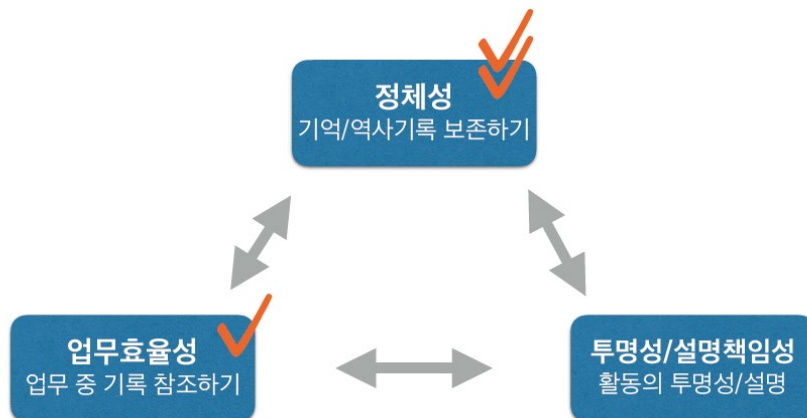
- 영구기록물
- 영구기록물 보존소
- 기억저장소



7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아카이브의 필요성



8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마을 기록

- 마을공동체와 마을공동체 활동과 관련된 사람, 조직이 다양한 마을 활동 중에 만들어낸 기록

마을 아카이브

-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집 또는 생산한 기록물
- 마을 기록을 보존, 관리, 서비스하는 조직 또는 공간

9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마을 아카이빙의 필요성과 의미

- 마을의 주체 확인
 - 마을활동 주체들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주체의식을 확인
- 마을운동의 확장
 - 기억을 남기고 공유하는 마을운동
 - 마을활동 사이의 소통의 역할
- 마을 기억의 공유, 전승
 - 마을기록화전략을 통한 마을과 마을사람들의 이야기 포착
 - 마을의 역사를 후대에 전승
- 마을 활동의 홍보
 - 아카이브를 활용한 홍보자료 제작
 - 마을아카이브의 유니크함
 - 마을활동에 대한 신뢰 상승

10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마을 아카이빙의 필요성과 의미

- 마을 기억의 확장
 - 마을 기자와 마을 기록활동가
 - 기억을 모으고 나누자 : 1) 역사가 될 것, 사람들, 사건들, 활동들, 문화들과 관련된 기록을 모으고, 2) 이를 잘 정리해서 공유하고, 3) 필요한 것은 기사로 쓰자
 -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 이야기를 사고 파는 가게
 - 기억, 생각, 담론, 실천의 선순환
 - 마을 '기억광장' = 마을기억저장소, 마을신문, 마을이야기가게

11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기억과 기록의 관계

- 사회.문화.정치.경제의 맥락이 사람들의 기억을 결정하고 규정
 - 따라서 기억은 사회적 맥락에 기반을 둔 집단의 산물
 - 집단으로 공유되는 기억은 집단(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
 - 현재의 관심사에 의해 재생산되는 과거
 - 사회적 기억 =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구조에 종속
- (출처: 기억의 패러다임에서 개인의 기록과 지역의 기록, 신동희)



12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아카이빙이란?

- 과거와 미래를 만나게 하는 것
- 사람과 사람, 기억과 기억, 사람과 기억을 잇는 것
- 공동의 기억을 포착하고 기억을 공유하는 것

13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아카이빙의 주체

- 마을 아카이빙 : 마을 주민, 마을 조직, 마을 활동가 모두
- 세월호 아카이빙 : 피해자, 피해자 가족, 추모하는 모든 사람들
- 시민교육 아카이빙 : 기획자, 운영자, 수강생 모두

참여하는 모두가 아키비스트
1000개의 아키비스트, 1000개의 관점,
1000개의 기억, 그 이상의 가치

14

01 | 마을, 아카이브가 필요해

Archivist?

- 기획자
- 기록자
- 수집자
- 연구자
- 큐레이터

마을 아키비스트가 되자!

MEMO

.....

.....

.....

.....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의 다섯가지 얼굴

주현미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02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아카이빙 사례

정말기록당(정릉 마을기록 네트워크)



- 주민협의체, 마을활동을 하는 주민단체, 도서관 등 마을의 기관들, 마을기록에 관심 있는 개인 등이 네트워크
- 마을잡지, 마을해설, 커뮤니티 맵핑, 마을 자원조사, 이야기전시회 등 다양한 마을기록 활동 진행(시작은 2012년 마을 잡지 '우리동네 능말' 창간)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아카이빙 사례

정말기록당(정릉 마을기록 네트워크)



정릉 마을기록활동의 시작 - 마을잡지



정말기록당 스토리북



정말기록당 전시활동

18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아카이빙 사례

성북마을아카이브(<https://archive.sb.go.kr>)

-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
- 2018년부터 2년 동안 성북구 관련 자료와 기록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제작
- 시대별, 지역별, 주제별 기록과 함께 주민기록단의 기록 수집 결과 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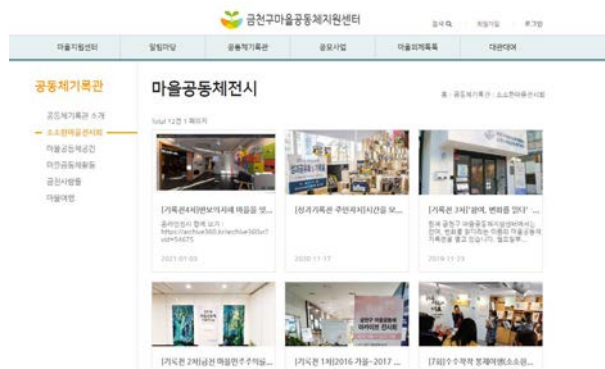
성북마을아카이브 디지털아카이브

19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아카이빙 사례

금천 공동체기록관 (<http://goldmaeul.net>)



금천 공동체 기록관 웹사이트

- 2017년 ~ 현재
- 마을지기학교, 마을기록가학교 등 교육을 통해 마을기록 활동가 양성
- 마을공동체활동과 마을 사람들, 마을의 공간을 기록하고 자료집으로 출간 : 마을백서, 디렉토리북 등
- 웹사이트에 이미지 형식으로 발간 물의 내용을 제공함

20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아카이빙 사례

금천 공동체기록관 (<http://goldmaeu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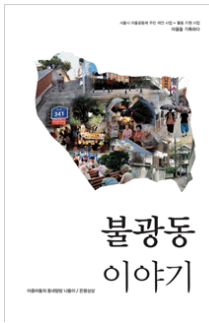
금천 마을기록 활동

21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아카이빙 사례

은평 진광동 이야기 / 불광동 이야기 / 으랏차차 은평



은평 마을기록 활동



- 은평의 지역 공동체와 지역 활동 조직, 시민단체들의 네트워크인 마을법인 은평상상이 마을 기록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든 기록집과 역사 기록집
- 마을 아카이빙 조직은 없지만 시민단체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록을 모으는 사업을 여러 차례 진행
- 은평상상+은평시민협력플랫폼 마을행사기록방에는 마을기록가가 마을행사를 다니며 기록한 자료들이 업로드 되고 있음

22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아카이빙 사례

해방촌 마을기록단



- 2016년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을 계기로 시작된 마을기록활동조직
- 마을 주민의 관점과 해석으로 보는 우리 마을
- <108계단 이야기> <기록으로 보는 마을공동체> <해방촌 사람책> 등 발간
- <https://www.youtube.com/watch?v=P5HobOLXjlk>

해방촌 마을기록단의 기록활동

23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아카이빙 사례

안녕, 둔촌주공
아파트



-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고향의 풍경과 추억을 기록한 잡지. 1권 '2013년 겨울을 보내고', 2권 '2013년의 봄 그리고 여름', 3권 '어린시절 우리들의 놀이터', 4권 '가정방문'
- 현재 서울기록원에서 수집, 관리. ['둔촌주공아파트 기록 컬렉션'](#)

24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공간을 기록하다

경관 기록

- 경관은 마을의 외관(=풍경)
- 마을의 경관은 공간정책의 변화, 공간 자체의 노후화, 공간 활용의 변화 등으로 인해 모습과 의미가 변화
- 경관 기록은 마을의 외관의 변화를 기록화하는 것
-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은 도시개발에 의해 사라지는 도시의 이미지를 남기는 것으로 지속적인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고 도시공간의 역사, 문화에 대한 자산을 남기는 의미가 있음

25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공간을 기록하다

경관 기록



청계천 복원 전 두산타워의 모습(1999-2000)



청계천 복원 후 두산타워의 모습(2015-2016)

26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공간을 기록하다

경관 기록



벤엘교회에서 바라본 정릉공풍경(2009) ©정말기록당

27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공간을 기록하다

경관 기록

- ✓ ‘경관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변화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
- ✓ 재개발 예정지 (없어질 것들의 포착)
- ✓ 마을 주요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나 산책로, 공원, 하천, 숲 등의 자연자원, 문화재, 사적 등의 역사자원의 경관 (지금을 포착)

28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공간을 기록하다

장소성

- 장소성은 마을의 특정한 지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또는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로 부터 부여된 장소의 ‘정체성’
- 장소성의 기록은 각자의 기억과 의미가 모여져 마을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보여줌
- 마을 사람들이 각자가 부여한 장소의 의미들이 쌓여서 기록으로 포착됨

29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공간을 기록하다

장소성



해방천 마을기록단 우리마을 기억지도(2016) ©해방촌마을기록단

30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공간을 기록하다

장소성



마을의 쉼터인 은성수퍼(2014, 2019)©정말기록당

31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공간을 기록하다

장소성

- ✓ 사람들에게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를 포착하는 것
- ✓ 각자의 눈으로 바라본 공간의 모습과 그 의미를 이야기로 쓰기
- ✓ 지도에 점찍고 메모하기, 스케치하기, 에세이 쓰기 등의 기록화 방법 사용
- ✓ 한 공간에 대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모으고 축적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

32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을 기록하다

나

- 마을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모습
- 노인, 아이들, 장애인, LGBT,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마을의 주체로 인식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을 마을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것이 마을 아카이브
- 마을 토박이, 마을 어르신 등 마을의 기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을 포착하는 것
- 마을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아카이브를 통해 마을 활동을 공감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33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을 기록하다

나(마을 구성원 개인을 기록함)



마을 토박이들에 대한 기록 ©장수련 (불광동이야기)

“나는 고향인 산 XX번지를 중학교 2학년 때 떠나 지금의 불광 문고 담 너머 집으로 이사를 왔다. 이사를 오고 나서 집 옆 공터에 건물이 들어서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쿵쿵 쿵쿵 공사 소음에 괴로운 나날들이었다.

(중략)

15년째 불광문고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금 내 고향은 아쉽게도 독바위 현대힐스테이트 3단지 아파트가 되었다. 아파트 숲으로 변해 버린 후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를 돌아보아도 내 추억의 장소들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아파트로 바뀌면서 내 유년기도 함께 콘크리트로 봉인되어버렸다.”

(은평상상. 불광동이야기. 불광동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동네 - 40년 불광동 토박이 장수련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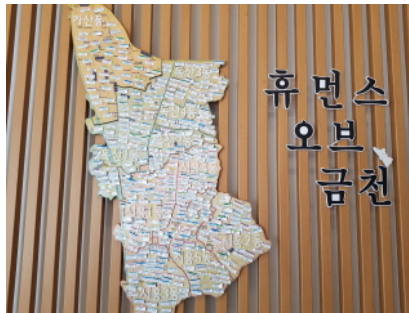
34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을 기록하다

나(마을 활동가들을 기록함)

-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과 마음을 기록
- “마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길과 희망을 찾길” (금천 마을기록집)



휴먼스 오브 금천 ©금천 공동체기록관



35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을 기록하다

우리

- 마을의 주체로 살아가고 있는 '나' 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우리'가 됨
- '함께'의 기록
- 마을 조직, 마을 모임이 기록화의 대상임
- 마을자원조사 방식으로 마을 내 모임들을 조사하고 일정한 형식으로 조사해 소개
- 참여자들의 구술채록을 통해 해당 활동의 개인적, 공동체적 의미 부각

36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을 기록하다

우리(마을 공동체 기록하기)

- ✓ 공동체 개요 : 모임 시작일, 회원수, 활동범위 등
- ✓ 공동체 소개
- ✓ 공동체 활동 소개
- ✓ 활동 모습 포착
- ✓ 참여자들의 느낌과 생각

한마음 공동체

대표제인자 김영자, 박광호, 심경보
활동시작일 2016.01.01
회원수 12명
활동지역 시흥3동

공동체 소개

시흥 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점을 직접 찾아보고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형성하였음. 마을축제, 마을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능산제출과 합리하여 마을 활동을 하고 있음.

공동체 활동 소개

- 마을환경개선: 골목만들기사업, 양동 꽃길 만들기
- 시흥 3동의 중앙길에 위치한 서후의 화단 7개를 인근 거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직접 화단을 가꾸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깨끗한 골목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음.
- 백미마을 텃밭가꾸기
- 백년 마을에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마음을 자내고, 여가 생활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텃밭가꾸기를 운영. 백미마을화단에서 지역주민들이 기획 회의 등 하고,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 산타마를 축제
- 연말에 시흥 3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 아이들을 위해 명함봉투를 마을주민이 준비하고 산타 마왕을 하고 찾아가서 전달하는 이벤트를 제공.



공동체 활동 소개

만화촌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박광규: 오래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혹시 말가되면 어떻게 하겠고 되고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늘아나게 되었습다.

이현수: 회단을 가꾸며 오랜만에 공력이 있을 땀하니, 힘들더군요.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보람은 더 남습다.

정영순: 10년에 배르게 살았던 꽃이 다 죽어서 안타까웠는데 다시 꽃을 심었어요. 주변 누구든지 내 동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가꿔나 가면 좋겠어요.

최선희: 풍사는 중독이라더니 마을 일도 중독이네요. 마을 일에서 나의 가치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금천 공동체 소개 © 금천 공동체기록관

7월 14일 11:00~12:00

37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 사이의 소통을 기록하다

-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모습과 의미를 기록하는 과정
- 관계를 맺는다 = 소통한다
- '수다(대화)'는 관계 맺기의 시작. 서로 알아가는 과정. 소소한 대화모임들..
- 소소한 대화모임을 통한 '만남'은 할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위해 '회의'를 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다같이 모이는 '축제'를 하기도 함
- 새로운 마을 사람을 만나 '반기고' '환대'함
- 하지만 마을에는 더러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것 역시 마을의 관계맺기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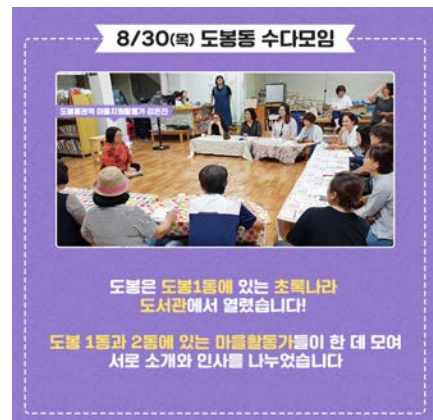
38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 사이의 소통을 기록하다

수다의 기록

“마을 살이의 묘미는 만나서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부대끼면서 상호 교류하는데 있다. 성미산 마을에서 중요하게 자리한 문화 가운데 하나가 수다 문화다. 수다는 다르게 말하면 ‘일상의 소통’이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꼭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더라도 그저 가까운 곳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있으니 좋은 것이다.” (박재동·김이준수,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중)



수다모임 소개하기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39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 사이의 소통을 기록하다
만남의 기록

- 회의의 기록
 - 교육프로그램의 기록
 - 축제의 기록
- ✓ 일시, 장소, 참석자, 만남의 목적과 이유 등의 정보
 - ✓ 만남의 장면들 포착
 - ✓ 참여자들의 느낌, 생각



정릉더하기축제 ©정말기록당

40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 사이의 소통을 기록하다
만남의 기록



은평 마을축진가 회의 ©은평상상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정

41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 사이의 소통을 기록하다
반기다, 환대하다

- 우리 마을 소개하기
- 마을 지도
- 나눔의 기록



전입자를 위한 마을안내서 마을여행편 ©금천 공동체기록관

42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사람 사이의 소통을 기록하다
갈등하다

- 내부에서의 갈등 : 공동체 내의 결속과 소통을 저해하는 일들
- 외부로부터의 갈등 : 공동체가 와해될 위기(재개발, 집값상승 등)
- ✓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기록
- ✓ 재개발 과정 기록하기(기억/추억을 기록화하기)
- ✓ 공동체 연대의 활동 기록하기



철거를 앞둔 둔촌주공아파트 1시간 33분의 기록 ©둔촌주공 아카이브

43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마을의 일’을 기록하다

마을의 노동

- 가정에서의 노동 : 드러나지 않는 노동을 기록을 통해 드러내기
- 생계를 위한 노동 : 마을 안에서 먹고 살기
- 마을공동체를 위한 노동 : 자원봉사

44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마을의 일’을 기록하다

자원봉사의 기록

<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자치위원의 봉사활동이 있던 날 >

시흥5동 주민자치회 활동에는 휴일이 따로 없습니다. 올해 시 참사업을 위해 재봉틀 놓을 공간이 필요한 행복분과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묵은 살림을 쟁여두었던 창고 공간을 공익적 활동에 쓸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는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 수십년 묵은 청소와 도배는 각 분과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자치위원과 분과원이 모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작은 공간의 변화를 스스로 꾀하는 시흥5동 주민자치회가 알뜰살뜰 잘 운영하며 또 다른 나비효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흥5동 주민자치회)



시흥5동 주민자치회의 봉사활동 동영상기록
©금천구 공동체기록관 45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마을의 일’을 기록하다

마을 기업

-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관계하는 공간을 제공함
- ✓ 마을자원조사에서 ‘공동체자원 조사’ 활용
- ✓ 우리 마을에는 어떤 마을 기업이 있는지 기록을 통해 소개 -> 마을 내에서 소비가 촉진되고 마을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하기 : 마을 활동의 활성화와 마을 기업의 활성화

46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마을의 일’을 기록하다

마을 기업



영등포마을카페 봄봄 ©봄봄



마을카페 어깨동무 ©조혜진(금천 공동체기록관)

47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마을의 놀이’를 기록하다

- 마을에서의 놀이는 마을의 주체들이 관계를 맺는 방법
- 마을 살이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
- 수한 즐거움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활동
- ‘몸을 움직여’ 즐거움을 나누는 활동
- ‘손으로 푹푹푹’ 무언가를 만들며 즐거움을 나누는 활동
- ‘눈과 귀로’ 즐기는 예술, 문화활동

48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마을의 일’을 기록하다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

- 함께 걷기 / 마을 여행
- 체육대회 : 춤과 노래
- ✓ 역동적인 활동의 포착
- ✓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정 포착
- ✓ 참여하는 사람들의 느낌과 생각 포착



2019 광진마을한마당 ‘춤추는 마을’
©광진구 마을자치센터

49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마을의 일’을 기록하다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 나를 위한 만들기의 즐거움
- 남을 위한 만들기의 즐거움
- ✓ 결과물 전시하기
- ✓ 느낌과 감정 나누기



금천구의 목공교실
©금천 공동체기록관

“창작의 즐거움과 나무 향기가 너무 좋아요.” (참여자 장인국)

“혼자서는 못할 일을 여럿이 모이니 웅장해지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여자 김새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서로 돕고 작업하며 설레고 즐거운 나무소리 목공.” (참여자 박미자)

50

02 | 마을, 어떤 아카이브를 할까?

마을, ‘마을의 일’을 기록하다
보고 듣는 즐거움

-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생활
- 음악회, 전시회, 공연 등
- 마을극장

함께 노는 모두의 놀이터
소통과 나눔이 있는 성미산마을극장

성미산마을극장은 도시 한복판에서 재생되고 있는 '오래된 미래', 스스로 만들고 함께 꾸려가는 공동체 커뮤니티 성미산마을에 있는 커뮤니티 씨어터(Community Theater)입니다.



성미산마을극장

51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Q & A

MEMO

.....

.....

.....

.....

.....

05



우리마을, 박물관 만들기

김혜영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05

우리마을박물관 만들기

김 혜 영

- I. 박물관 개념
- II. 마을박물관 개념
- III. 마을박물관 만들기

I. 박물관의 개념

1. 박물관의 역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예,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역사, 철학 등을 관장하는 뮤즈(여신)에게 바쳐지는 신전에는 각종의 회화, 조각 등의 조형예술과 역사, 철학 등의 학문적 성화 이외에도 각종의 공연예술이 펼쳐지는 예술의 집결지였다. 그 후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에서 프톨레마이여왕의 궁전 일부에 각종 수집품을 모아 그 곳을 뮤세이온(Mouseeion)이라 부르게 했다. 뮤세이온은 '생각하는 사람'과 더불어 천문학 기구와 외과용 수술기구, 코끼리의 코와 짐승의 가죽, 그리고 동식물 공원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저명한 학자들이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상주하는 고등 학문 기관인 대학이나 철학 학술원에 가까웠다.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아폴로니오스, 에라토스테네스 등 저명한 학자들은 왕실에 머물며 도서관, 강연실, 휴게실, 조사와 과학적 연구를 위한 실험실, 동·식물 정원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고대 사회는 그들의 미학, 역사, 종교적 중요성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 오브젝트들의 공공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주로 정복을 통한 전리품으로 얻은 그림과 조각을 공개토론장, 공중 정원, 사원, 극장, 목욕탕 등에 전시하였다. 그러나 차츰 개인적인 공간에 전시하고 손님에게 자랑하는 가정용 박물관 형태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부 위정자는 신전이나 광장에 이러한 컬렉션들을 전시하며 이는 국가와 사회 공중의 것이니 개인이 은닉하거나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였다. 이러한 진보된 생각은 더 진전을 보지 못하여 일반을 위한 공개에는 기여하지 못하였고, 중세로 이어지면서 사원들 역시 개인적으로 종교미술품을 수집하였다.

16세기 박물관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단어가 출현하였다. 하나는 갤러리(이탈리아어로 galleria)로 양면에서 빛이 들어오는 길쭉한 대형 홀을 말하지만 사진과 조각을 위한 전시 공간을 이르는 명

칭이 되었다. 또 하나는 캐비닛(이탈리아어로 gabinetto)인데 이것은 박제 동물이나 희소가치 있는 식물, 메달이나 조각상 등의 작은 미술품, 공예품, 골동품으로 채워진 보통 사각형의 방이며 독일에서는 분더캄머(wunderkammer)이라 부른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컬렉션들이 대중에게 개방되는 일은 아주 드물었고 왕족, 주교, 부호들의 노리개로 남아있었다.

중세 이후 인문주의의 대두, 신행로 개척에 의한 시야의 확대로 고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불붙었다. 타 대륙에서 민속자료, 이국적인 자연물 등을 수집하고 대규모 발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장품이나 체제 면에서 과거의 가정용 박물관이나 중세 사원의 전시 규모에서 본격적인 박물관 규모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7세기 말 박물관은 공공성을 띄기 시작하였다. 바젤은 1671년 최초의 대학 박물관을 개관하였고, 12년 후에 옥스포드에는 애슈몰린 박물관(Ashmolean Museum)이 생겨났다. 바티칸은 약 1750년 쯤 몇몇 박물관들을 설립하였고, 대영박물관은 영국 의회가 자연과학 분야에 공헌한 한스 슬론(Hans Sloane) 경의 수집품들을 구입했던 시기인 1753년에 세워졌다. 1793년에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루브르궁의 소장품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공박물관이 개관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박물관 활동에 있어서 두 가지 혁신적인 변천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전문화된 박물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799년 파리의 국립기술공예박물관(Musée des Arts et Métiers), 1807년 덴마크 고고학자 톰슨의 고고학박물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도시 미관용이자 일부 소수 학자의 전용이었던 박물관이 드디어 지식을 개발하고 시민을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위치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845년 영국 의회에서 박물관령(Museum Acts of 1845)이 공포, 통과되어 박물관은 하나의 공공기관이며 시민 교육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전국의 박물관이 공비(公費)로써 건설·유지될 수 있도록 법의 뒷받침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박물관의 정의

라틴어인 무제움museum(그리스어로는 뮤제이온mouseion)은 세월을 거치면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져왔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박물관들조차 각각 그 기능과 의미가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학자와 기관들마다 박물관을 각기 다양하게 정의한다. 이것은 박물관이 매우 복잡한 기관이고,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박물관협회(ICOM)은 1946년 처음 박물관에 대한 정의를 발표한 이후로 2007년까지 총 7번에 걸쳐 박물관의 개념에 대해 재정의하였다. 1946년에는 '동물원, 식물원과 함께 공중에 공개되는 모든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를 모은 수집품을 포함한다'는 협의의 박물관 정의를 채택하였지만 이후 박물관의 정의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었다. 2007년에 채택된 정의에서는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 개방되며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하여 인간과 인간 의 환경에 대한 유형·무형의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을 뜻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정의는 곧 바뀔 예정인데, 최근 몇 년간 박물관의 원칙, 정책, 운영 등이 빠르게 변화, 적응, 재

창조되고 있어 현재 박물관 정의가 더 이상 다양한 박물관의 도전과 비전과 책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제박물관협회는 2017년 박물관의 다양성 및 사회적 동향을 탐색하고 이에 따른 박물관 정의와 전망, 잠재력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원회(ICOM-MDPP : Museum Definition, Prospects and Potentials)를 구성하였다. 원래 2019년 ICOM 교토에서 개최된 총회(GA)에서 새로운 박물관 정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추상적인 요소에 대한 논쟁으로 새로운 박물관 정의 채택은 2022년 총회로 연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박물관은 비영리성, 공익성, 개방성을 기저로 하여 자료를 수집, 관리·보존, 조사·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이며, 그 자료에 관한 범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박물관협회의 정의에서나 우리나라 법률상 정의에서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중에게 개방되며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하는" 박물관의 기능을 문두에 기술하고 있듯이 관람객들을 대응하고 교육하는 박물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정의나 한계에 대해 계속 확장되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도 근래의 박물관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박물관의 기능

1) 수집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소장품'을 수집·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물관의 역사는 수집과 소장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의 수집의 동향은 매우 개인적이고 우연적이었다. 박물관의 정체성과 관계없이 수집 주체자가 보기에 그저 아름답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을 수집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수집이론에 따라 박물관 각각의 정체성에 맞는 자료들을 선별하여 수집하게 된다. 그 박물관이 어떠한 소장품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곧 그 박물관의 성격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수집은 ①발굴 조사, ②기증(증여와 유증), ③구입, ④교환과 기탁(위탁), ⑤대여, ⑥반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2) 관리·보존

수집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보존의 기능이다. 처음에는 보존의 기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고 고대시

대의 화판 그림들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기술이 부재한 것이지 작품을 오래도록 원래상태로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스인들은 봉헌된 방패가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진을 바르기도 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습도 조절을 위해 대리석상 밑에 기름 용기를 놓아두기도 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박물관 수집품들의 구성, 보존, 복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나 지식도 가져다주었다. 조도와 상대습도의 적당한 통제, 독창적인 수리와 보존 기술의 발달은 박물관 물품들의 보존에 혁명을 일으켰고 이제는 물리학과 화학을 공부한 숙련된 관리인들이 박물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4) 조사·연구

학술적 역구는 박물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수집의 연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소장품의 조사와 연구는 초기의 자연사 박물관, 식물정원, 동물원, 수족관 등에서 자료들을 정확히 카탈로그에 기재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는데, 이는 생물학적 연구에 있어서 분류학상으로 중요한 공헌을 했다. 조사와 연구는 앞으로 이 박물관에서 어떤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지, 어떤 전시를 하여야 하는지, 어떤 교육을 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5) 전시

초기 박물관에서의 전시란 단순히 물건을 늘어놓는 진열에 가까웠다. 지금 박물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시란 진열된 대상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전시 기획자의 '해석'이 개입된 진열이며, 이를 관람객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시는 넓은 의미에서 교육적 효과를 내포하는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정 사물에 무엇인가 의미를 추가한다는 개념을 내포한다. 전시는 눈길을 끌만한 것이어야 하고 관람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박물관의 전시는 사실에 근거하고, 정확하며, 권위를 가져야 하며, 전시를 기획하는 것은 세세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탐구가 요구되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6) 교육

박물관은 인력과 시설이 허락하는 한 지역사회에 최대한 기여하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전개해왔다. 교육의 대상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가족단위 혹은 학급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현재는 어린이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립중앙박물관을 위시하여 몇몇의 '어린이박물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I. 마을박물관의 개념

1. 마을박물관 정의

1) 마을과 마을문화

‘마을’이란 인간이 정착생활을 하면서부터 형성된 가장 작은 단위의 자연공동체이며 일상생활의 토대이다. 단순한 지리적 공동체가 아니라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지역에서 사회적인 집단을 이루며 살아도 그 지역만의 문화적인 정체

성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마을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공동체적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또한 마을로 인식될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을을 결정짓는 요소는 지리적인 특성보다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전통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의 개념은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 이루어놓은 행동양식의 전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하여 얻어진 모든 능력이나 습관들을 포괄하는 복합적 총체이자 삶의 양식이다.” 따라서 마을문화는 마을이라는 공간적 단위를 바탕으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 또는 마을공동체 특유의 유형화된 생활양식이다.

오늘날의 마을문화는 마을의 개념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레 변형되었다. 전통적인 개념의 마을은 마을 공간 전체에 그들의 문화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마을 공간은 문화적 토양이자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도시 마을 공동체에게는 사회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상호관계에서 공유하는 상징체계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오늘날 도시 마을문화는 사회적 공간에서 창조된 문화적 상징을 공유한 공동체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 마을박물관

196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근대 박물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개념의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New Museum)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대중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그들의 원하는 요구치 또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료를 조사·연구·수집·보존하여 전시를 위주로 하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관람객의 체험과 참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또한 추가되었다. 특히 지역문화와의 다양한 연계를 통하여 열린 박물관을 추구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에코뮤지엄(Ecomuseum)이나 마을박물관(Community museum) 개념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마을박물관은 공동체의 생활상을 가진 ‘마을 내에 있는 박물관’, 또는 ‘마을의 문화, 역사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마을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 연구, 교육하는 시설들의 집합체이자 동시에 생태적, 장소적 개념이 포함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마을의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기관으로 이를 통하여 단순히 마을의 문화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 마을 주민의 자생력을 길러줄 수 있는 생활수단으로서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2. 마을박물관 기능

도시개발과정에서 본래의 속성을 잃고 있는 마을의 원형을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상과 환경에 대한 기억이 더 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소멸이 가져온 폐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Ⅲ. 마을박물관 만들기

1. 마을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역사적으로 박물관이 만들어지는 배경은 전시물의 획득이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까지도 많은 박물관이 같은 이유로 설립되었다. 예를 들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관리해야 할 대규모 유물과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역이나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박물관을 지어 유물과 유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작가나 소장가가 그동안 제작·수집한 유물 혹은 작품들을 바탕으로 직접 박물관을 운영하거나, 혹은 지자체에 기증(기탁)하여 이를 관리한 박물관이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마을박물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마을박물관은 상기 예와 같이 알아서 주어지는 수집물의 홍수로 박물관이 설립되기 보다는,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료의 수집의 종류, 규모, 방법 등이 모색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1) 자료 수집

① 유형자료

마을 문화 기록의 대상은 마을공동체 자체와 마을 구성원 및 관련 인물과 단체가 생산하는 모든 과정과 결과를 포함한다. 주민들이 마을기록을 위해서 별도의 행위 또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관련되고 마을 내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고민과 행위 및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이 그 대상 즉 내용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참고할만한 마을문화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예이다.

구분	구성 내용 및 활동
자연공간	경관, 산, 내, 동물, 식물, 훼손, 복구
인문공간	길, 골목, 건축, 농지, 축사, 공공시설, 건개축, 성황당, 유적
역사	형성, 인물, 전래, 전근대·근대·현대 이야기, 마을 특성의 역사
공동체 조직	대동계, 반회, 두레, 품앗이, 대동회, 청장년회, 부녀회, 노인회
공동체 문화	세시행사(정원대보름, 단오, 추석, 동지 등), 경로잔치, 마을운동회, 마을 공연, 축제 등 이벤트
경제활동	농사, 축산, 마을가게, 소금·비료 배급, 특성화사업
소조직	마을 공부방, 독서회, 각종 예술모임, 운동 모임, 봉사 모임
개별 가호	가족 활동, 가호별 세시풍속, 가호별 문화
네트워크	시장, 동·면 자치센터, 농협, 결연마을

[표1] 마을문화의 구성요소의 예시

마을단위 아카이브는 정부나 기관의 주도하에 읍면동 행정구역별로 이루어지는 중앙집중식 피라미드 구조의 단선적이고 일원화된 개념으로 이루어진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얻는 자료와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마을의 개념과 도시마을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 진행되었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역사와 기록 중심의 마을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유형적인 생활용구,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이 쓴 일기, 반상회 출석부, 지역신문, 발표문, 성명서, 편지,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주고받은 각종 서류와 계약서, 영수증 확인서, 사진 등과 면사무소나 군청, 기타 각종 정부기관이 마을사람들과 주고받은 일체의 문서, 마을의 가옥,

건물, 오래된 나무, 공공미술작가의 작품, 벽화,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무형자료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

2) 자료 관리

① 등록체계

다음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취득 관리대장이다. 법적으로 모든 등록 박물관은 본 서식에 맞추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하므로 박물관 등록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참고하는 것이 좋다.

연번	명칭		수량		국적/시대		재질		사진
	취득 일자/경위/ 처/가격				출토(소)지/출처				
	크기								
	특징								

[표2]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취득 관리대장

② 자료의 보관

온도, 습도, 조도 등 소장품(전시품)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유형 소장품의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이상적인 온도와 습도 범위도 소장품의 재질에 따라 다르다. 박물관의 경우 항구적인 유물 보존을 목적으로 항온항습 시설이 갖춰진 수장고에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훼손 유물 보존처리까지 담당하지만, 마을박물관은 전문 수장시설까지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어쩌면 수집품 대부분이 전시실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온도를 섭씨 20도, 습도를 50% 내외로 맞추기는 불가능하지만, 어떤 온도, 어떤 습도가 되었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조도의 경우는 낮을수록 좋다.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어떤 전문적인 보존과학적 관리에 앞선 것이 바로 청결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마을박물관 소장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영상물, 사진 등의 데이터이므로 데이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백업,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2. 마을박물관 전시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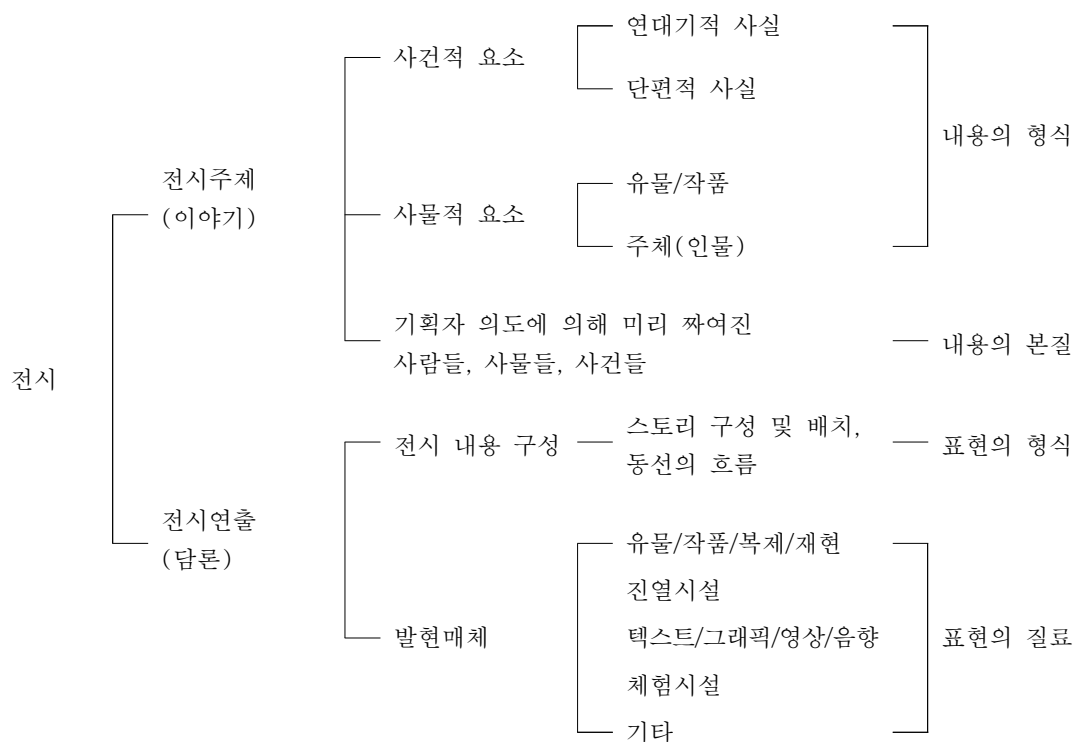
수집, 기록한 자료와 그를 가공한 2, 3차 자료들은 전시를 꾸릴 수 있는 재료가 된다. 따라서 어떤 자료들이 마련되었는지, 또 각 마을이 갖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전시 기획의 방향과 내용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1) 배경 조사

- ① 역사·지리적 특성
- ② 인구·사회적 특성
- ③ 생활·문화적 특성

2) 전시 스토리텔링

전시 스토리텔링은 서사구조형식의 스토리(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와 담론(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으로 구분된다. 스토리는 전시의 명칭, 주제, 메시지 등을 포함하며, 이것이 전시의 내용에 따라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단편적인 지식이나 정보로서 구성될 수도 있다. 또한 유물이나 가치 있는 작품, 혹은 인물이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표3] 체트먼의 서사구조를 적용시킨 전시스토리텔링 구조

① 전시 주제(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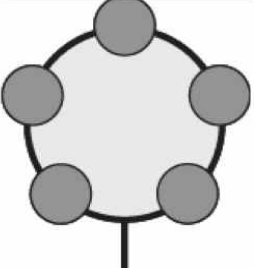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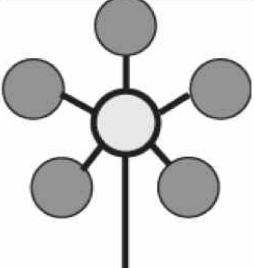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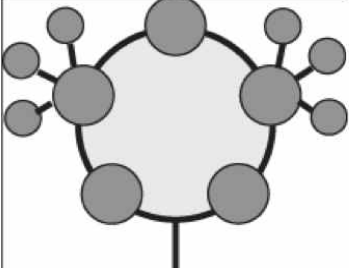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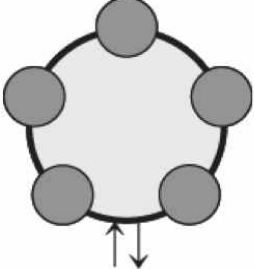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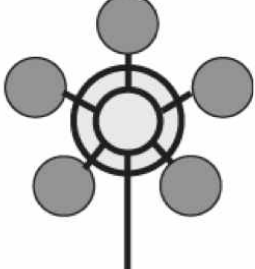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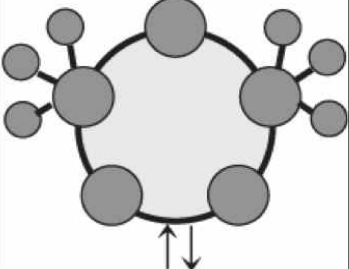
배경 조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대별 마을의 사건 및 모습의 자료를 살펴보았다면, 아카이빙을 통해 획득한 주민들의 기억으로 재구성된 시대별 사건 및 모습이 더해져 좀 더 내밀하고 생활 밀착형의 마을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어떤 이야기를 부각시킬 것인지 주제가 도출되고, 그 주제를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개별 이야기들(사건, 사람, 사물 등)을 선별한다.

② 전시 내용 구성

전시 내용 구성은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이를 통해 전시 동선의 흐름이 결정된다. 스토리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만 전시 주제(메시지)가 올바르게 전달되는 경우에는 지정동선이 제시될 것이고, 열거적 구성과 같이 스토리가 각각 독립적인 경우에는 자유 관람 동선의 형태를 나타낸다.

전개적 구성	시간적 구성	어떤 사건이나 일의 진행 과정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구성, 타임라인 등
	공간적 구성	일정한 공간이나 사물의 동적인 관점에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
종합적 구성	단계적 구성	서론, 본론, 결론, 혹은 도입, 전개, 정리의 전형적인 3단 구성
	포괄적 구성	글의 중심 내용을 글의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 연역구성, 귀납구성
	열거적 구성	여러 가지 대등한 중심내용들이 나열된 것
	점층적 구성	화제나 사건의 규모를 점점 크고 깊게, 강하고 중요하게 고조시키는 전개 방식

[표4] 스토리텔링의 구성

스토리 구성 유형	연결된 스토리	독립적 스토리	복합적 스토리
			
관람 동선 유형	지정 관람동선	자유 관람동선	혼합형 관람동선
			

[표5] 스토리 구성 유형과 동선 유형

③ 발현 매체

발현 매체는 앞서 [표3] 전시스토리텔링 구조에서 서술하였듯이 유물이나 작품, 또는 복제품, 재현품 등 유형의 전시물과 함께, 텍스트, 사진, 그래픽, 영상, 음향 등 다양한 매체가 존재한다. 마을박물관에도 마을 주민들로부터 수집한 생활용구 등의 유물과 함께, 마을의 예술문화인이 작업한 작품, 주요 마을 이벤트를 상기시키는 재현품 등을 전시할 수 있다. 또 유형 전시물이 상대적으로 빈약할 때에는 그 외 다양한 매체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마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텍스트, 마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 그래픽으로 구현한 과거의 마을 지도,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의 인터뷰 영상이나 마을의 현장감을 상기시킬 수 있는 음향 등은 유물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비중 있는 전시물이 될

수 있다. 멀티미디어의 기술적 발달뿐만 아니라 화면으로 보는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할머니 덕에 가면 쉽게 보이는 일상 용구들을 늘어놓은 것보다는 후자와 같은 매체들을 통한 전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박물관 전시에서 쓰이는 영상은 사실을 기반으로 제작된다는 것에서 다큐멘터리 영상과 같은 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방송용이나 극장용 다큐멘터리와 같이 오랜 시간의 러닝타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3~5분 내외의 짧은 러닝타임이 특징이다. 이는 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환경이 아닌 전시관에서 걸으면서 전시물을 관람하듯이 시청하며 주변 전시물과의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장에서도 따로 영상 시청 공간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러닝타임이 더 길고 긴 호흡과 집중이 필요한 영상을 상영하기도 한다.

다큐멘터리에 주로 쓰이는 기법으로는 기록 자료의 사용, 재연, 인터뷰, 컴퓨터 그래픽이다. 기록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영상 자료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재연은 다큐멘터리에서 사용 비중이 늘어난 기법인데, 사실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드라마를 연출할 수 있어 영상에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 인터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뷰 촬영에 많이 사용되는 버스트샷보다 클로즈업샷이 인물의 표정이나 감정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 인터뷰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컴퓨터 그래픽은 표현 방법이 무한하다고 할 만큼 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나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는 특정 기술을 보유하거나 적지 않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4) 온라인 이용

마을박물관 접근성 및 홍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아카이빙의 중요한 도구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

- ① 온라인전시
- ② SNS 활용
- ③ 온라인 오픈 아카이브

3. 마을박물관 교육

1) 대상에 따른 분류

① 일반

마을박물관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필수적인 것이 박물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 교육은 교육 대상자만을 박물관으로 이끌어들이는 단방향적인 것이 아닌 마을 사람들 누구나 교육을 받는 동시에 교육을 할 수도 있는 유동성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마을에 오래 정주하며 마을에 대한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찰, 소방관, 제빵사, 미용사, 태권도 관장 등 다양하고 평범한 직업군의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마을 주민 모두가 교육 대상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에듀케이터(educator)가 될 수 있다.

② 전문인 양성

마을박물관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예비 활동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관리·운영자, 에듀케이터, 도슨

트 등 다양한 마을박물관 전문인의 범주가 있다. 마을박물관이 갖는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특정 지식과 활동 요령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장소성에 따른 분류

① 정주 프로그램

박물관 내부 혹은 외부의 정해진 교육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로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의, 공예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투어 프로그램

마을의 주요 장소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을에 대해 많은 지식이 없는 관광객이나 이주민 등 마을을 현장감 있는 모습으로 알리고, 이미 잘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장소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찾아갈만한 투어 장소의 부재, 재개발 등으로 인한 장소의 변화, 장소들 사이의 거리, 이동 수단의 고려 등 지역마다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③ 찾아가는 프로그램

학교 등 교육기관, 주민 커뮤니티 센터 등 교육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마을이라는 비교적 작은 단위의 장소성 때문에 비교적 필수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학교의 교과 연계 과정이라던지,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혹은 병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3)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전시 연계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로 하여금 그 전시에 대한 집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스스로 재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전시의 내용이 꼭 전문적이거나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어도 그 전시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라도 대상자의 현재 상황과 비교해보거나, 대상자의 새로운 해석 등을 불러일으키는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어린이박물관(School V&A Museum of Childgood)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 <장난감 연대기(Toys on a Timeline)>과 <과거를 발견하다-장난감편(Finding out about the past - toys)>에서는 전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장난감을 감상하고 그 장난감으로 놀이를 해본다던지, 집에 가져갈 장난감을 만들어보는 교육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같이 마을박물관에서도 전시되어 있는 특정한 물건, 특정한 장소의 기억, 특정한 이벤트(새시풍속 등)에 대한 이야기가 교육 프로그램 소재가 될 수 있다.

② 지역 연계

꼭 전시와 연계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지역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교육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례로 지역 신문 만들거나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초빙한 수업, 지역의 스포츠 동아리들을 초빙한 어린이 체육 수업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외에도 봉사활동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마을박물관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주민들

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박물관과 같은 소규모 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재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Alexander, Edward Porter, *Museums in motion: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and functions of museums*, AltaMira Press, 2008.

김연희,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박물관 전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영주,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박물관 전시영상 연구』,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양유정, 「박물관 성장기반으로서의 스토리텔링구조 연구」, 『한국박물관학보』 10, 한국박물관학회, 2006, pp. 369-400.

유정미, 『지역 박물관의 전시 해석기법 연구』,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이난영, 「미술사와 박물관학」, 『박물관학 입문』, 삼미출판사, 1996.

이병훈, 『농촌관광마을의 스토리텔링 구현을 통한 장소성 확보』,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정민, 『마을문화 아카이브센터로서의 <마을박물관>의 존재의미와 활성화방안』,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최아름, 『장소기억 회복을 위한 ‘빈집’ 기반 에코뮤지엄 전시콘텐츠 기획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마을기록사례 - 해방촌 -

이규원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우리담기 마을기록학교]

6강 : 마을기록사례 - 해방촌

2021.05.25



해방촌 아카이브 사업 - 해방촌 마을기록단

해방촌 마을기록단 소개

해방촌 마을기록단



'해방촌 마을기록단'마을기록 키트'개발

수집단 00,
기획단 00명.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주민공모사업]



놀이가 되는 마을기록
마을기록의 다양한 방법론 개발
#우리마을 탐구생활_해방촌편



'어린이 마을기록교실'

운영

마을기록 키트를 기반으로
실제 지역교육 실행
#해방촌 마을기록교실



해방촌을 넘어

'마을기록단'으로

문화로서의
마을기록활동으로 확장



사업개요 - 해방촌 마을기록

사업의 목적

- > 주민주체의 마을기록단 구성을 통한 마을자원발굴, 공유와 관계형성
- > 주민주도 기록사업의 지속성제고를 위한 체계조직, 운영방안 마련

사업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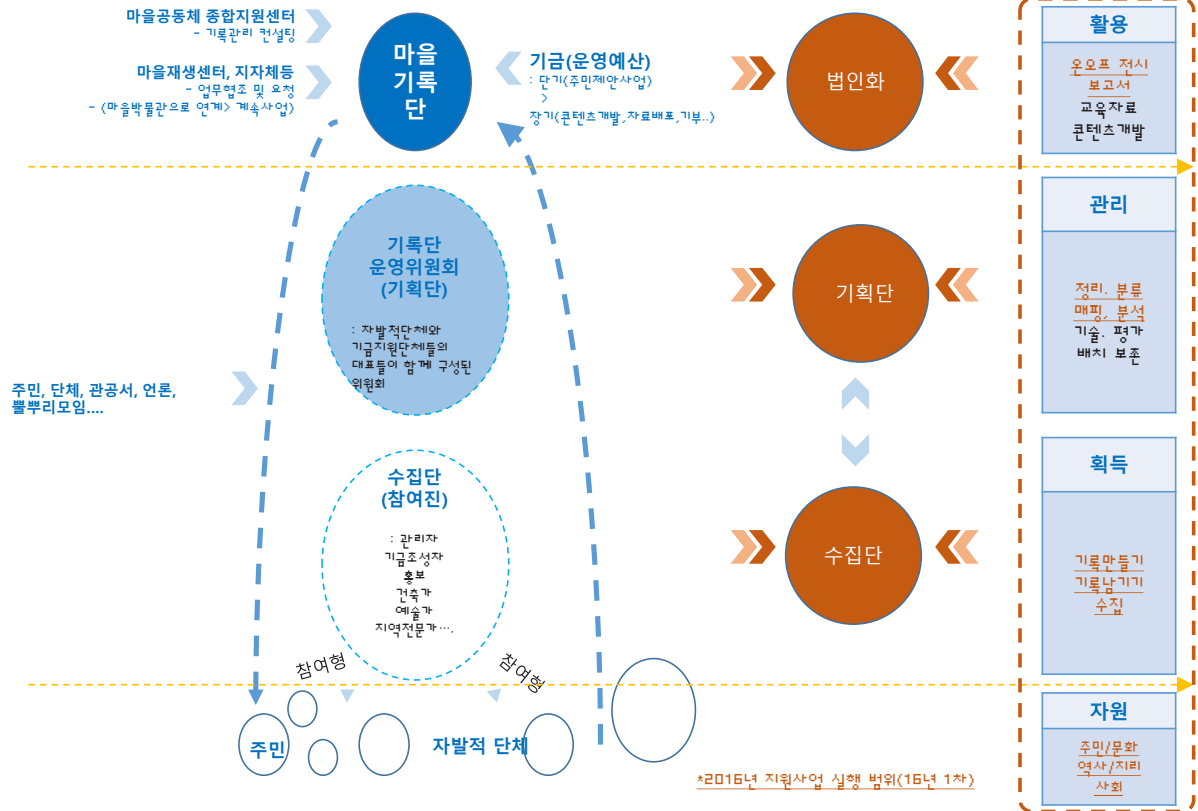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민주도의 기록선도조직체 구성 및 교육 요구/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자원발굴 도구 / '살아있는 마을 기록'의 필요성

사업의 시·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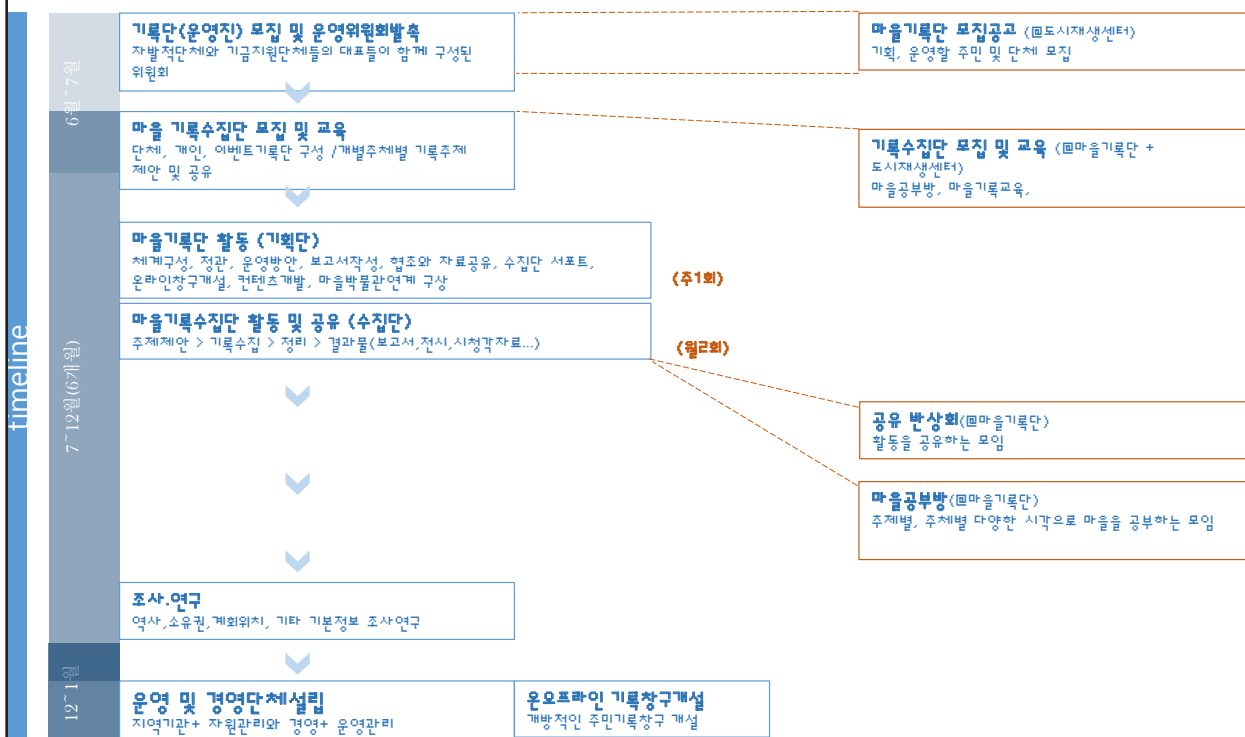
- > 시간적 범위 : 단기(2016년 6월~2017년 1월) / 장기
- > 공간적 범위: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 일대

사업의 내용적 범위

- > 마을 해방촌의 집단기억에 대한 주민 주체적인 '기록작업'을 통해 공동체관계형성
- > 지역자원 및 지속적인 기록방법론 발굴을 통한 지역재생사업의 단서제공
- > 다양한 기록창구(온라인_홈페이지/오프라인_앵커시설 내 '마을박물관')를 통한 소통창구개설
- > 지속적인 기록작업발굴을 위한 지역기록단 단계구성과 체계조직
- > 자료성재고를 위한 수익형 연계 콘텐츠 발굴
- > 주민주도의 기록권역 발전을 위한 육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활동 개발



리 활동

2018.
해방촌
탐구생활
개발

서울문화재단, 서울을 바꾸는 예술
지원주체 : [주]지역·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의 최종목표: 주민주도적 마을돌봄

이러한 과정의 원동력은 삶터로서의 마을에 대한 관심
그 시작과 계기, 지역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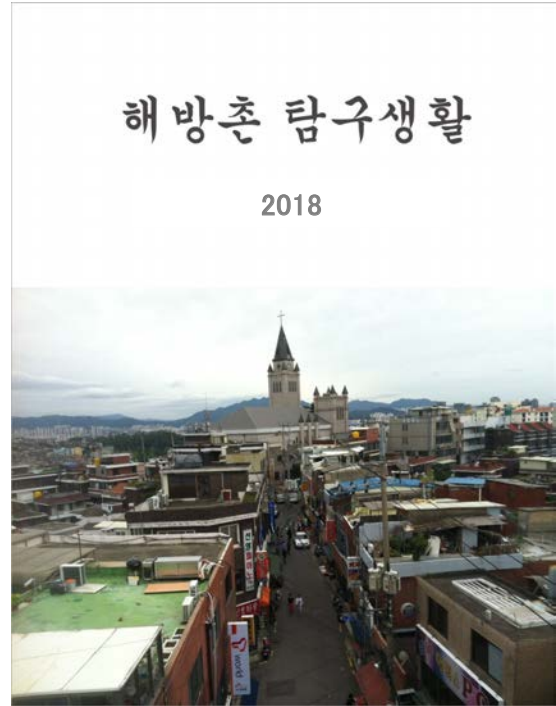
나의 주변공간,
주변사람들을 애정있게 살피는 문화예술적 접근법.

지역을 탐구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
지역을 교육할 수 있는 진지한 계기가 필요하다.

'촌'스러운 마을을
(해방)촌스럽게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을교육도구 제작

마을의 문화예술, 전문가, 비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과정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스케줄	[1단계] 마을 탐구생활 키트 제작	[2단계] 마을 탐구생활 키트 배포, 워크샵 진행	마을 탐구생활 키트 배포, 워크샵 진행 예술 워크샵 진행 청소년, 성인	마을 탐구생활 키트 최종수거 및 마을교과서 편집회의	마을교과서 제작,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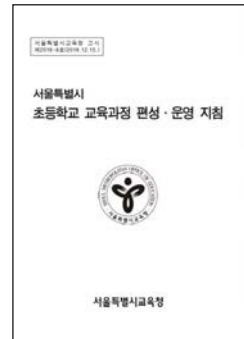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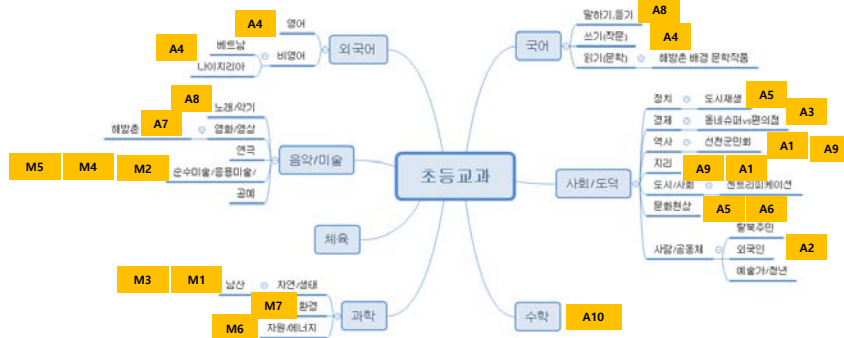


리 활동

2018.
해방촌
탐구생활
개발

내용 구성

- ✓ 마을기록놀이/마을예술놀이
- ✓ 마을을 탐구하는 00가지 방법론
- ✓ 여는 글 : 마을 소개(해방촌, 후암동), 마을기록놀이와 마을 예술 놀이의 의미, 활용방법
- ✓ 본문 구성 : 표 참조
- ✓ 닫는 글 : 제작 과정 및 함께 만든 사람들



1. 마을 기록 놀이

번호	타이틀
A1	역사로 보는 우리마을
A2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
A3	슈퍼로 보는 우리마을
A4	간판으로 보는 우리마을
A5	신문기사로 보는 우리마을
A6	건물용도로 보는 우리마을
A7	VR로 보는 우리마을
A8	소리로 보는 우리마을
A9	계단으로 보는 우리마을
A10(미정)	사건사고로 보는 우리마을
A11	이야기로 보는 우리마을

2. 마을 예술 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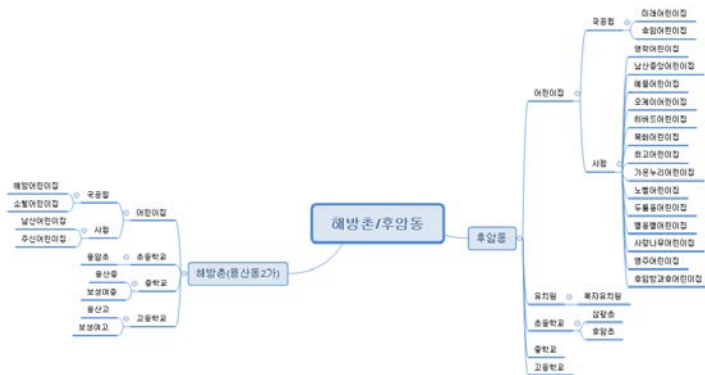
번호	타이틀
M1	남산 야생동물 서식지도 만들기
M2	우리마을 기억지도 만들기
M3	우리마을 틈새식물 도감 만들기
M4	우리마을 장소프린팅
M5	우리마을 관찰만화 만들기
M6	우리마을 스케줄표 만들기
M7	우리마을 옥상지도 만들기

리 활동

2018.
해방촌
탐구생활
개발

배부처

- ✓ 용산구 용산동2가와 후암동을 경계로
- ✓ 마을 (지역)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
- ✓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배포



우리마을 탐구생활
해방촌·후암동편

[우리마을 탐구생활]프로젝트는
우리의 주변을 관찰하고, 대화하며 자발적으로
지역을 학습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도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우리마을의 이야기를 관찰, 수집, 기록하고
"우리가 만드는 우리 마을 교과서"의
공동 저자가 되어주세요.



이 도록에는 서울문화재단
2018 서울을 바꾸는 해방촌마을기록단 운영 지원금(2018-2019)이
서울문화재단

리 활동

2019.
해방촌
어린이
기록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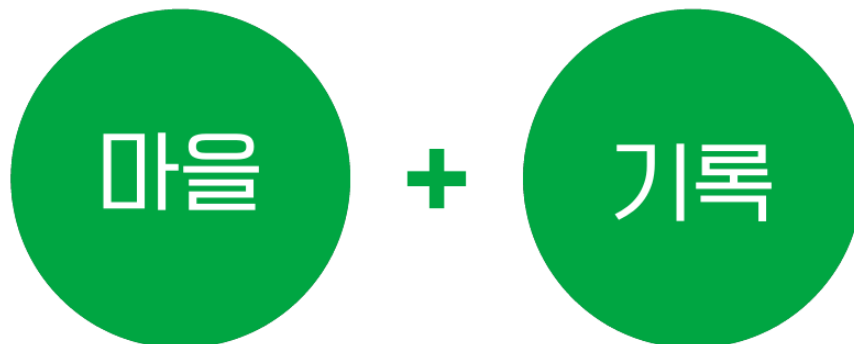


마을기록 이해하기

용어의 정의

마을기록

- 마을과 마을구성원에 의해/대해 생산되는 모든 종류의 기록



기억과 기록

기억과 관계

마을에서 함께 공유한 기억의 대상 <장소, 사건, 현장 등등>이 있다는 것은 이웃과 인연을 맺고 있다는 의미.

기억과 공감

우리는 기억을 통해, 기억의 대상 <현장, 사건>에 함께 연루된 사람에 대하여 공감을 하게 된다. 그 공감은 가장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소통이다. 함께한 경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하는 우리 이웃들 간에 그 자체로 이미 소통

기억과 기록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기록은 기억의 객관적인 원천.

우리네 마을살이의 복잡 다양한 기억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점점 소실되어가는 소중한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록의 도움이 절실

-유창복,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매뉴얼]



지속적인 마을 재구성을 위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비추는 거울

마을 기록의 쟁점

1. 중앙사 vs 지역사

일반적으로 역사의 기록은 중앙중 심, 지배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만듦.

역사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대로 알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사로서 마을기록이 의미가 있다.

2. 객관적 사실 vs 주관적 해석

3. 과거지향적 vs 미래지향적

마을 기록의 쟁점

1. 중앙사 vs 지역사

2. 객관적 사실 vs 주관적 해석

마을기록은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음.**

물론 가능한 수준에서 객관적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 역시 **지역에 대한 시대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을기록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3. 과거지향적 vs 미래지향적

마을 기록의 쟁점 <1>

1. 중앙사 vs 지역사

2. 객관적 사실 vs 주관적 해석

3. 과거지향적 vs 미래지향적

역사적 자료를 기록한다는 것이 이미 지나간 과거를 지향한다는 혹은 복고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나
마을기록을 통해 **공식적인 기록 속에 존재하지 않거나 사라져가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되살려내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과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을 기록의 쟁점 <2>

1. 주민 vs 외부인

마을기록의 주체가 마을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마을의 구성원은 단순히 마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거주하는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다.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를 기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마을기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주민 vs 전문가

3. 주민 vs 기록자

마을 기록의 쟁점 <2>

1. 주민 vs 외부인

2. 주민 vs 전문가

마을기록은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전문가로** 취급된다.

하지만 마을 주민은 자신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다. 자신의 분야에서 습득한 여러 가지
기술/도구들은 마을기록을 위해 특화된 것은
아닐지라도 **마을을 들여다보는데 이를 접맥시켜
마을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3. 주민 vs 기록자

마을 기록의 쟁점 <2>

1. 주민 vs 외부인
2. 주민 vs 전문가
3. 주민 vs 기록자

마을 기록이 '기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는 마을을 기록하는 행위가 **객관적인 관찰자와
같이 마을을 기록**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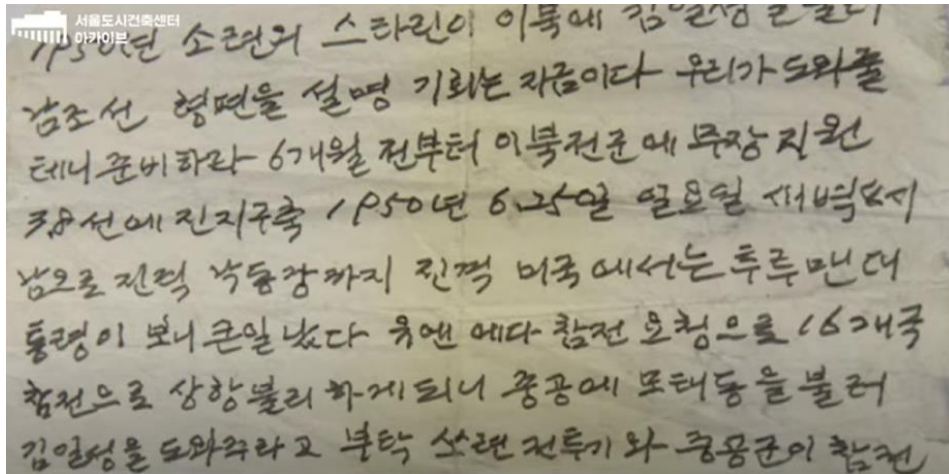
마을의 구성원은 **단순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마을
기록에는 객관적인 기록 이상의 다양한 목적들이
존재할 수 있다.

Why: 왜 기록하는가?

마을 기록의 목적

마을 기록의 목적:

- 1) 마을의 기록 - 마을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것들이 많다. 기록을 통해 공동의 기록이 보존될 수 있다.



마을 기록의 목적

마을 기록의 목적:

- 2) 마을의 문제해결 - 마을에서 주민들의 공동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불러 일으켜 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마을 기록의 이유

마을 기록의 목적:

- 3) 마을의 관계맺기 - 마을의 기록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여 관계맺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How: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지역과 자원

1. [해방촌 마을 기록] 시작하기

[해방촌 마을 기록] 활동의 중요한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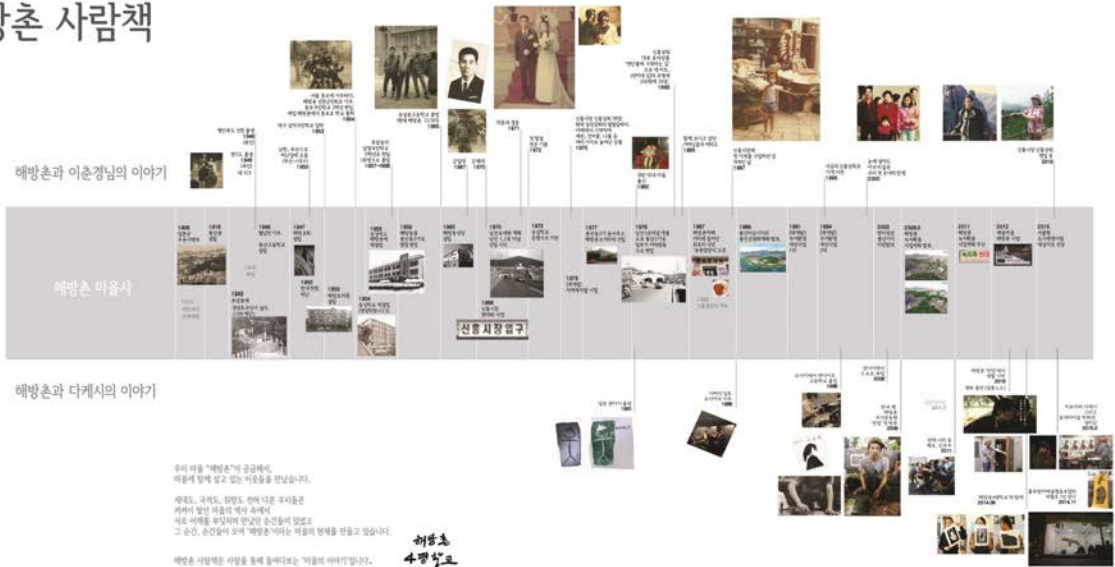
모두가 **공유할만한** 해방촌 마을의 가치를 수집, 기록한다. > 개인이 **소장하고 싶은** 마을의 관심사를 수집, 기록한다.

지역과 자원

2. [해방촌 마을 기록] 주제와 방법 정하기



해방촌 사람책



개인이사가 마을사로 확장되는 과정



<미스 Miss, 할머니>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건네는 이야기이다. 자신의
기억을 '사소한 것'이라 치부하는 엄마에게
더는 당신들의 기억이 사소하지 않다고...
당신의 기억이, 당신의 삶이 지닌 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다고... 이 세상의
엄마들, 그리고 그 엄마의 엄마들에 대한
그리움을 기억하여 <http://memoryplant.blog.me/>



[기억발전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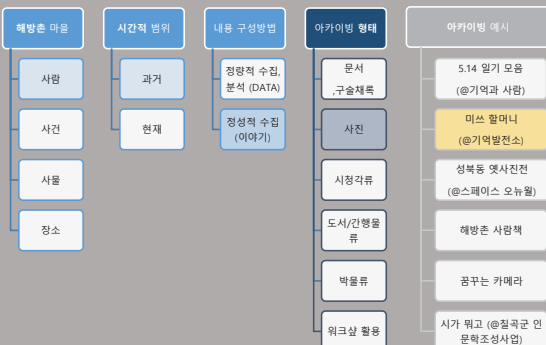
〈광천동 52-12, 기억 속의 공간, 기억 속의 사람들〉展

작가: 김성민, 도미라, 권이경, 홍영우

장소: 다림예술공간도어

기간: 2011년 8월 25일~31일

신촌에서 13년째 운영되고 있는 작은 술집 '모기장'을 중심으로 신촌을 오가며 젊은 시절을 겪었던 사람들의 기억을 펼쳐보이는 전시. 참여작가들은 광천동 52-12번지에 자리잡은 '모기장'에 얽힌 추억과 그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사진, 영상, 회화로 담아냈다.





전시 소개

성북동 발견, 도시 마을의 귀환

마을이 귀환한다. 재개발 광풍과 뉴타운 정책의 좌초를 겪은 삭막한 서울 도심에 텃밭이 생겨나고 푸성귀가 자란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마을 활동이 늘면서 서울시는 9월 27일 서울광장에서 '2013 서울 마을박람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성북동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 마을'의 모델이다. 서울 자봉 밑 구릉지에 부촌과 서민 동네가 공존하지만 토박이들의 자부심과 예술을 품은 여유가 사이 좋게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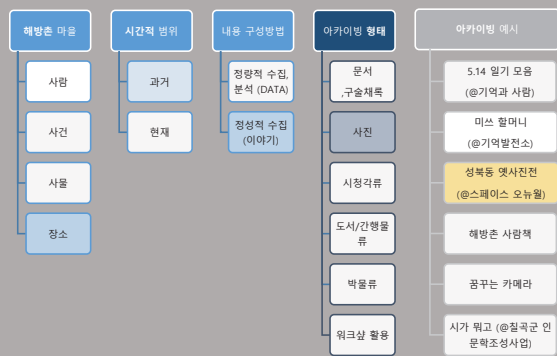
재개발의 상처에 대처하는 공공 예술의 자세

성북동 옛날 사진전은 이 같은 성북동의 옛 모습과 토박이 주민들의 빛 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전시다. 성북동의 역사와 함께해온 주민들이 손수 꺼내온 사진을 모으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다. 또 성북동 출신 작가가 참여해 수집된 사진을 활용한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성북동이 복개된 직후의 모습이 담긴 사진, 고사리 손으로 만든 20년 전 성북동 명소 스크랩북 등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성북동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역사문화지구 추진 등으로 갈등을 겪는 이들도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자리가 되도록 의도된 작업이다. 이는 '동네가 품은 갤러리'로서 스페이스 오뉴월이 추구해온 공공예술의 일환이기도 하다. 주민과 함께 기획한 전시이기에 정책과 시정이 풀 수 없는 미시적 상처까지 보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스페이스 오뉴월에서 열리는 '성북동 옛날 사진전'의 성북동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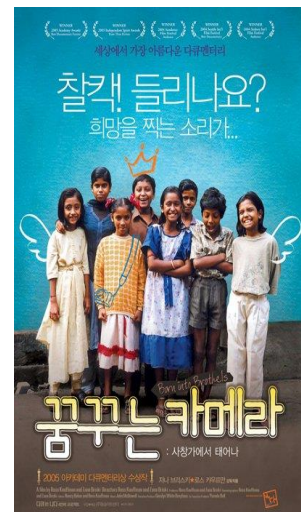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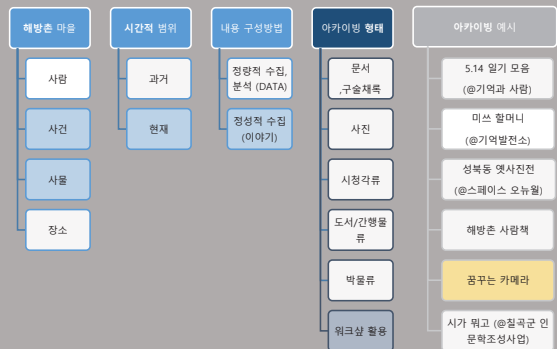
사진(스페이스오뉴월 제공) (News1)



활동의 모티브가 된 영화

이 영화의 감독은 흥동가에서 만난 아이들의 놀랄만한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 아이들에게 카메라를 주고 사진 찍는 방법을 알려준 사진작가 브리스키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린이들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천재적인 예술성에 불을 붙여 주었다. 아이들이 찍은 사진들은 단순히 그들의 비범한 관찰력과 재능을 보여주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무언가를 반영하고 있다. 즉 그들을 해방시켜주며 그들의 실제적인 능력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예술이 지닌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꿈꾸는 카메라: 사창가에서 태어나 >는 밀바닥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눈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광객들이 찍은 스냅 사진의 전형적인 감상성을 거부한다. 수 년 동안 꼬마들과 함께 생활한 브리스키는 그들 세상의 일부분이 된다. 꼬마들이 찍은 사진들은 인류학적 호기심을 갖고 찍은 미개한 이미지들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여주는 프리즘이자 창작 정신이 가진 힘에 대한 진실한 증언이다.



활동 소개

꿈꾸는 카메라는 일회용 카메라를 이용해 세계각국의 아동청소년과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행는 문화예술 비영리 단체. 2009년부터 아프리카 잠비아를 시작으로 여러나라를 방문하며 활동.

각 나라의 아이들이 일회용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하고 각 나라의 물품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판매한 판매금, 기부금, 기부물품들로 후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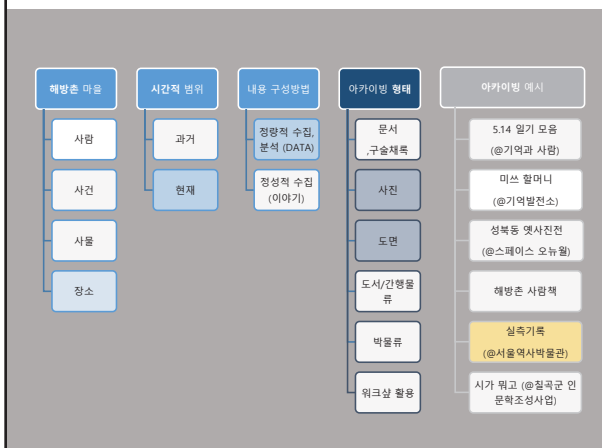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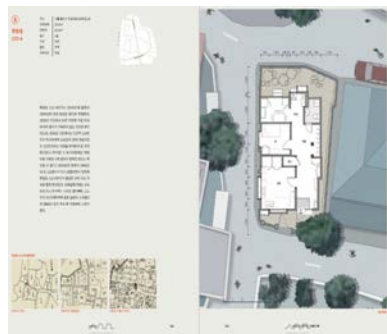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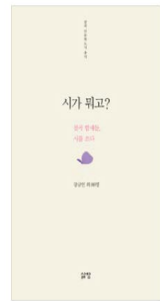


책 소개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도시 조성사업'은 '삶의 인문학, 생활의 인문학'을 지향.

"인문학, 그거 뭐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인문학이지"에 다 드러나 있다. 이 시집은 '인문학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진행한 문해 교육 현장에서 쓴 시를 모은 것이다.

뒤늦게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



소리아카이브

소리로 만드는 즐거운 세상

기획특집

추천 소리

주제별 소리

국토너벨 소리

소개

검색

기획특집

미디어 교육자 1세대

원용진, 김춘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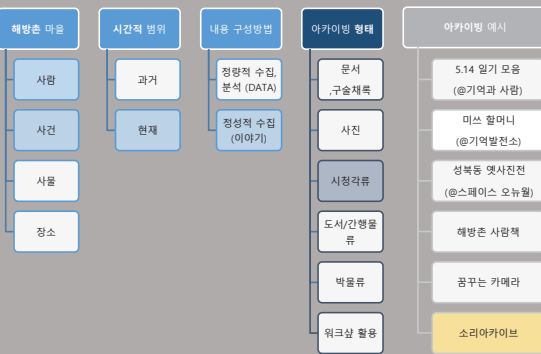
한국 미디어 교육자 1세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소통과 미디어에 대한 통찰을 다음세대에게 전합니다.

소리 듣기

소리아카이브

소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미디어
소리를 수집, 기록, 보존하는 오디오 디지털 아카이브
소리로 소통하는 개인들의 커뮤니터

소개 더보기



이 달의 인기소리 Top5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주신 인기소리 5개를 선정하여 매월 1일 업데이트 합니다.



【노블 문익환】 민족통일과 민족화해

다음세대재단

처음에 말해 준 주제는 민족통일과 민족화해인데 왔더니 "민족통일과 종교"였다.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했다.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군가 원수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나 하룻만에 풀려났다. 나는 배반은 하지 않는다. 건설적...

노블 문익환, 문익환, 통일맞이, 문익환 목사, 통일관, 민족통일, 민족화해

Twitter

Share



【영아명연설】 취임연설 - 존 F. 케네디

다음세대재단

Vice President Johnson, Mr. Speaker, Mr. Chief Justice, President Eisenhower, Vice President Nixon, President Truman, Reverend Clergy, fellow citizens: We observe today not a victory of party, but a celebration of freedom - s...

미국 대통령, 케네디, 취임연설, John F. Kennedy

Twitter

Share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공유형 - 마을인지지도

- 개인의 인상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마을지도를 그리고 비교해본다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공유형 - 우리마을 기억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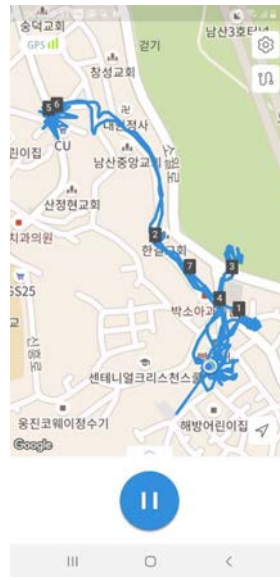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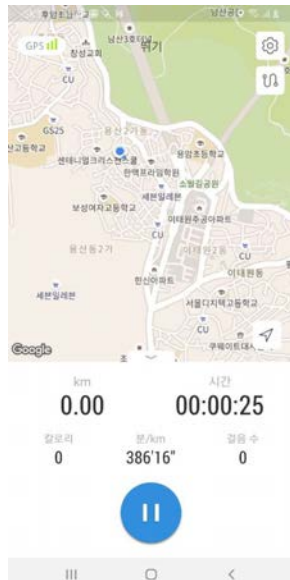
- 마을 지도에 공간에 얹혀 있는 자신의 기억을 기록한다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공유형 - 우리마을 걷기지도

- 이동 기록 앱을 활용하여 마을에서 자신이 이동하는 동선을 기록하여 비교해본다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표현형 - 틈새식물도감

- 거리의 틈새에 있는 식물을 시아노타입을 사용하여 도감으로 만든다



수수하고
꽃이 없어도
괜찮아,
애기땅빈대

식물 이름 애기땅빈대
발견한 날짜 2018년 8월 3일
발견한 곳 해방촌 홍사무소 앞

관찰특징

한해살이인 작은 풀이다.
큰 꽃에 흰 털이 나 있는 가느다란 줄기는 땅으로
기어나와서 아래 가지들 처서 땅을 덮는
모습이다. 줄기와 가지는 붉은 털을 띠고,
잎은 매우 작은 반이마 길쭉한 타원 모양의
뒤쪽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톱니가 생겨나 있다.
잎의 표면은 어두운 녹색이고 그 한가운데에
어두운 보랏빛 무늬가 보인다. 잎은 2절마다
자란다.

한해살이인 작은 풀인데 귀화하여 무리나
발아나 잎이 돋아나고 있다.

한해살이인 작은 꽃에 흰 털이 나 있는 가느다란 줄기는
땅으로 기어나와서 아래 가지들 처서 땅을 덮는
모습이다. 줄기와 가지는 붉은 털을 띠고,
잎은 매우 작은 반이마 길쭉한 타원 모양의
뒤쪽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톱니가 생겨나 있다.
잎의 표면은 어두운 녹색이고 그 한가운데에
어두운 보랏빛 무늬가 보인다. 잎은 2절마다
자란다.

줄기는 붉고 잎은 짙은 녹색을 띠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게 '비단물'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꽃과 종자 등은 산채로, 특별한 건조처치 없이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표현형 - 소리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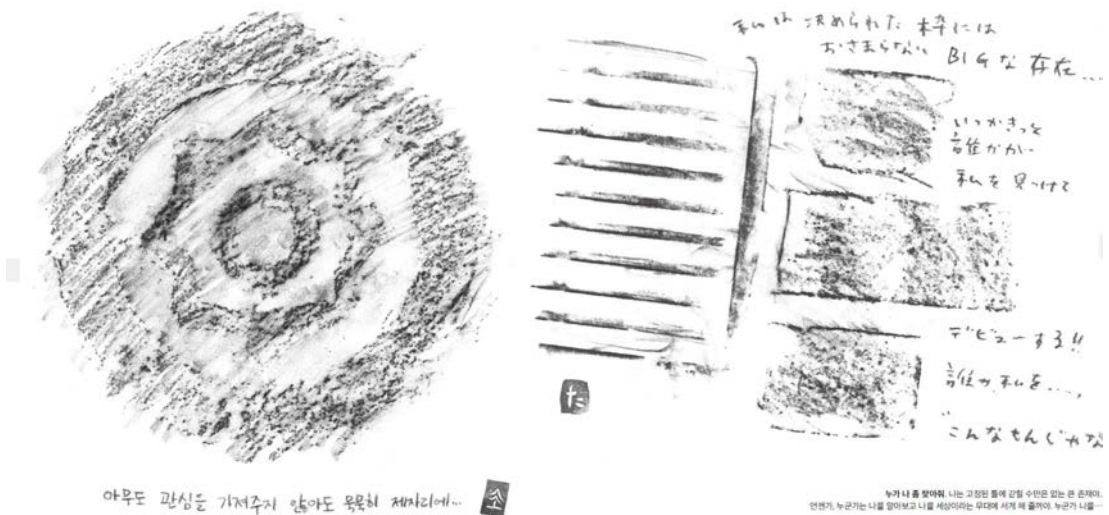
-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리들을 수집하여 지도에 표시한다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표현형 - 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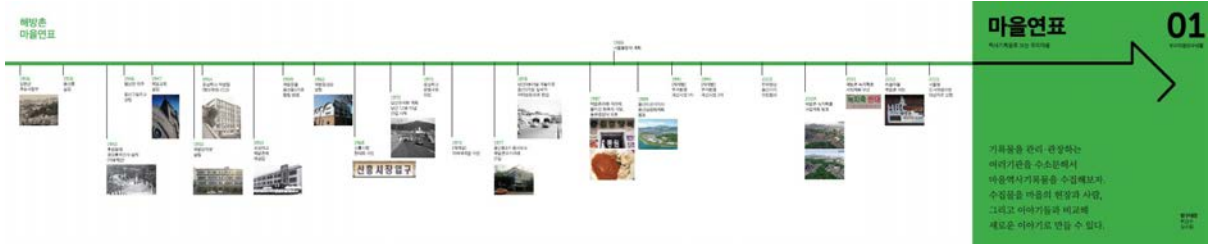
- 사물 탁본을 통해 마을에 대한 이야기책을 만든다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기록형 - 마을연표

- 마을에 대한 역사 기록들을 수집하여 마을 연표를 만들어본다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기록형 - 다양한 매체 활용

- 역사 기록의 매체(사진, 지도, 영화, 노래 등)를 확대해본다



효안도 해방촌 낚사의 1960년대 풍경(출처: 영화 '반서편')



최신서울특별시지도지번일(1968년)에서의 용산중 2가



계획이 수정되기 전 용산1재개발 사업지구조감도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기록형 - 간판 수집

- 거리의 간판의 변화를 기록하여 마을의 변화를 기록한다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기록형 - 거리 변화 기록하기

- 거리의 간판의 변화를 기록하여 마을의 변화를 기록한다



개별 기록 방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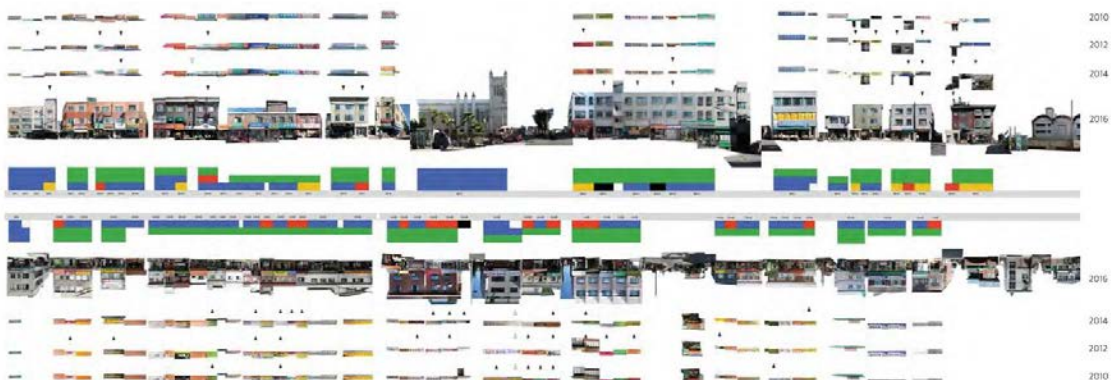
개별 기록 방법: 기록형 - 거리 변화 기록하기 한 단계 더!



개별 기록 방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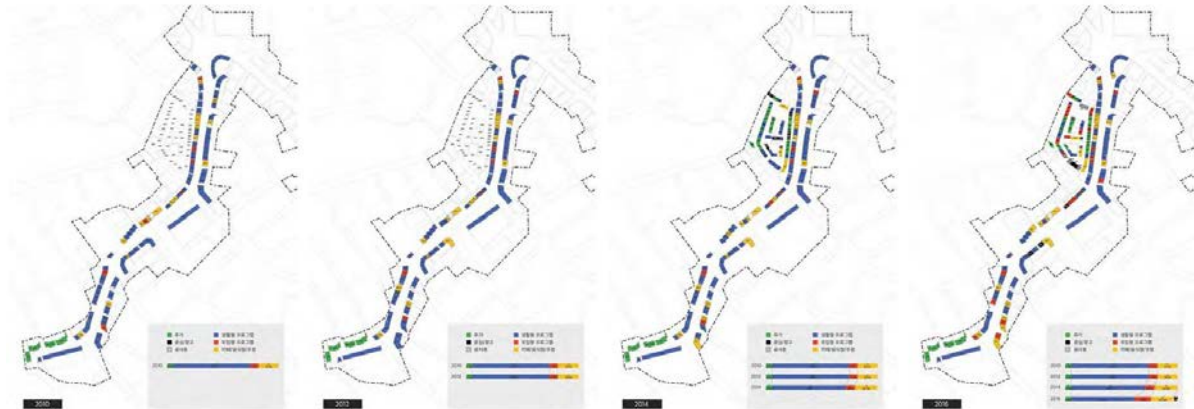
개별 기록 방법: 기록형 - 거리 변화 기록하기 한 단계 더!

입면과 간편으로 보는 변화 2010 / 2012 / 2014 / 2016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기록형 - 거리 변화 기록하기 한 단계 더!



-생활형 프로그램 vs 유입형 프로그램 -초반 vs 중반 vs 후반 -생활가로 vs 신용시장

개별 기록 방법 소개

개별 기록 방법: 기록형 - 사람책 만들기

-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사라져가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다

북서평역에서 해방촌 올라오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미군 담벼락에 크고 작은 수백 개의 향아리들이 줄바라게 서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은 '한신옹기' 주인장인 신연근 할머니가 오랜 세월 동안 애지중지 가꿔온 곳입니다. 원래 할머니는 삼팔선 넘어 북쪽 땅에 있는 강원도 이천이 고향이었습니다. 해방 전에 남쪽으로 내려와 신탄진에 되었습니다.

"그 때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치료하려고 서울로 오게 되었어. 끝내 병을 못 고치고 곧 돌아가셨지. 엄마와 맏딸인 내가 시장에 나가 담배도 팔고 하면서 겨우 끼니를 이었지."

그 후 한국전쟁을 만나 충주로 피난살이도 하면서 어렵게 지내다가 여주 출신의 건실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967년부터 남편과 용기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용기는 간장, 고추장, 된장, 김치들을 지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집안 물건이었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는 리어카도 없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함께 무거운 향아리들을 이고 진 채 해방촌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팔았습니다.

"그 때는 젊었으니까 무거운 줄도 모르고 향아리를 이고 다녔지. 이고 간 향아리가 다 팔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힘든 줄도 몰랐단니까. 그런데 안 팔려서 그냥 이고 올 때면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천근만근 같았어."

할머니는 어려웠던 젊은 시절이었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듯이 환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십년을 노력해서 겨우 지금의 터를 마련했는데 집을 지을 돈이 없어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 판잣집이 스무 번이나 철거당해서 나중에는 땅굴까지 파고 살았으니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힘든 일들을 전진 거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일해서 6남매를 기우는데 아이들이 잘 자라워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지금 자식들이 다들 효도하니 참 좋아."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었지만 해방촌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오십 년도 넘게 용기 가게를 키우고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해방촌 터줏대감이라 할 만한 신연근 할머니는 이제 팔순도 넘은 나이지만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고 늘 손님을 맞이합니다. 할머니는 아침마다 담벼락에 선 수백 개가 넘는 향아리들을 윤이 나게 닦아 놓습니다. 할머니의 쓰고 뽀고 단 인생이 담긴 향아리들은 굳세게 살아오신 그에게 싱그러움과 주름살은 두 반짝반짝 빛납니다.



신연근 할머니의 방

아카이브 구축 프레임 : 사례

도봉2동 마을기록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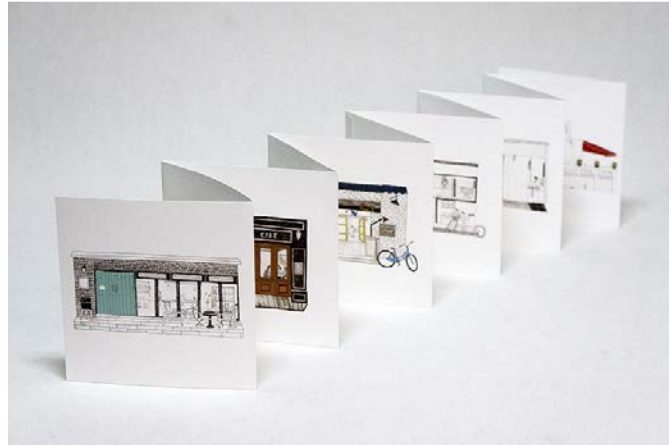
도봉2동 마을 기록 계획: 개별 기록 + 공동기록

- 1) 도봉2동 명동거리를 기록의 중심 장소로 잡는다
- 2) 다양한 기록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별 혹은 팀별로 기록한다
- 3) 개별 기록을 종합하여 공동의 마을기록을 만든다



개별 기록

- 개인용 아코디언북: 개별 마을기록의 토대
- 파노라마 사진으로 만들어진 아코디언북에 개인의 마을기록을 담는다



개별 기록

- 명동거리 기록에 사용할 방법:
사진 찍기, 소리 수집, 탁본 뜨기, 간단한 인터뷰



도봉리동 마을기록 예시

공동 기록

- 명동거리 파사드맵에 각자 수집한 기록을 붙여서 공동기록을 만든다
- 이와 동시에 관심 있는 다른 사람들의 수집물을 개인 아코디언 북에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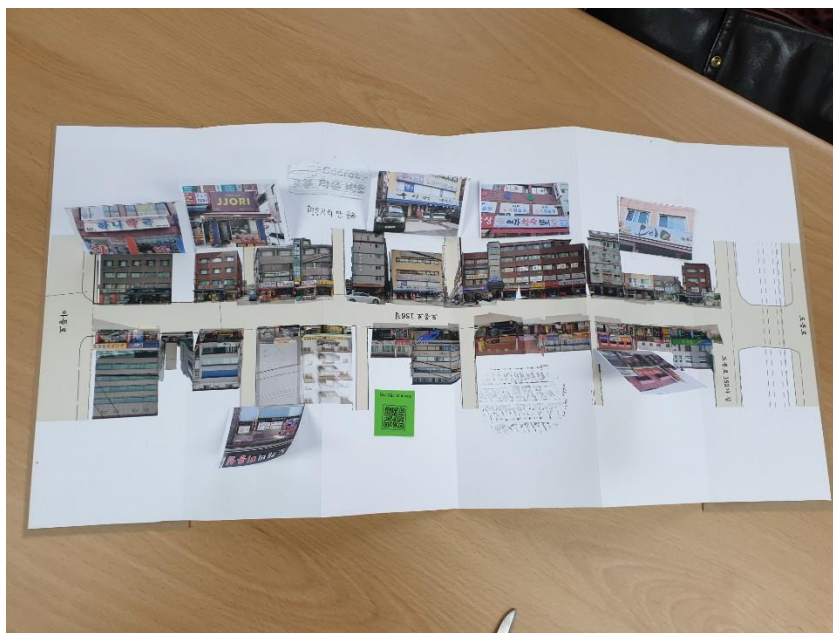


+



도봉리동 마을기록 예시

개별 기록 & 공동 기록 결과물



개별 기록 & 공동 기록 결과물



마을 기록활동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마을 기록활동의 재미와 의미

해방촌아카이브사업_해방촌 마을기록단





마을 기록의 의미 (역할)

목소리를 가지게 된 주민,
주체가 된 주민

〈마을 기록활동의〉 재미와 의미 > 기록물의 가치

MEMO

.....

.....

.....

.....

.....

07



체험학습

-세종시 마을기록관 견학-

총괄팀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07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나의 마을 알아보기

안여종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나의 마을 알아보기

(사)대전문화유산올림 가깝고도 특별한 여행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 D.E.T. COOP

대표 안여종 : 010-2405-4728

한자로 기록한 마을이란?

밭이 있는 마을!

[훈] 마을 / [음] 리

洞



村



© (주)천재 교육 | BY-NC-ND

田 → 里 → 里 → 里



마을 자원조사 왜 해야 하나?

이 우리 마을 자원조사 왜 해야 하는 걸까?

“우리 동네가 바뀌고 있어요.”

바뀐 우리 동네, 혹은 이사한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는 우리 마을.

우리 마을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지는 않나요?

혹은, 변화된 동네에 이전에는 없던 고민이 생기진 않았나요?

변화된 우리 동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알아가야 할까요?

우리 마을 자원조사를 하는 이유와 우리들의 마음가짐

지역자원조사는 이런 목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살고 있지만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 동네를 더 잘 알기 위해, 또는 우리 주민들이 살길 원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거나 그런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존재하고 있는 지역 서비스와 조직을 발견하거나 제공받고 또 제공하기 위해, 또는 우리 동네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혹은 활동가로 주민들에게 이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해주고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지역사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지역자원 또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모아지고 연결되어져 지역사회 연결망이 확대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자원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닐까요?

지역자원조사는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 터전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가능한 함께 실행하는 과정이자,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도리가 어디에 있고, 노후주택이 어느 곳에 많아 환경을 개선하거나 재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관계와 사람과 자원을 모아사회적, 경제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지역사회를 재구조화 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왜 지역자원조사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과 상상으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려 하는지 그 목표와 지향성을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기초편세우기

마을 자원조사 설계하기

04 자원조사 설계하기

20

계획(세우기)

자원조사 밑그림

마을 주민 및 대상자와의 사전 인터뷰, 관련 기초 자원들을 통해 선정된 마을 자원조사의 목적을 확인하고 자원조사를 실행하기 위한 활용가능한 자원을 확인 및 확보하였다면 자원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는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하기" 마지막 단계이자 전체 자원조사의 실행계획을 준비하는 자원조사 계획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앞 단계에서 조사한 우리가 가진 내부 활용가능한 인적, 예산, 시간 등의 자원들을 살핀 이후에 자원조사 목적에 따라 자원조사 방법과 단계를 설계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계된 것이 자원을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자원인지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단계별 자원조사 내용

1 단계에서는 자원조사의 목적을 확인하고 자원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파악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이번 자원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이유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주민의 욕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역자원조사의 자원을 공급하는 구청(지자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왜 하는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마을자원의 유형과 내용

자연적자원 (자연,생태)	역사적자원 (역사,문화)	경제적자원 (경제,활동)	사회적자원 (인적,공동체)
<p>산, 하천 호수, 저수지, 연못 공원, 습지, 숲, 수목 등 노거수 동식물 및 서식지 조망이 좋은 곳 산책로, 등산로 약수터 농경지 등</p>	<p>지역 향토사 마을사 지명과 유래 전설, 옛이야기 고택, 민속 등 유,무형 문화재 유래비, 상징물 역사인물 마을길, 골목 우물, 빨래터 박물관, 미술관 복지관련기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교육, 종교시설 오래된 가게</p>	<p>지역특산물 유희시설 향토기업, 공장 휴양지, 관광명소 시장, 장터 숙박시설 학습프로그램 주민참여프로그램 마을축제, 체험행사</p>	<p>마을 원주민 최고령자 공공기관 및 종사자 마을 이야기꾼 마을 활동가 문화예술인 다양한 능력자 전문가, 출향인 시민단체 주민조직 마을공동체 봉사단체 동호회</p>

참고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 우리 마을 자원조사 안내서 2019



괴곡동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545호 / 2013.7.17 지정

대전시 노거수 2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청원서 / 2011.8.9

대전시 노거수 2건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 청원서

1. 취지 글

대전시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이 97개소에 130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시에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혹은 지방 기념물로 지정된 수목은 2011년 7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표 1〉 전국 7대 도시 수목 중 문화재 지정 건수 2011.7 현재

No	도시명	천연기념물 건수	지방 기념물 건수	합 계
1	서울	13	3	16
2	부산	5	1	6
3	대구	1	2	3
4	인천	7	4	11
5	광주	0	3	3
6	대전	0	0	0
7	울산	3	0	3

대전시 관내에 이미 보호받고 있는 보호수가 130본이 넘는 '실태에서 위의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7대 도시 중 유일하게 대전시만이 노거수 천연기념물 혹은 지방 기념물로 지정할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수목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기념물 연구·조사·전시·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건립된 천연기념물센터가 있으나, 결국 대전시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노거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아까운 부분입니다.

보호수는 대부분 수령이 많고 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노거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생명문화재, 살아있는 조상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대부분 마을 입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보호수는 대개 100년 이상 된 수목을 대상으로 동나무, 구나무, 시나무 등으로 품격을 나누어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의 수종은 대략 느티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팽나무 등이 많으며 대전시의 보호수도 느티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원대와 대전충남생명의숲이 공동으로 대전시에 천연기념물 지정 검토를 청원하려는 2건의 보호수는 타지역의 천연기념물, 지방 기념물 지정의 근거 사례와 견주어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관내의 약 160종의 문화재 중에 천연기념물 느티나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 정도로 가지가 서로 뭉들거리며 뻗어있다.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어 예전에는 가지에 줄을 매 동네사람들이 그네도 앉다고 한다. 모호수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나무로 만든 정자는 아니지만, 새들마음의 느티나무를 감상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쾨두막 형태의 작은 쉼터가 만들어져 있다.

작년에 주변을 정비하여 바닥에 나무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5개의 나무마루를 배치하였고, 보호수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매년 칠월칠석날 동네사람들이 모여 거라제를 지내는데 동정이 주관하여 제를 지낸다고 한다. 제를 위한 준비는 칠월 초닷새날 마을 부녀회에서 하며, 제주는 동네의 어른이 한다. 해마다 나무 주위에서 대보름에 제를 지내어 풍년을 점했다고 한다.

- 참고 : 2004 대전의 노거수를 찾아서, 대전충남생명의숲
- 참고 : 2011. 9월호 월간도마토

이상과 같이 봉산동과 괴곡동의 느티나무 2건을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을 위한 검토를 청원합니다.

2011. 8. 9

대전문화원대, 대전충남생명의숲

과곡동 새뜸마을 느티나무(천연기념물 545호 : 2013.8.13 행사)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 단재 신채호(1880-19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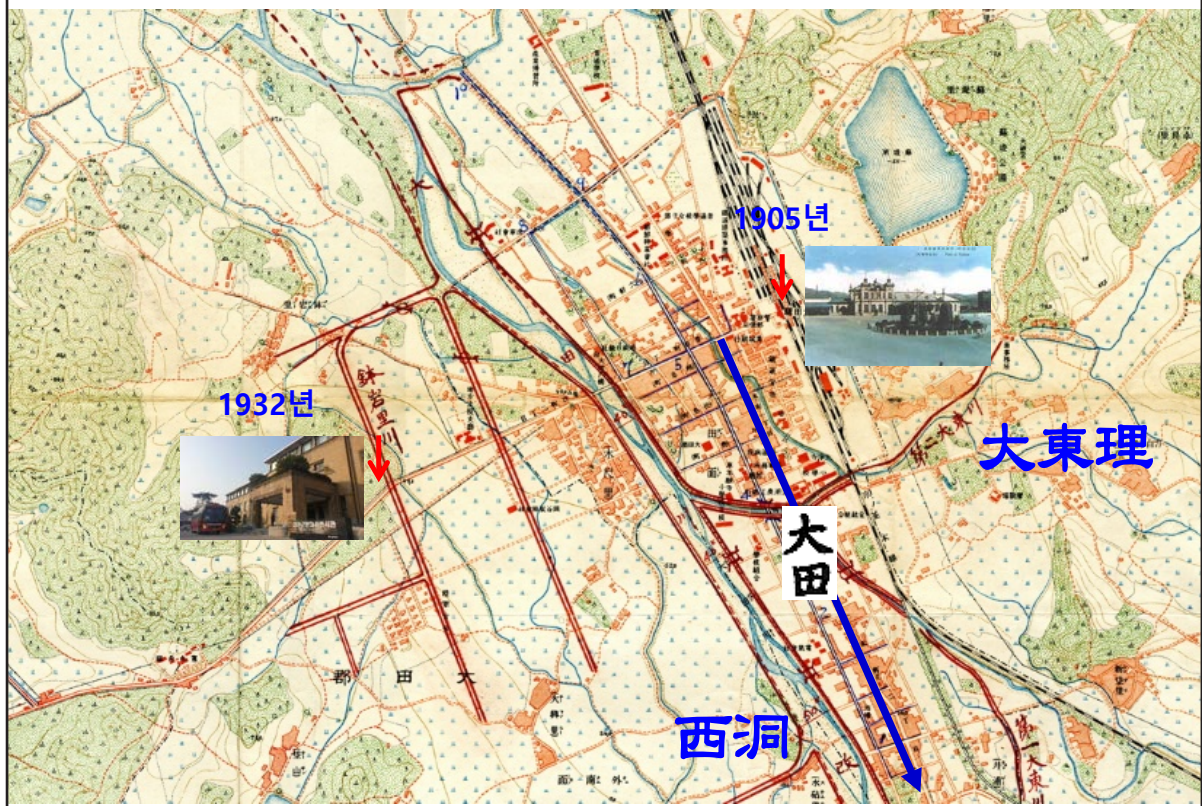
가장 오래된 기록 속 大田 : 동국여지승람(1481년) /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한밭

大田

上 柳浦川 在儒城縣東二十里源
經鎮本縣至儒城縣東爲省川
里十五里源合流爲懷德縣之甲川
已上三川太祖宅于龍山
太宗諱武于任實之時浴于此
大田川 縣在儒城
溫泉 縣在儒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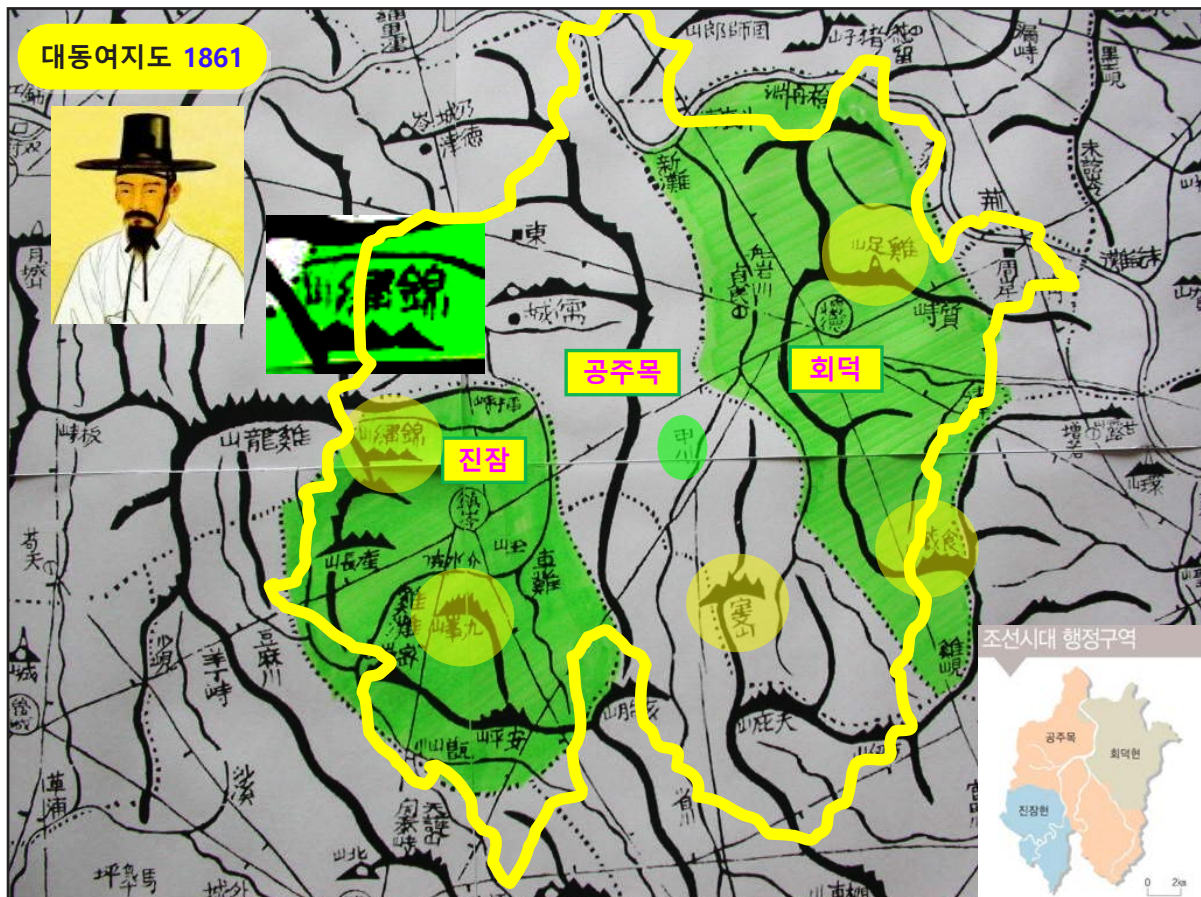
대전치수급하수공사원계획도(1918년)



대전시 산천 개념도



대동여지도 1861



넷물 동쪽은 회덕현이고, 서쪽은 유성촌과 진잠현이다. 동서 양쪽의 산이 남쪽으로 들판을 감싸 안으며 북쪽에 와서는 서로 교차되어 사방을 고리처럼 둘러 막았다. 들 가운데는 평평한 둔덕이 구불구불하게 뻗었고, 산기슭이 깨끗하고 빼어나다.

고개를 떠나 들판에 내려앉은 시냇가 마을은 이루 다 손가락을 꼽을 수 없다. 그러나 공주(대전)의 갑천을 첫째로, 전주의 울담을 둘째로, 청주의 작천을 셋째로, 선산의 갑천을 넷째로, 구례의 구만을 다섯째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 갑천은 들판이 아주 넓고 사방 산이 맑고 화려하다. 세 가닥 큰 넷물이 들 북판에서 합류하여 관개할 수가 있다.

영원히 대를 이어 살 만한 곳이다.

대전의 주요 산(50선)

- 계족산(동) : 대덕구 / 비수리(雨述), 백달산, 봉황산, 닭발산
- 식장산(동) : 동구 / 598m 가장 높은 산, 법장산, 식기산
- 보문산(남) : 중구 / 봉무산, 보물산
- 구봉산(남) : 서구 / 봉우리가 많은 산, 군신입조
- 금수봉(서) : 유성구 / 비단에 수는 놓은 듯, 국립공원(2004)
- 만인산(남) : 동구 / 만길이나 높고 깊은 산, 태봉산
- 금병산(북) : 유성구 / 비단 병풍을 두른 듯 길게 펼쳐진 산
- 장태산(남) : 서구 / 장태산휴양림, 형제봉
- 천비산, 떡갈봉, 강바위산, 오도산, 용두산, 정기봉, 국사봉, 망덕봉, 독수리봉, 꾀꼬리봉, 고봉산, 응봉산, 성재산, 개머리산, 성치산, 우술산, 당산, 해태산, 안평산, 조종봉, 명막산, 해철이산, 침산, 장안봉, 효자봉, 쟁기봉, 도솔산, 둔지산, 백운봉, 도덕봉, 갑하산, 신선봉, 우산봉, 흔적골산, 적오산, 화봉산, 우성이산, 오봉산, 산장산, 소태봉, 옥녀봉

대전의 주요 하천(116곳)

대전은 하천의 도시(116곳) : 하천율이 매우 높다.

■ 국가 하천 :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 4곳

■ 지방 하천 : 주원천, 두계천, 매노천, 진잠천, 유성천, 반석천, 탄동천, 관평천, 대사천, 과례천, 오정천, 법동천, 정생천, 용호천, 성전천, 화산천 등 26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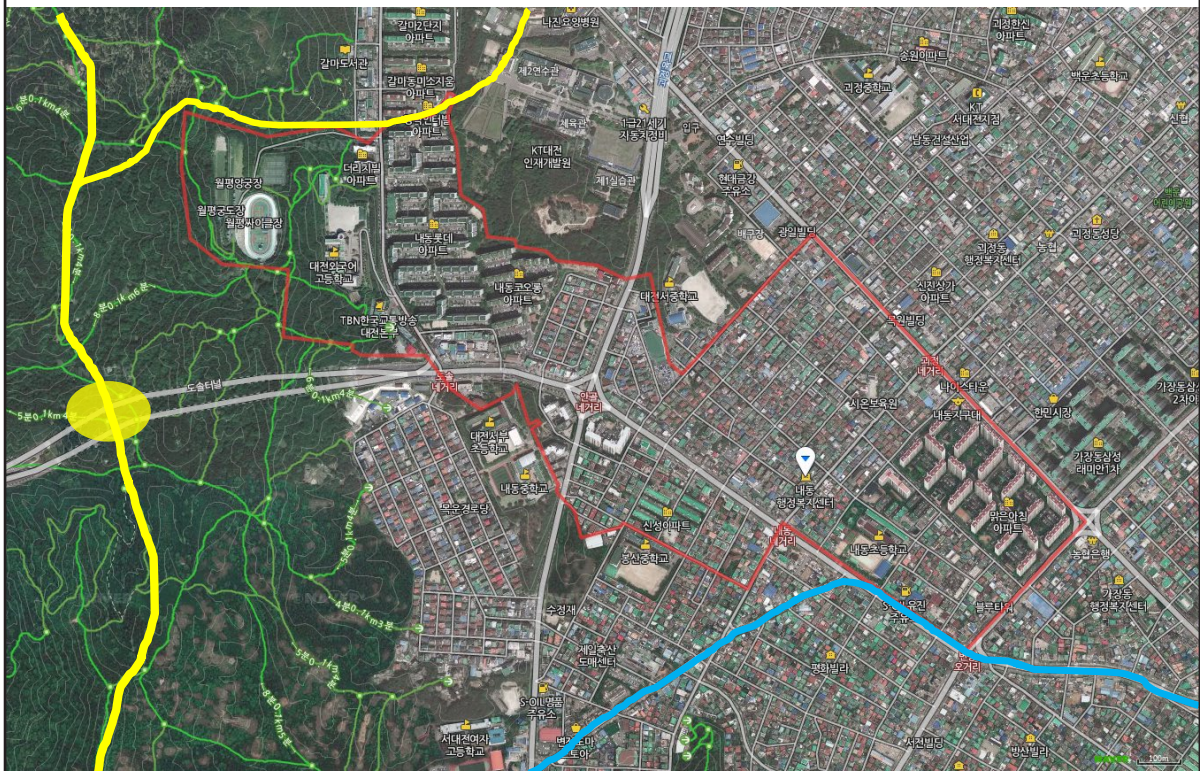
■ 소하천 : 금곡천, 세동천, 산디천, 알미천 등 87곳

내 동

안내 마을동

산 안쪽에 있는 안골 마을

내동 일대 산줄기 물줄기 지도



내동 일대 지도 1990년 수정



선사시대를 꽃 피운 대전



괴정동유적의 현재 모습(2007)



죽림박물관이 세운 괴정동유적 비석 : 1970년대 초반



괴정동유적의 현재 모습(2017)



내동마을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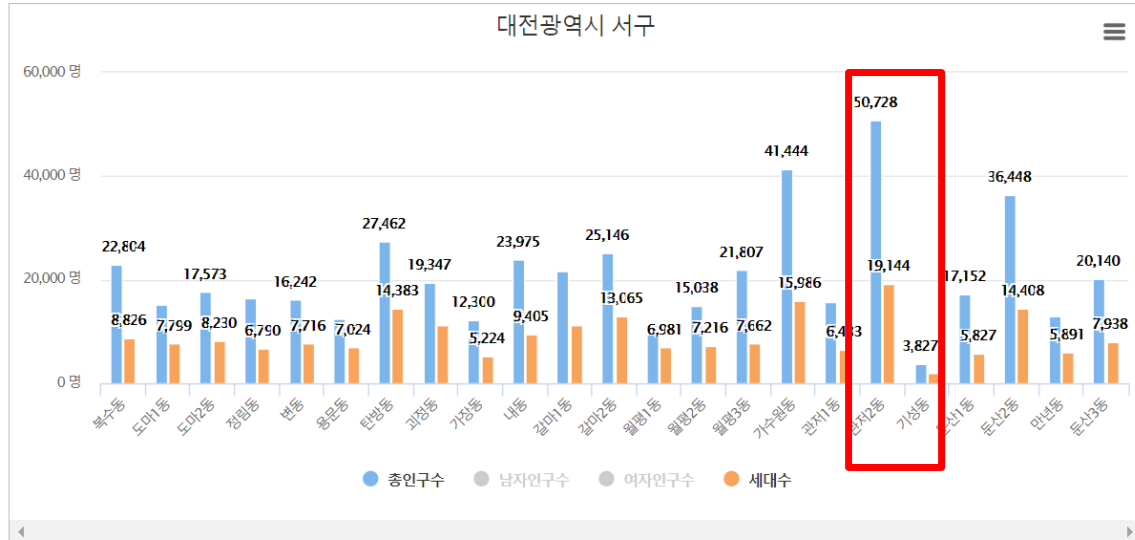
유용한 정보 검색 사이트

지역별 지자체 **문화관광** 홈페이지
 지역별 **문화원** 홈페이지
 대전시립박물관 : <https://www.daejeon.go.kr/his/index.do>
 대전관광 : www.daejeon.go.kr
 대전찰각 : <http://photo.daejeon.go.kr/>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 : <http://www.djrc.kr/>
 대전세종연구원 : <https://www.dsi.re.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 <https://jumin.mois.go.kr/index.jsp>
 국가문화유산포털 :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국립중앙도서관 : <https://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 <http://www.history.go.kr/>
 한국의지식콘텐츠 : <http://www.krpia.c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 <https://nl.go.kr/newspaper/>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Keyword.nhn>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 <http://www.atlaskorea.org>
 규장각 지리지 정보 : <http://kyujanggak.snu.ac.kr/geo/main/main.jsp>
 국토정보플랫폼 : <http://map.ngii.go.kr/mn/mainPage.do>
 한국관광공사 : www.visitkorea.or.kr/

대전시 서구 인구 현황(210226)

주인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행정구역별)

※ 범례를 클릭하면 필요한 항목만 표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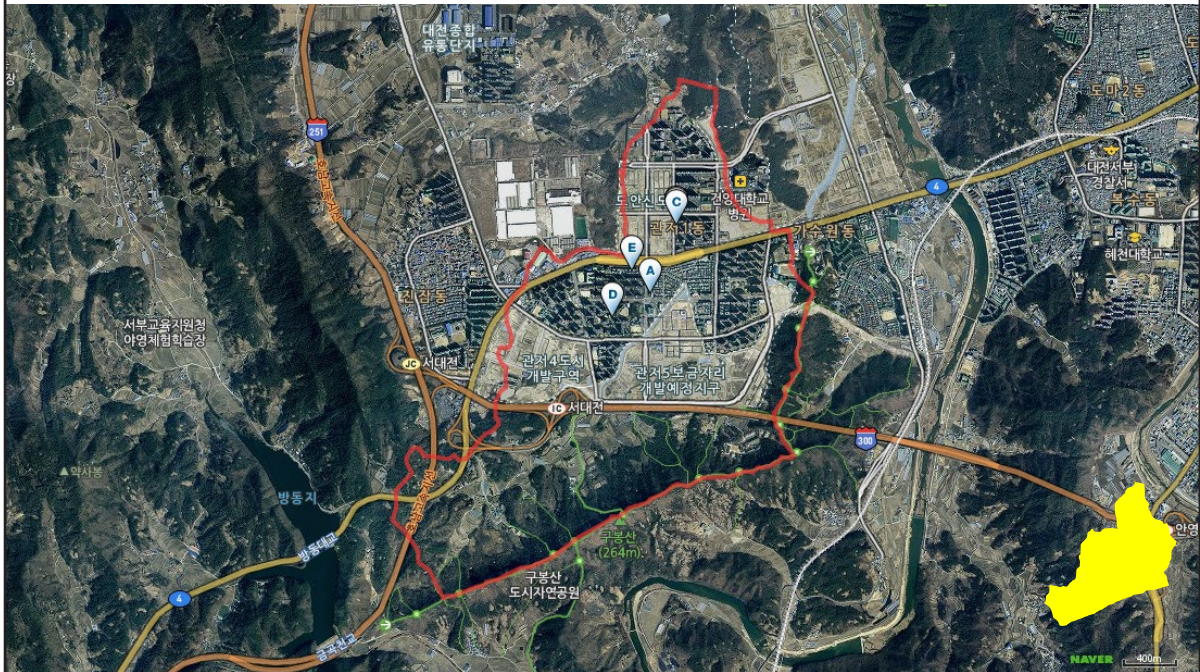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 <https://jumin.mois.go.kr/index.jsp>

關 雎 洞

빛장관 물수리저 마을동

진잠현의 옛 이름인 **기성관**(杞城館) 아래쪽이 되므로 관하촌(館下村) **관저리**(館底里)라 부르던 곳.

관저동 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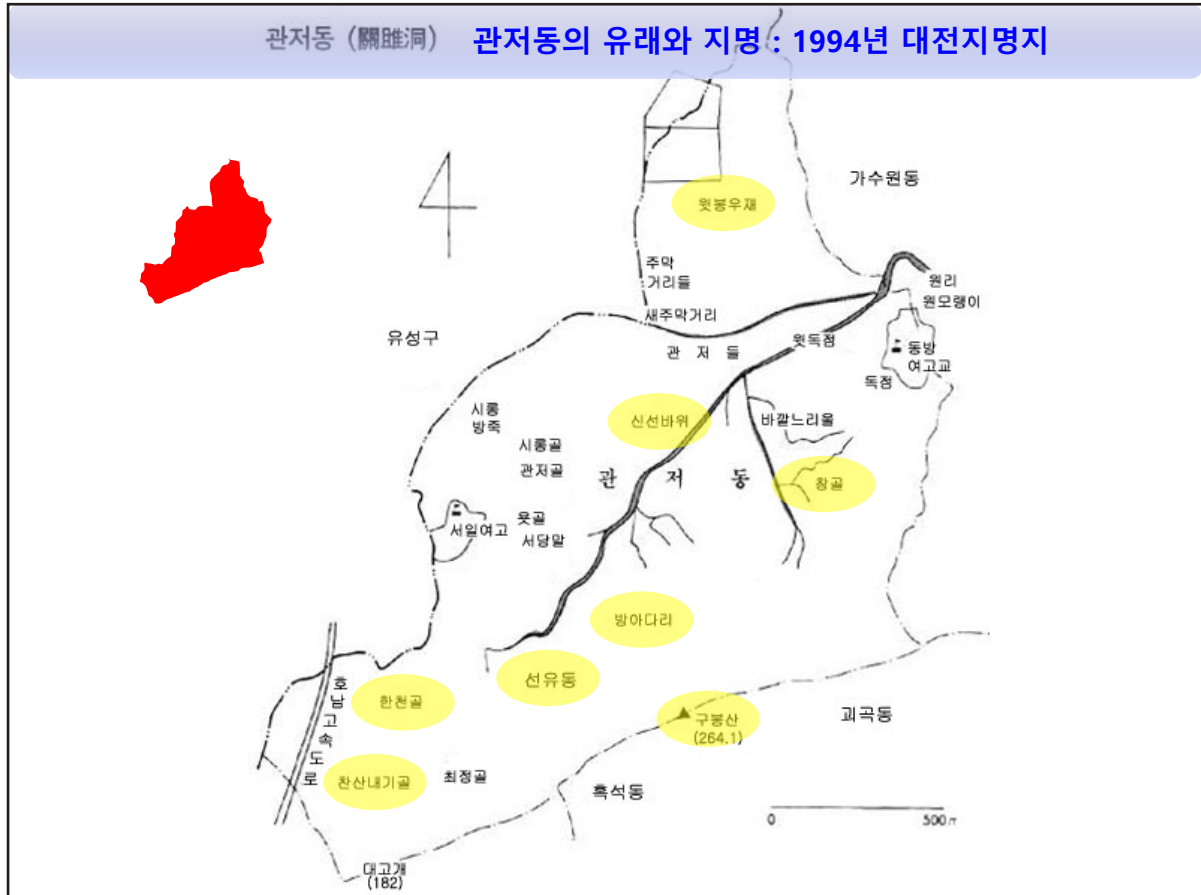


관저동 일대 지도 1911



국토정보플랫폼 : <http://map.ngii.go.kr/mn/mainPage.do>

관저동 (關雎洞) 관저동의 유래와 지명 : 1994년 대전지명지



관저동의 유래와 지명 : 1994년 대전지명지

관저동(關雎洞)

〔위치〕구봉산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은 서구 가수원동, 서쪽은 유성구 원내동, 남쪽은 서구 봉곡동과 괴곡동, 북쪽은 서구 도안동과 인접하고 있다.

〔연혁〕관저동은 백제(百濟)때 진현현(眞峴縣)에 속했었다. 신라(新羅) 때는 진령현(鎭嶺縣)에 속했으며 고려(高麗) 때는 기성부(杞城府)에 속하고 뒤에 공주부에 속했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진잠현의 지역으로서 진잠현의 옛 이름인 기성관(杞城館) 아래쪽이 되므로 관하촌(館下村) 관저리(館底里)라 부르던 곳이며, 조선시대 말기 고종(高宗) 32년(1895)에는 진잠군 동면(鎭岑郡 東面)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 구역조정으로 노곡리(老谷里)와 축암리(丑岩里)를 병합하여 다시 관저리라 하여 대전군 기성면(大田郡 杞城面)에 편입되었다. 1935년 11월 1일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됨에 따라 대덕군에 속하였고, 1983년 대전시 확장에 따라 대전시 중구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1월 1일 대전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서구에 속하게 되었다. 현재 행정동은 가수원동이다.

<지명>

관저교(關雎橋)(다리)

〔위치〕가수원동에서 관저동으로 건너가는 부대앞 국도에 놓인 다리이다.

〔특이사항〕총 연장은 20m, 교폭은 10m에서 18.5m로 확장되었다. 1979년 7월 1일에 착공하여 동년 9월 18일에 완공을 보았으며, 1988년 6월 1일에 개수를 하여 동년 10월 9일에 재완공되었다.

관하촌(館下村)(마을)

〔위치〕신선봉 북쪽에 있는 50여호의 마을이다.

〔유래〕옛날 기성관(杞城館) 아래에 있던 마을이라 해서 관하촌 또는 관저리(館底里)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러던 관저리가 후에 관저리(關雎里)로 바뀐 것이다.

구봉정(九峰亭)(정자)

〔위치〕구봉산의 신선암에 1993년 봄에 서구청에서 구봉산명에 맞춘다고 구각(九角)으로 정자를 건립하였다.

〔특이사항〕이 정자에 올라서면 서구를 조망할 수 있고, 멀리 계룡산, 금수산, 도덕봉, 갑하산, 우산봉 등도 볼 수 있다.

관저동 느리울 마을의 유래비



창원시 마을흔적보존 사업



대전에도 더 멋진 마을 박물관을 세우자



끝. 감사합니다.

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 대표, (사)대전문화유산울림 대표
안여중 010-2405-4728
madong01@hanmail.net



구술기록에 대한 이해

이은하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구술기록에 대한 이해

사(私)적 역사(史)의 기록과 공유

1. 구술생애사란

구술생애사는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이를 글로 정리한다는 점에서 기자들의 인터뷰 기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화자 대부분이 뉴스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들이고, 작업을 장기적으로 이어간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는 구술을 기록하고 채집하는 것 자체를 구술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¹⁾

구술사가 주목받게 된 데는 기존의 역사 서술이 중앙, 권력, 기득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탓이 크다. 전통적인 역사 연구방법과 분석을 비판하며 새로운 역사쓰기 방법으로 등장한 게 구술사인 것이다.²⁾ 따라서 구술생애사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회 속 약자들의 말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대상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주변 지인을 비롯해 모두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들이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엿어내야 한다. 화자가 살았던 시대의 굵직한 사건을 기록한 연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다. 구술생애사의 화자들은 대부분 내가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이들의 가난은 사회 구조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상과 연결될 때 구술생애사는 단순한 개인사에 그치지 않게 된다.

2. 구술생애사의 의미

(1) 학계에게 무엇인가?

근대 학문은 기록된 문헌자료를 최고의 사료로 평가하는 실증주의적 사고방식을 토대로 발전해왔다. 텍스트 중심의 문헌고증 및 실증주의적인 접근이 모든 학문의 기초였던 것이다. 하지만 문헌이나 기록된 자료에 의거해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은 관념과 형식에 치우쳐 생생한 현실을 외면하고 텍스트에 대한 연구만을 인정하는 편협하고 일면적인 관점, 텍스트에서 배제되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없는 계층은 철저히 소외되어 버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문헌자료의 이러한 성격과 한계 탓에 그동안 가까운 이웃의 일상적 삶의 역사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구술생애사 연구 덕분에 기록 자료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생생한 인간 삶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2) 화자에게 무엇인가?

구술생애사의 화자는 약자다.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이제 그만 나와!”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실업자가 되고 마는 현실을 알아서다. 살살 눈치를 보는 모습은 생존을 위해 택한 전략이다. 구술사가 화자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말할 기회를 준다는 데 있다. 고통스런 경험을 말한다는 건 그 일을 만든 권력 관계를 들여다본다는 의미다. 성찰을 이루어질 수 있다.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청자/필자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새로운 존재를 만날 때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든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사회 문화적 편견과 규정과 관련 있다. 따라서 다른 이(화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청자 즉 필자)의 인식이 확장될 수 있다. 다른 이(화자)의 경험을 통해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도 있다.

1) 윤택림·함한희, <<새로운 역사 쓰기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2006. P.46참조.

2) 하위 계층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동원되는 구술 자료는 누군가가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문 자기록물을 말한다. Paul Richard Thompson, 윤택림 옮김, <<구술사, 과거의 목소리>>, 아르케 2010.

(4)사회적으로 무엇인가

들려지지 않는 목소리, 기록되지 않는 역사를 남기는 게 구술생애사의 목적과 의미다. 더군다나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20세기는 날마다 그 자취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역사 없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역사는 이대로 간다면 공백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시대의 증인들이 사라지기 전에 구술을 통해 지난 세월의 삶의 역사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화자의 인생과 사회사, 역사적 사건을 연결하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억은 그 사회의 구조와 문화(언어적 특징, 표현의 코드, 문화적 레퍼토리 등)를 읽는 것.

3.구술 생애사 인터뷰

(1)누구를 인터뷰할 것인가

-구술생애사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인터뷰이를 선정한다

(2)질문 목록 만들기

-질문은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하고 수정한다

-질문지를 인터뷰이에게 보낼 때 신중해야 한다

-인터뷰를 할 때 질문지를 들춰보며 하지 말아야 한다

※최대한 보지 않고 대화에 집중

(3)사전 준비는 왜 하는가?

①첫인터뷰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화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

③화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4) 사전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고향, 이주경로, 현 거주지

-노동 관련 정보

-사회적 사건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사건을 겪은 나이를 파악해서 후에 연표 작성. 연표는 인터뷰 후마다 정리

-화자에 대한 기본 정보 통해 계층 성별에 대한 시대상 파악하기

(3)인터뷰 하기

①화자의 마음 사기

※철저한 준비로 화자를 감동시켜야 한다. 화자가 인터뷰를 각별한 기회로 느끼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록물에 대해 화자가 예민해질 수 있다. 그 마음을 헤아려 함께 작업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필자의 개인 작업인 동시에 화자와 청자의 공동작업으로 여겨지게 하는 각별한 기회로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야 한다.

-성실한 준비는 화자를 감동시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만든다.

②화자에게 말리지 않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작업주도권을 밀당해야 한다. 화자가 방향과 범주를 관리해야 한다.

(5) 인터뷰 하기

①인터뷰할 때 유의해야 할 점

- 장소 섭외(화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곳)

-화자가 인터뷰 외에 다른 것을 신경쓰지 않도록 셋팅

※점심식사, 다른 가족의 유무, 화자가 아닌 제3의 인물

-첫 인터뷰는 화자의 욕구와 흐름을 자르지 않고 듣기

※청자가 궁금한 점은 2차 인터뷰부터

-전체 구성을 위한 질문은 삼갈 것

※청자는 질문을 하지는 않지만 질문내용은 준비해 와야 한다.

-녹취록 정리는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정황의 기억을 살려 화자의 표정, 분위기 등까지 서술. (자세하게 기술)

-1차 인터뷰를 하고 난 뒤 2차 인터뷰는 시간 간격이 필요(2주 정도)

※자기 상처를 드러낸 것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 그 시간동안 청자는 녹취록을 풀고 질문을 정리하며 각종 자료를 업데이트 함

-방향이 어디로 가고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청자가 파악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함

※화자가 할 일: 기억에 대한 재해석, 놓친 기억과 새로운 기억 정리

-시간 간격은 상황에 맞게 함(뒀넨 상처와 해석 돌아보기 시간이 모두 다름)

※청자가 할 일: 기억의 확장과 재해석 위한 준비, 작업의 핵심 축 잡아나가기, 질문과 의제들 정리, 개인 경험의 사회적 의미 해석을 위한 준비

-청자는 화자에 대해 상처를 돌아보고 해석하는 화자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돌봐야 함

②인터뷰기술

-질문과 답이 아닌 대화

-정답을 유도하지 말아라

-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드러나도록(페르소나: 가면을 쓴 인격)

※누구와의 관계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났나

-다양하게 변주하는 질문

-진실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사실들

※모두가 다 다르게 기억. 기억은 재구성되는 것이다

-사실에 연관된 처지와 맥락

-지나가듯이 하는 말 중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말 이외의 것에도 주목

-화자의 주요 현장에 청자도 함께 해라.

-최대한 화자에게 밀착. 일상을 함께 하며 내면을 읽고, 그것을 통해 세상의 진실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변 인물과 화자 사이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관찰 소재다.

-사건의 끝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 뒷이야기를 확인해라.

4. 녹취문 만들기

녹취문을 작성하는 일은 상당한 집중력과 인내를 요구한다. 특히 녹취문을 작성할 때 자신이 면담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면서도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 나오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녹취문을 작성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①자주 나타나는 녹취오류

-고유명사 오기 사례

·이승녕>>이승룡
·10.26>>12.6
·포천>>부천
·한일회관>>한일회관

이런 경우는 녹취자가 구술자의 발언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 모르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 밖의 오기 사례
·자주>>자조
·건설하고>>설치하고
·즈그 엄마 때문에>> 지금 그 말 때문에

②오류를 피하는 방법

분명하게 알아듣지 못한 말(특히 고유명사)은 현장에서 바로 물어봐서 정확하게 확인해 둔다. 만약 구술자의 말 흐름을 깨기 어려우면 면담 중에 적어줬다가 쉬는 시간이나 면담 직후에 구술자에게 바로 확인한다. 이후 녹취과정에서 불분명할 경우네는 구술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구술자가 말하는 내용의 배경이나 맥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알아듣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구술자의 말을 끊고서라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10



마을기록사례 - 증평 -

신유림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10



증평기록가

마을 · 단체 기록관

증평
기록관

수평적 네트워크

주민주도의 아카이빙

1



실험하는 기록관

June 15th 2021

증평군 기록연구사 신유림

2

발표 순서

1. 증평기록관 소개
2. 새로운 도전과 실험,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3. 주민공유공간, 증평기록관 라키비움 조성
그리고 비대면 콘텐츠 실험 | 디지털 아카이브와 <주간 증평>
4. 증평의 지금을 기록합니다
5. 증평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3

증평기록관



✓ 소개

- 2010. 기록연구사 배치
- 2018. 증평 아카이빙 예산 20억 확보
- 2019. 기록연구사 추가 배치(총 2인)
증평기록관 조성사업 예산 11억 확보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0. **증평기록관 라키비움 조성사업** 추진
증평기록관 개관(8. 30.)
증평기록관 개관 전시 “증평, 첫 번째 기억” 개막(9. 4.)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 추진(~ 2023년까지)
- 2021. 제1기 증평기록가 11명 양성

4

새로운 도전과 실험

증평아카이빙 프로젝트

대개의 기초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증평군도 2010년 기록연구사를 배치하며
기록관리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인 기록관의 한계가 지속되었고,
기록관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하는 것과
지역기록의 부재 문제가 맞물려
대두되면서, 증평기록관은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행정기록을 관리하던 기능을 넘어
증평 아카이빙을 통해 증평기록을
만들어내고, 레코드센터가 아닌
지역아카이브형 기록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5



증평아카이빙 프로젝트

주민주도 아카이빙과 지속가능한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증평사람으로
아카이빙 활동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성된 활동가는 자신의 마을, 단체
아카이빙 활동이나 지역 아카이빙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키워갈 것입니다.

증평기록가 양성

- 증평기록가양성 프로그램
- 증평기록단 운영
- 초·중·고등학생 아카이빙 활동 프로그램



마을·단체·지역 아카이빙 활동

- 개인·가족 아카이빙 활동
- 마을·단체 아카이빙 활동
- 증평 지역 기록 수집·발굴
- 증평군개천모듬 아카이빙
- 증평 경관아카이빙



온·오프라인 공간 마련

- ○○마을 기록관
- ○○단체 기록관
- 증평 기록관
- 온라인 플랫폼으로서의 디지털 증평기록관 구축



증평역사와 기록문화 만들기

- 아카이빙 활동 결과로 수집·채록·생산된 기록
- 기록집·개인·가족 기록집·마을 기록집·단체 기록집·학급 기록집
- 역사문화탐방길
- 전시회 개최



6

증평아카이빙 프로젝트

관이 주도해온 기존의 기록 조사나 수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하여 증평기록관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1기 '증평기록가' 11명을 시작으로 주민주도의 아카이빙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증평의 지금을 사진, 영상, VR, 영화, 그림 등의 다채로운 기록으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공공과 시민기록물이 균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고, 아카이빙 활동을 하는 주민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습니다.



7



주민 공유 공간

증평기록관, 라키비움 조성

그리고 개관기념전시

증평기록관은 증평주민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증평주민이라면 누구나 증평기록관에 와서 증평의 이야기를 하고, 기억과 기록을 알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은 행정기록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지만, 증평기록관은 행정기록과 증평주민의 기록 모두를 모아 소중한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문화기관이 되려고 합니다.



개관기념전시

증평기록관은 증평사람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기억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들을 영원히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 영상에
담았습니다.

열다섯 폭지의 증평이야기가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증평기록관 라키비움 조성

증평기록관의 새로운 공간을
준비하면서 전통적 행정기록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키비움, 즉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의 융합적
공간개념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9

비대면 콘텐츠 실험

디지털 증평기록관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증평기록관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대면 기록콘텐츠뿐만
아니라 비대면 기록콘텐츠까지
능동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열다섯 증평사람들의 기억과 기록
이야기, 증평기록관 준비를 위한
활동을 담은 다양한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 모아 놓았습니다.



10

비대면 콘텐츠 실험

주간 증평

개관기념전시 기간 동안 발행된 <주간 증평>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구성된 비대면 기록콘텐츠이자 큐레이션 웹진입니다. 전시개막 2주 전의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총 10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의 기록콘텐츠를 주민들께 공개했습니다.



11

증평의 지금을 기록합니다

01

자주적 아카이빙

증평 전문가인 증평사람들이 그들의 시선으로 직접 나서서 증평을 아카이빙합니다.

02

뜻뜻한 아카이빙

기록을 남기는 증평사람은 뜻뜻하며, 남겨지는 기록으로 증평사람들은 다같이 잘 살고 싶은 가치를 실현합니다.

03

지속가능한 아카이빙

느리더라도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아카이빙이 되도록 증평사람의 아카이빙 역할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04

증평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아카이빙

증평기록관과 아카이빙 전문가가 증평사람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합니다.

12



증평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증평기록관은 기록만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기록에 얽힌
증평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를 함께 모아 더 많은 기록의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 귀한 기록을 통해 증평사람들이 스스로 자부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복지기관이 되고자 합니다.

마을별, 단체별 기록관

증평은 마을마다 단체마다 작은 기록관을
만들고,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과
마을, 단체를 기록하여 작은 기록관마다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증평 디지털 아카이브

증평의 작은 기록관들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스스로 기록을 모으고
관리하게 됩니다. 수평적으로
네트워킹된 작은 기록관들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또 하나의 크고 위대한 '증평
아카이브'가 될 것입니다.

증평 아카이브

기록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빛을 발합니다. 기록자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지방자치도
완성됩니다. 증평기록은 증평에
있으면서 증평사람들이 원할 때 활용될
것입니다.

13



실험하는 기록관

증평의 지금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여러 실험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관의
경험으로 남고, 보다 발전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도전과 실험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결국에는 기록관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4



워크숍

- 구술기록에 대한 이해 -

이은하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마을기록물 수집과 생산 I

기록관리 그리고
공동체(마을)아카이브

송영랑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1강. 마을 기록물 수집과 생산 I

기록관리 그리고 공동체(마을)아카이브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모두의책



세계상을 닮은 기록

기록이란?

기록이란?

■ 기록의 정의

-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대상으로서, 일정한 내용 · 구조 · 맥락을 가지는 특성 존재(기록학 용어사전)
- 조직이나 개인이 법적 의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증거나 자산으로 생산, 접수, 유지하는 정보(ISO15489)
- ①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적 또는 공시적 속성을 가진 필사본이나 인쇄본, ②매체에 고정되어 있고, 내용·맥락·구조를 가지며, 인간 기억의 확장으로서 또는 설명책임의무(accountability)를 다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나 정보, ③개인이나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입수되어 해당 활동에 대한 미래 참조용 증거로서 보존되는 고정된 형태의 데이터나 정보(SAA 용어사전)

■ 기록과 도서 차이를 확인하려면?

- 의도적으로 생산했는가? '내용 · 구조 · 맥락'이 있는가? 독자적 체계가 필요한가?

공동체 기록이란? – 기록의 속성(ISO15489 기준), 기록이라면 ○ ○ 이 있어야 한다

기록의 4대 속성

- **진본성**
 - a) 기록이 표방하는바 그대로의 기록인지, b) 그것을 생산했거나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생산했거나 보냈는지, c) 기록에 명시된 시점에 생산되었거나 보내졌는지를 입증한 속성
- **신뢰성**
 - 입증하고자 하는 업무나 활동, 사실 등의 완전하고 정확한 표현물로 증거력을 충분히 지니는지에 대한 속성(생산해야 하는 생산자가, 생산해야 하는 형태로, 생산해야 하는 시기에 했는지 확인)
- **무결성**
 - 기록이 완전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속성으로 이에 대한 증명이 중요
- **이용가능성**
 -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검색할 수 있으며, 보여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입증한 속성

공동체(마을) 기록이란?

공동체 기록

- **공동체기록의 정의**
 - 국가나 시장에서의 관점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산된 기록을 말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서 벗어나, 아래로 부터의 기록관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공동체 기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 **공동체기록의 특징**
 - 공동체기록은 시민단체 및 개인이 생산한 기록을 말함. 주로 시민조직에 의해 생산된 기록이 많으며, 프로젝트 성격의 기록이 많음
 - 시청각, 팸플렛, 포스터 등의 다양한 유형을 기록을 포괄하고 있음
 - 이메일 및 웹사이트 기록이 많이 생산됨
 - 시민참여 기록이 증가하고 있음

공동체(마을) 기록이란?

■ 왜 공동체기록인가?

- **시민사회, 개인 그리고 공동체 기억 전승**
 - 공공에서 운영하는 아카이브에서는 공동체 기록은 협치기관의 공식 결재 문서 외에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공동체 활동과 당사자들의 기록화 하지 않으면 이후 그들의 활동과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전승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시민조직 스스로가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들이 생산한 기록이야말로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인식이 확산
 - 최근 공공기관이 시민과 함께 시민기록을 생산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짐
- ⇒ 서울기록원의 '서울시민기록' 수집



공동체(마을) 기록이란?

■ 공동체기록의 종류

- 공동체기록은 일지, 사진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의 개별 문건들, 각종 신문, 잡지 자료들, 영상, 이미지, 구술 기록, 공공기록 등 다양한 종류의 활동 기록들이 존재함
- 공동체기록으로는 공동체활동과 관련된 공동체 개인의 구술기록, 사진, 문서 등의 기록을 포괄함

구분	
종이문서류	일지, 일기
	메모
	노트 등
도서·간행물류	
사진·필름류	인화사진, 필름
전자기록 [전자적으로 생산된 + 전자화시킨]	결재문서, 기획서 등
	디지털 이미지, 영상
	이메일, 웹사이트 기록, 구술파일
자기매체류	음성테이프
광매체류	CD·DVD
박물류	박물

6

공동체(마을) 기록이란?

■ 아카이브 (Archive) 란?

역사적 가치 혹은 장기 보존의 가치를 가진 기록이나 문서들의 컬렉션

= '보존 기록'

* 보존 기록관 : 위와 같은 기록이나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나 시설(공간과 시스템, 지위를 포괄하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개념)

■ 보존해야 할 기록

개인이나 단체가 생존하고 있던 기간 동안 쌓아 온 1차적인 자료물을 보관하며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기록물에는 문화적, 역사적, 입증 가능한 가치를 지닌 분야에서 영구적이거나 장기간 보존된 기록물로 선택된 기록물을 포함한다.

⇒ 보존할 기록과 폐기할 기록은 기관 목적에 맞는 고유한 기준에 의해 '선별' 되어야 함

* 위와 같은 기록물을 보관하는 아카이브는 도서관과는 구별되지만, 도서관 건물 안에서도 이러한 기록물을 취급하기도 한다.

기록관리와 아키비스트

결국 실천이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중 적극성을 가지고 해석하는일

- 기록관리, 지원업무 등은 루틴해지기 쉬운 업무이며, 비가시적 업무임
- 이런환경에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는것임. 그것이 "실천" 임
- 실천의 의미는 각각 다를 수 있음. 실천을 어떤 의미로 상정하고 갈 것인가는 개인이 생각해봐야 함

실천적 아키비스트

- 민간에서는 척박한 환경에서의 실천적 아키비스트를 인정해줌

공공에서의 실천

- 공공에서의 실천은 비가시적이며 인정받기가 어려움
- 목표와 신념을 가지고 자신만의 한발짝을 조금씩 나아가는것이 중요함

중립성

- 짐머슨은 "아키비스트는 내부고발자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선택이다" 라고 말함. 그러나 이것은 신념의 문제임
- 중립성, 객관성은 개인의 중립성의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판단임
-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

8

공동체 아카이브: 연대기적 아키비즘의 추이

1930~60년대 중반

- 보존기록의 본질적 속성, 생산질서를 반영한 의미부여, 보편적 가치기준을 담은 범주화 설정 등 근대 기록학 정립
- 1934년 미국국가기록보존소 설립. 역사학의 부수 학문에서 벗어나 정부기록에 대한 책임있는 전문직 역할 대두
- 1909년 미국역사학회 산하 아키비스트협회에서 전문직으로 이해관계의 분화 : 1936년 SAA 출범
- 양차대전 이후 폭증한 정부기록의 효과적 관리에 중점

1960년대 중반~90년대 초

- 60년대 신좌파운동의 영향 받음
- 1970년 SAA 연례회의에 초청된 Zinn은 모든 정부문서의 공개 캠페인과 보통 사람들의 기록을 모아 역사 새롭게 쓰기를 제안
-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보다 완전한 기록 생산을 목표로, 평가와 수집 전문직으로서의 능동적 주체에 고무
-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행 - 아카이브가 사회에 대한 기록을 포괄적으로 보유해야 할 책임 실천

90년대 중반~현재

-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 받음
- 사회구조적 질서의 일부로 제도화된 보존기록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를 통해 모순을 타개하려는 실천행동이 배제된 소수를 살피고자 하는 사상과 연계
- 다원화 : 담론의 독점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배제된 소수에 대한 대안적 기록화 지향, 다양한 소서사의 공존
- 권력으로서의 아카이브의 (재)균형 작업, 적극적으로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정치적 의제에 직접적 활동, 활동가들과 참여 아카이빙 구현

9

공동체 아카이브

기록학 영역에서의 사회정의

- 사회정의에 대한 기록학적 이해는 수십년 간 벌어진 논쟁과 토론의 산물
- 사회정의는 항상 진행과정이며, 절대로 완전하게 성취될 수 없음
- 기록학 현장 및 교육에서 사회정의 관점을 결합하는데 정확한 의미와 사회에서 사회정의가 내포하는 의미의 혼란
- 기록학 영역에서 사회정의의 실현*
 1. 사회에서 간과되고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분야의 기록화
 2. 기록학적 개념의 확장과 재해석 : 지배권력을 옹호하는 아카이브 기본 원칙의 재검토
 3. 공동체 아카이빙 : 아카이브의 실제와 이론의 경계 확장
 4. 기록학적 교육과 훈련의 제고 : 아카이브 다원주의
 5. 인권침해의 기록화

* 출처 : Ricardo L. Punzalan and Michelle Caswell, Critical Directions for Archival Approaches to Social Justice, Library Quarterly: Information, Community, Policy, vol. 86, no. 1, pp. 25-42., 2016

10

공동체 아카이브

표준

다양화(민간)

- 표준과 다양화와 공존하는 시기
- 민간은 전자기록이 많이 발생하나, 표준적용이 어려우며, 포괄적이며 혼란스러움
- 기록이라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 기록영역으로 확장됨

공공

- SNS 기록 등 기관관련 SNS라는 명확한 범위
- 대통령의 SNS → 기록화 방안논의(미국)
- 업무를 위한 기록생산

민간

- SNS기록의 포괄범위가 넓음
- 일상적인게 중요하다는 가치기준이 다름
- 일상적인 기록이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생산한 기록으로, 물리적 기록으로 찾기 어려움

11

공동체 아카이브

Archival Activism

- 기록학의 전문성을 사회정의의 실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 기록전문직 임무에 대한 활동적이고 실천주의적 접근방 식을 통해 사회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구태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A. Flinn)
- 아카이브와 나아가 더 넓은 사회에서 좀더 포괄적이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정과 차별에 도전하기 위해 대응하는 기록학적 실무(D. Wakimoto)

과거 공동체 아카이브 관점

- 주류 기록관이 공동체 기록을 일괄적으로 수집
- 선반위의 먼지 쌓인 기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음
- 공동체에 대한 평가 진행

현재의 공동체 아카이브 관점

- 공동체가 자신의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전환(참여기술, 참여평가)
- 인터넷 통제, 두텁게 쓰기(2000년 등장) WEB 2.0 등장
- 공동체의 언어로서 '시선'에 집중하고, 주제에 대한 고민 시작
- 아키비스트의 고유의 업무가 도와주는 역할로 전환
- 공동체 스스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에 대한 평가

12

공동체 아카이브

미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 주류 문화기관이 보호하는 기록으로 생각함
-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류 문화기관이 대신 관리하겠다는 사고
-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향이 강함
- 관리가 잘 될수 있도록 하는 미국식 실용적 사고관의 반영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 공동체가 직접 보존하는 경향이 많음
- 주류 문화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통제에 대한 지분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 공동체가 기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본인들과 연계성이 강한 기관을 선택해서 연계를 진행함

- 각 나라의 역사, 배경 국민성, 등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방식에 작용함
- 기록관리는 맥락이 중요하며, 지금까지 기록에 중심을 두고 맥락을 이해함(기록맥락을 위한 업무분석)
- 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라포형성 즉, 공동체와 동화되어 무엇을 중시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

13

공동체 아카이브

주도적 업무에서 조망하는 업무로의 변화

- 공동체아카이브는 지금까지 아키비스트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했던 선별, 평가 등을 아키비스트가 주도하지 않고 조망하는 일로 변화됨
- 공동체는 소속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키비스트가 제3자라고 인식함
- 공동체는 아키비스트가 무엇을 말했을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움
- 공동체 아카이브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아야 함

- 밀양 송전탑 아카이빙: 기록의 부재, 장기성 부족,
- 내부갈등(젊은층, 시니어)으로 해체시기에 아카이빙 프로젝트 진행(시작전, 혹은 미래 개입)
- 공동체가 관련기록을 온전히 가지고 있기 어려움
- 현실적 방안: 주류문화기관이 대신 보존하고 통제권을 공동체가 갖는것 제안

14

공동체 아카이브

기억투쟁: 끊임없이 주류의 이야기로 이끌수 있도록 하는것

- 기록으로 인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
 - “이러한 일이 있다”: 기록을 통해 남기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대항기록이 주류기억이 되기도 함
 - 기억투쟁의 매개, 지원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록임
- 아키비스타가 공동체를 잘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주체보다 약할 수 있지만
 - 아키비스트는 공동체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기록이 중요할 수 있는지 도움을 줄 수 있음

15

공동체 아카이브

조력자로서의 아키비스트

- 기록화 환경을 조성해주기위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 필요
- 공동체 주체들은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하고 아카이브 절차를 이야기해 줄수 있는것, →전문성을 준용해서 그들에게 적극적 조언자가 되어야 함
- CF)한국기록관리 전문화 협회 '윤리강령 재고 '

16

공동체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의 수집자 유형

액티비스트
아키비스트

주류 문화기관

- 액티비스트 아키비스트는 점령지를 돌아다니면서 물리적 기록 수집 또한 운동에 참여하여 그것을 경험(기록학 전공자)하면서 기록 수집. 주체중심의 접근
- 주류 문화기관은 사람을 고용하여 수집을 진행. 주체보다는 기록에 집중하여 “동시대 기록”을 수집함
- 월가점령운동과 티파티 기록을 모두 모음

- 공동체의 가치가 공동체 아카이브 가치로 연결 되는 것인 아님
- 월가점령운동은 SNS가 중요함(논의과정→결과와 중요). 그러나 주류문화기관은 SNS기록은 수집하지 않음

17

공동체 아카이브

아카이빙 행동주의자
(Archiving Activism)

활동가 아키비스트
(Archival Activism)

- 아카이빙 행동주의자: 생산자 관점에서의 다양한 생산자
 - 예술행동가 운동당시 기록매체를 활용하여 시위에 참여
- 활동가 아키비스트: 아카이브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적 사건에 결합하는 아키비스트
- 양자가 같이 협력하여 공동의 과업이 되어야 함

- 아카이빙 행동주의자와 활동가 아키비스트의 차이점은?
 - 아키비스트는 눈에 띄지 않고 지원업무의 특성이 강함. 기록의 획득관리를 위해 너무 앞서거나 미래에 존재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음
 - 아카이빙 행동주의자는 언제, 어느때나 조력자가 될 수 있음. 제일 힘들때, 옆에있어 주는 사람, 공동체 주체에게 옆에 있는것을 인식시켜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함

18

공동체 아카이브

장소성이 주는 의미

- 백만가지의 기록보다 장소성이 주는 임팩트가 있음
 - 단원고 텅빈교실, 삼단쓰레기통(멀미약)은 어떠한 기록보다 강렬함
- 단원고 교실은 2014년 4월에 멈춰져 있지만, 끊임없는 재구축(재구성)으로 슬로건이 달라짐(포스트잇, 꽃)→리빙아카이브
- 4.16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정동임
- 어떤 사안을 자신이 공감하여 사회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이러한 정동이 가치의 적극적 수용이 필요함

19

공동체 아카이브

정서의 공동체: 정동가치

- 민간기록의 가치기준으로 작용
- 감성중시의 시민의식, 개인중심의 참여, 일상생활의 이슈가 부각되는 네트워크 정치운동
- 느슨하고 우연한 조우의 형태로 이데올로기적 동맹이 아니라 정동적 결연. 분노와 정의. 부끄러움과 공감을 매개로한 연대
- 희생자를 목격하고 희생의 원인을 묻고 구조적 변화를 요청하는 애도는 시민이 권력을 압박하게 만드는 정동, 정치적 정동임
- 정동: 개인이 내적으로 공동의 사회적 의제에 대해 함께 느끼는 정서적 변화

20

공동체 아카이브

정동과 연결된 행위의 효과와 기록학적 함의를 탐구할 필요성 증대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 논쟁의 촉발, 구의역 참사 이후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끊임없는 대중적 관심은 참사의 장소성과 포스트잇과 사발면으로 대표되는 애도의 이미지적 압박이 애도와 추모의 기록을 정치적 애도의 기록으로 의미화시킴
- 아카이브에 보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
- 정치적 정동의 뉘앙스를 실체 중심의 아카이브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의 문제



- 우리는 활동가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s)를 '아카이빙되는 운동의 능동적 참여자'로 규정한다. 그들의 목적이 목적이 아카이빙 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든, 참여의 산물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든, '실천적 아키비즘은 운동의 직접적 참여'를 의미한다.

-Queens's Collage 월가점령운동 archiving Project 사명 및 컬렉션 개발방침 중에서-

21

공동체 아카이브: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2016.5.17)



이미지 출처 : 뉴스시스 등



22

공동체 아카이브: 구의역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2016.5.28)



23

공동체 아카이브: 구의역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2016.5.28)



24

공동체 아카이브

정동가치 기반의 평가

- 의제정취를 위해 모이는 형태에서, 개인의 성향에 의해 다양회됨
- 생활세계에서 당한 폭력을 공유, 소통해서 지지를 받는 체계로 변화됨
- 우연한 조우이며, 이데올로기적 연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음
- 이들의 정서적 변화의 공감대(정동)을 실체 중심의 아카이브에 어떻게 담아야 하는가?

기존의 기록학적 평가

- 포스트 잇 등 대량기록물에 대해 일괄적인 섀플링 기법등을 통해 평가 수행
- 물리적 특성에 따라 관리하고, 일부는 기록유형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정동적 가치 투영 평가

- 이해기반으로 정서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기반한 평가
- 대량의 기록물 중, 의미 있는 것을 선별
예)육개장, 일부 포스트잇
- 정동가치에 기반을 둔 가치평가 수행

25

공동체 아카이브



상징적 사진

- 히스토리, 서사를 알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사진을 이해하는 범위가 다름
- 구의역 육개장도 육개장이라는 기록객체의 서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남길수 있고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음
-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라는 공감을 이해하고 이것을 공동체 기록의 평가에 중요가치 요소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인간의 삶의 측면을 데이터의 관점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조우가 필요.
- 사회적 맥락이해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기록이 됨
- 공식적 윤리 프레임으로 봤을때 기록이 아니지만, 정동의 가치로 보았을 땐 중요 기록이 됨 (공동체가 중시하는것)

26

공동체 아카이브

'행위와 경험'을 기록화 할 수 있는 방법?

- 공동체의 정동을 기반으로 참여과 교감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고민해야 함
 - 물리적 기록만으로 취득할 수 없는 정서적 교감은 어떻게 아카이빙 할까?
 - 기존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수집물을 받는 것이었지만, 공동체 아카이브에서는 **기록활동**이 중요시됨
 - 사회에 기록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활동의 참여로 몸으로 체득된 생각등도 모두 기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음
 - 즉,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기록학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아키비스트가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 몸으로 체득되는 모든 활동이 곧 공동체 기록학의 영역이자 기록활동임
 - 이것은 공동체를 이해하는 역량으로 전문성으로 이어짐
 - 기존 기록학 영역에서의 전문성과의 차이?

27

MEMO

.....

.....

.....

.....

.....



마을기록물 수집과 생산 II

아카이브 수집 운영사례
및 수집전략 설계

송영랑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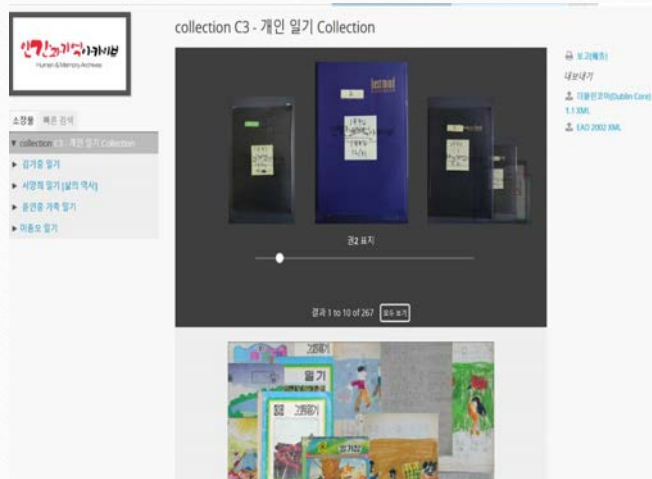
1강. 마을 기록물 수집과 생산 I

아카이브 수집 운영사례 및 수집전략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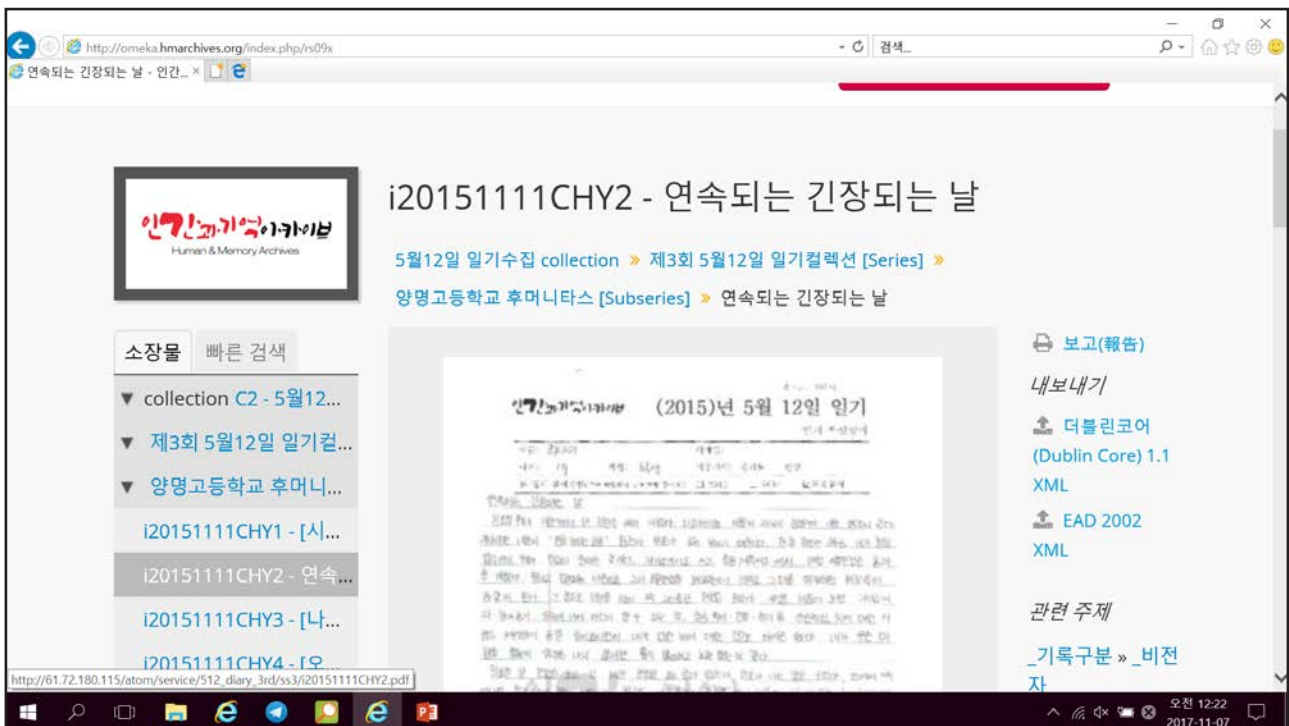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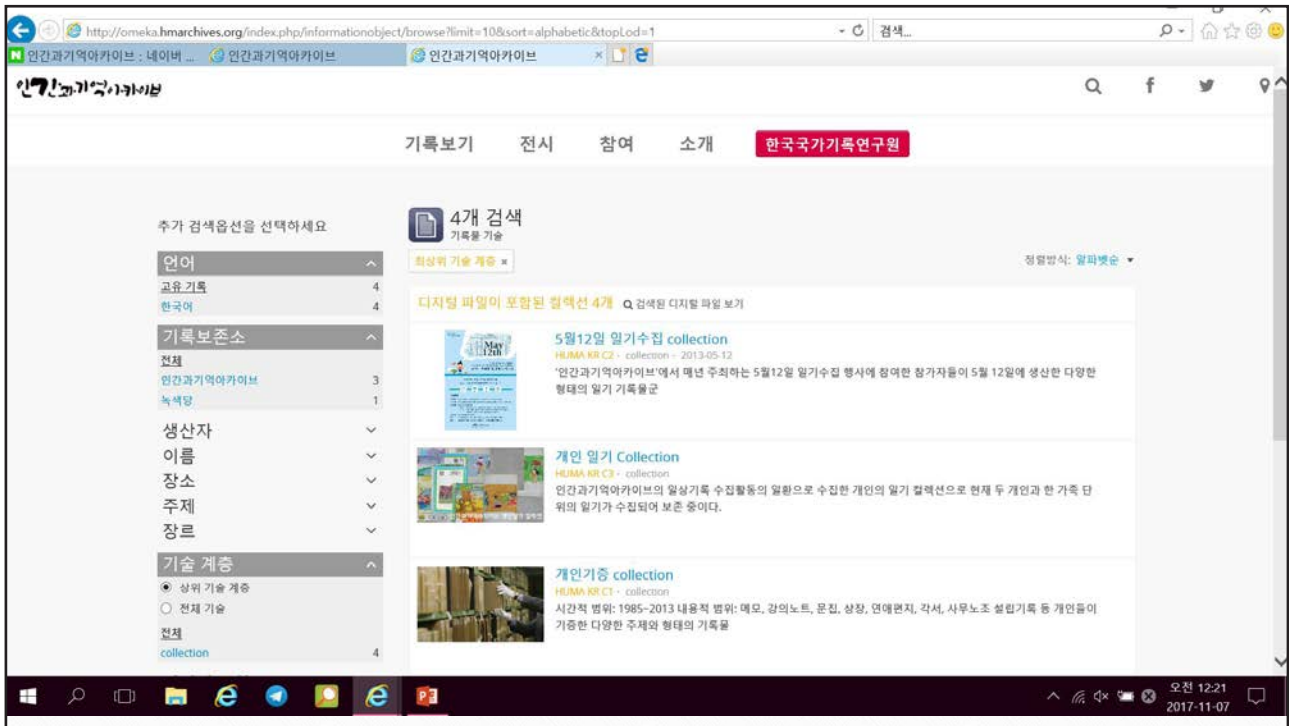
아카이브 수집운영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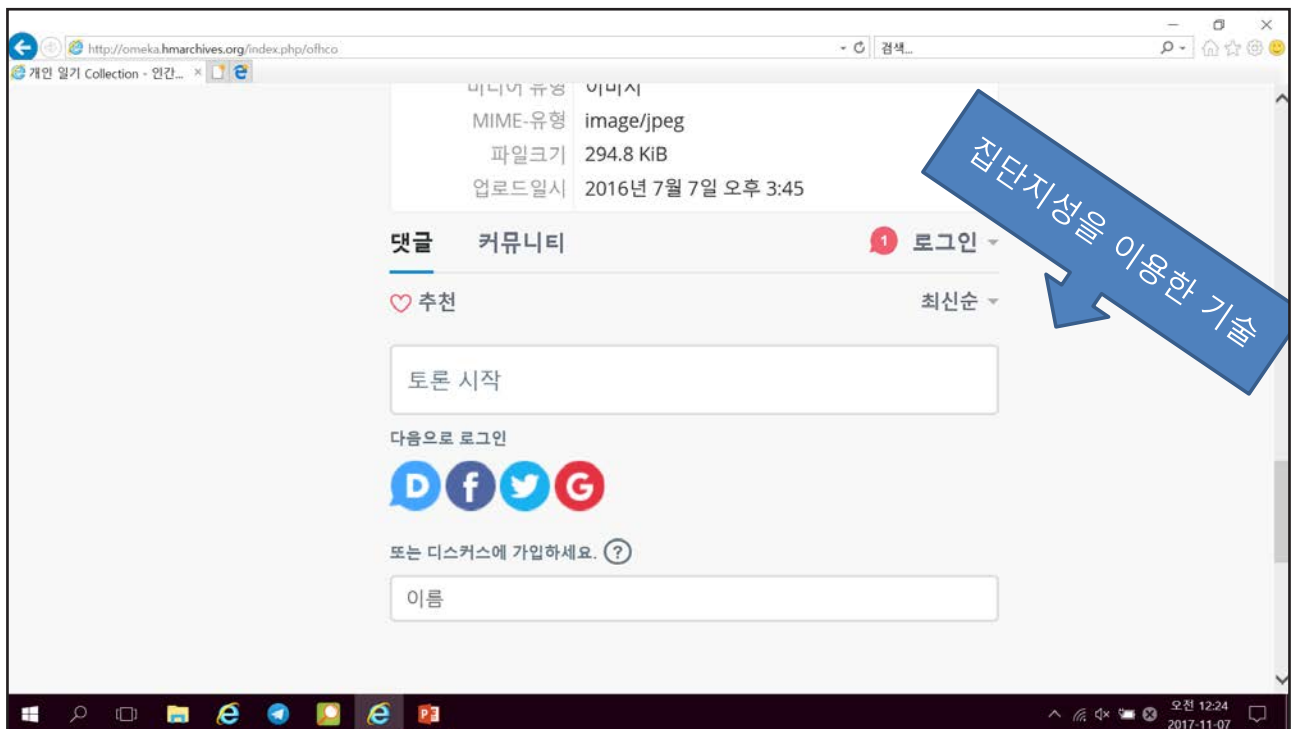
■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의 '5월 12일 일기수집'



-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는 매년 5월 12일 개인의 일기를 수집해서 당시의 사회상과 일상을 기록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을 진행하고 있음
- ISAD(G)기반으로 기록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규칙을 적용하여 수집한 기록을 기술하여 서비스 하고 있음
- 일상기록, 시민기록을 수집 서비스 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음 (디지털아카이브)

2





아카이브 운영사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자원센터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 기록관리' 사업을 진행함
- 노원, 도봉, 은평, 정릉 외 3개 마을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해당 마을의 기록을 수집함
- 마을별로 주제를 정하고 해당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을 마을주민 스스로 수집하고, 지원자에 한하여 시민아키비스트 교육을 진행함
- 시민아키비스트들은 마을의 축제 등의 현재 진행형 이벤트에 대한 기록은 생산하고, 마을의 옛모습에 대한 기록은 수집과 구술을 병행하여 진행하였음



6

아카이브 운영사례



■ 홍동마을 아카이브 사례

- 홍동마을의 역사와 기억을 지역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주체가되어 지역공동체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확대하고자 기획됨
- 아카이브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임
- 마을공동체 형성사(사진과 내러티브), 농사일지, 사진아카이브 도서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마을아카이브를 만들어감
- 풀무학교, 풀무생협 등 마을협동조합의 형태로 활동함 마을공동체 의 성공적인 예로 꼽을 수 있음

7

아카이브 운영사례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 소장사료
 - ✓문건사료: 민주화운동 단체의 자체생산문서, 성명서, 자료집, 간행물, 회고록, 자료집, 팸플릿, 일기, 메모, 재판자료 등
 - ✓박물사료: 현수막, 포스터, 메달, 의상, 걸개그림, 깃발, 배지, 현판 등
 - ✓시청각 사료: 오디오, 비디오, 사진, 슬라이드필름, CD, DVD 등
 - ✓구술사료: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및 사건관련 구술
 - ✓도서류: 민주화운동 단체에서 생산된 도서 및 정간물

8

아카이브 운영사례



[항온항습기]



[문서보존처리기]



[가스식 소화설비]



[도면함, 서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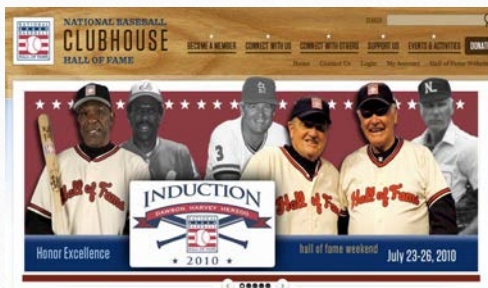
[보존서고: 75평]

■ 조직

- ✓ 2001년 민주화기념사업회로 설립
- ✓ 사료관장 이하 사료팀으로 구성, 사료기획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문요원 업무전반에서 활동 / 2011년 기준 총 9명
- ✓ 정보서비스, 정리보존, 수집, 구술로 구분하여 업무 수행

9

아카이브 운영사례



■ 야구아카이브사례

❖(재) 일본 야구체육 박물관

- 프로/아마를 불문하고 야구의 역사자료부터 화재성이 높은 사료를 소장 및 전시
- 전시, 도서관, 명예의전당, 출판 등의 기능을 수행
- 소장물은 실물 및 사진을 포함한 약 3만점 및 야구 기타 스포츠 관련 자료를 5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일본 최대의 야구 전문박물관

❖미국 명예의 전당

- 미국 야구 역사를 연구하고 야구와 관련된 기념물들을 전시 및 감독, 심판, 선수 등 야구 발전에 공헌 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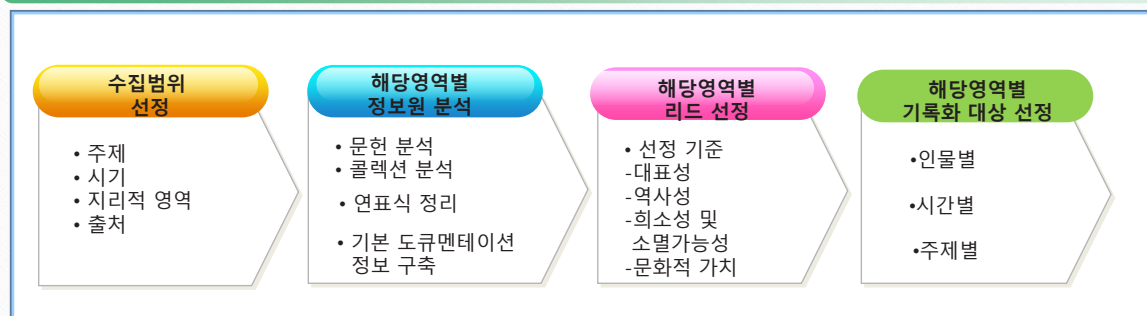
10

마을기록 수집을 위한 전략 설계

■ 도큐멘테이션 정보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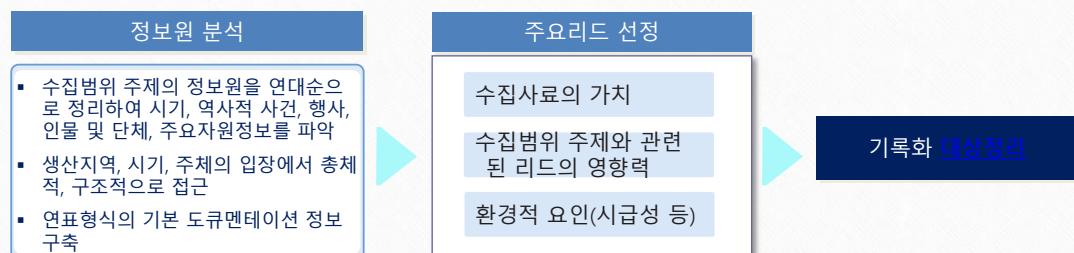
•도큐멘테이션: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중요한 요건은 '명확한 기록화 범위 설정'으로, 기록화 대상의 활동이나 사안을 기록으로 설명하거나 그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사료를 수집하는 전략임

- 기록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수집범위에 대한 기본 도큐멘테이션 정보 구축 필요
- 수집대상 조사 단계의 사전조사는 접촉할 대상에 대한 상세조사이며, 이 단계에서의 기본 도큐멘테이션 정보 구축을 위한 활동은 전체 수집범위에 대한 사전조사, 리드 개발 및 기록화 대상에 대한 포괄적 정보의 확보를 의미



11

마을기록 수집을 위한 전략 설계



1. 기본 정보

1-1. 수집범위 선정

1-2. 수집대상 선정

1-3. 수집대상 선정

1-4. 수집대상 선정

1-5. 수집대상 선정

1-6. 수집대상 선정

1-7. 수집대상 선정

1-8. 수집대상 선정

1-9. 수집대상 선정

1-10. 수집대상 선정

1-11. 수집대상 선정

1-12. 수집대상 선정

1-13. 수집대상 선정

1-14. 수집대상 선정

1-15. 수집대상 선정

1-16. 수집대상 선정

1-17. 수집대상 선정

1-18. 수집대상 선정

1-19. 수집대상 선정

1-20. 수집대상 선정

1-21. 수집대상 선정

1-22. 수집대상 선정

1-23. 수집대상 선정

1-24. 수집대상 선정

1-25. 수집대상 선정

1-26. 수집대상 선정

1-27. 수집대상 선정

1-28. 수집대상 선정

1-29. 수집대상 선정

1-30. 수집대상 선정

1-31. 수집대상 선정

1-32. 수집대상 선정

1-33. 수집대상 선정

1-34. 수집대상 선정

1-35. 수집대상 선정

1-36. 수집대상 선정

1-37. 수집대상 선정

1-38. 수집대상 선정

1-39. 수집대상 선정

1-40. 수집대상 선정

1-41. 수집대상 선정

1-42. 수집대상 선정

1-43. 수집대상 선정

1-44. 수집대상 선정

1-45. 수집대상 선정

1-46. 수집대상 선정

1-47. 수집대상 선정

1-48. 수집대상 선정

1-49. 수집대상 선정

1-50. 수집대상 선정

1-51. 수집대상 선정

1-52. 수집대상 선정

1-53. 수집대상 선정

1-54. 수집대상 선정

1-55. 수집대상 선정

1-56. 수집대상 선정

1-57. 수집대상 선정

1-58. 수집대상 선정

1-59. 수집대상 선정

1-60. 수집대상 선정

1-61. 수집대상 선정

1-62. 수집대상 선정

1-63. 수집대상 선정

1-64. 수집대상 선정

1-65. 수집대상 선정

1-66. 수집대상 선정

1-67. 수집대상 선정

1-68. 수집대상 선정

1-69. 수집대상 선정

1-70. 수집대상 선정

1-71. 수집대상 선정

1-72. 수집대상 선정

1-73. 수집대상 선정

1-74. 수집대상 선정

1-75. 수집대상 선정

1-76. 수집대상 선정

1-77. 수집대상 선정

1-78. 수집대상 선정

1-79. 수집대상 선정

1-80. 수집대상 선정

1-81. 수집대상 선정

1-82. 수집대상 선정

1-83. 수집대상 선정

1-84. 수집대상 선정

1-85. 수집대상 선정

1-86. 수집대상 선정

1-87. 수집대상 선정

1-88. 수집대상 선정

1-89. 수집대상 선정

1-90. 수집대상 선정

1-91. 수집대상 선정

1-92. 수집대상 선정

1-93. 수집대상 선정

1-94. 수집대상 선정

1-95. 수집대상 선정

1-96. 수집대상 선정

1-97. 수집대상 선정

1-98. 수집대상 선정

1-99. 수집대상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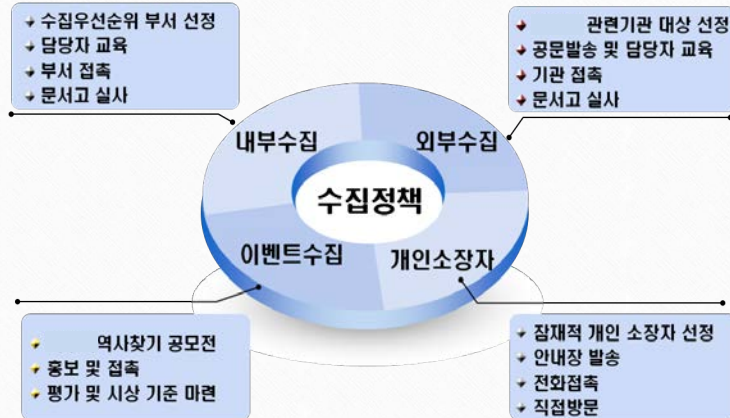
1-100. 수집대상 선정

[아시아문화정보원 기본 도큐멘테이션 정보]

12

마을기록 수집을 위한 전략 설계

수집대상 및 수집 방법 예시



연도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주소	비고
2009-01	파주시청	김영희	011-340-1000	파주시청	파주시청
2009-02	파주시청	김영희	011-340-1000	파주시청	파주시청

[사료 소장자 정보(lead file) 작성]

연도	소장자명	소장자주소	소장자전화	소장자비고
2009-01	김영희	파주시청	011-340-1000	파주시청
2009-02	김영희	파주시청	011-340-1000	파주시청

[사료 소장자/기증자 상세 정보 작성]

연도	소장자명	소장자주소	소장자전화	소장자비고
2009-01	김영희	파주시청	011-340-1000	파주시청
2009-02	김영희	파주시청	011-340-1000	파주시청

[방문일지(Case file) 작성]

13

수집 실행관리

방문을 통한 직접 수집

- 내부, 외부, 개인 중 우선 접촉대상 1순위 소장자는 직접 방문 수집 진행
- 수집의 목적 및 취지 설명. **장기적인 접촉을 통해 사료 수집이 가능함**



홍보 및 이벤트 수집

- 사료 수집에 대한 홍보물 제작
- 사료 기증에 대한 독려 및 대외적인 홍보를 위한 수집 이벤트 진행



[전광판 광고]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수집 실행관리

수집이벤트 사례



[부서별 이관담당자 집합교육 및 부서장 방문설명회]



[사내 수집 이벤트]



[사보광고, 안내팸플렛]

[부서/지점별 문서창고 실사 및 수집]



15

수집 실행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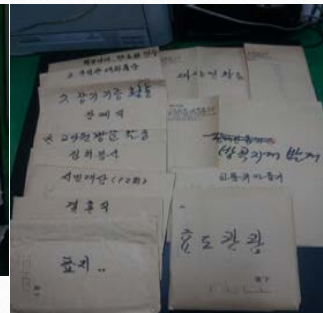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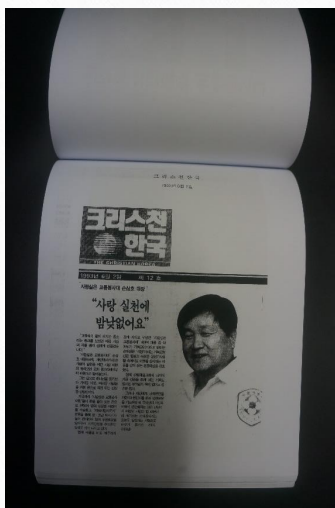


수집 실행관리



archive198111의 79명이 좋아합니다
old sign story #277 서울시립미술관 8층남강구관 805호에전시됨

수집 실행관리



수집 실행관리

- 수집된 사료의 정리와 다양한 사료활용 사례



The screenshot shows the MyLibrary website. The header includes the MyLibrary logo and navigation links like 'HOME', 'ABOUT', 'CONTACT', 'FAQ', and 'SUPPORT'.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ok cover for '한글서체' (Hangeul Se-che) and a list of books. The list includes titles, authors, and prices. At the bottom, there are buttons for '로그인' (Login) and '회원가입' (Sign Up).

A photograph of a museum exhibit. The wall is covered with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photographs, and small framed items. Two people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display, looking at the information. The exhibit appears to be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region, possibly focusing on the early 20th century.

略史
1922
~2005
문화재연구소 84년 역사

19

구술기록 수집 실행관리

■ 구슬기록 생산관리: 조사연구

- 연혁분석 사례

인물분석

- [illegible]

구술기록 수집 실행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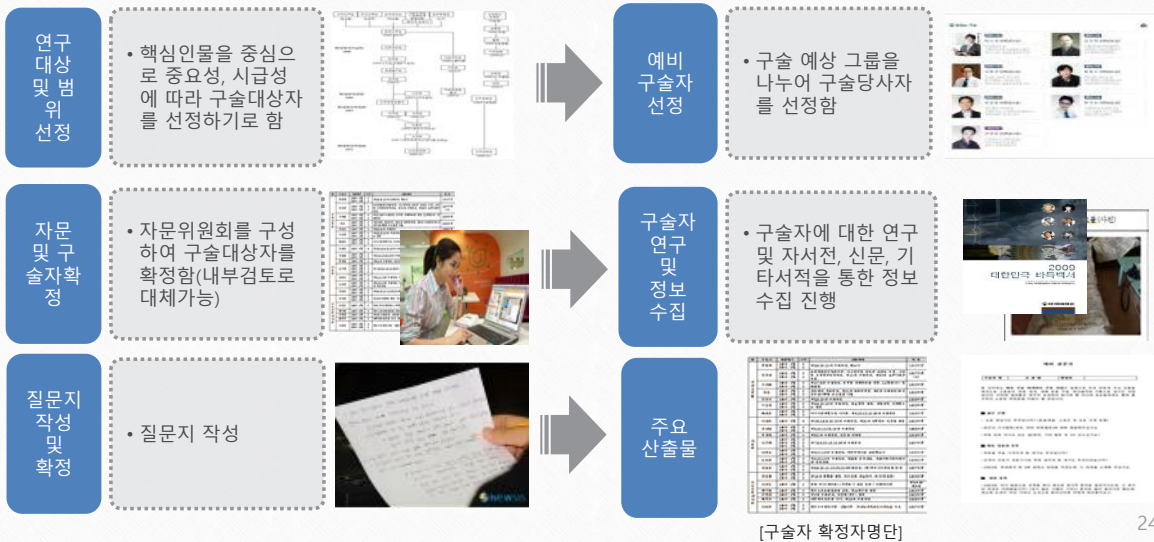
구술기록 생산관리: 구술정보화 계획



23

구술기록 수집 실행관리

구술기록 생산관리: 구술기획



24

구술기록 수집 실행관리

■ 구술기록 생산관리: 후속처리

■ 구술과정기록의 기록화

- 구술실행 완료 후, 1인 구술진행 과정에 따른 필수 과정기록을 남겨야함. 과정기록을 남김으로써, 구술의 맥락확보와 향후 추가 구술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특히, 구술활용 동의서, 활용동의서 등은 필수적으로 구술자에게 동의 받아 기록화 해야함

■ 공개/비공개 기록관리

- 구술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해야만 함. 녹취록은 구술음성 또는 영상을 보고 기록되어야 하며, 완성된 녹취록은 구술자에게 확인받아 비공개할 부분은 가리고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야함

27

구술기록 수집 실행관리

■ 기록수집의유의사항

● 입수기록에 대한 물리적 통제의 어려움

- 입수기록 전체 관리가 부재하고 매체별로 기록보존의 이합집산이 빈번함

● 입수기록에 대한 문서화가 체계적이지 못함

- 목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후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문서화가 수행되지 못함

● 기록의 형태가 매우 다양함

- 기록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기록의 형태가 다양함

● 기록이 분산 보존되어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 필요

- 다양한 출처에 의한 기록이 생산됨

● 입수기록의 물리적 통제계획 수립

- 기록의 명확한 소재파악, 관계인 정리

● 수집시부터 체계적인 문서화 체계 구축

- 입수된 기록의 전후 맥락 복원
- 생산이력, 소장이력, 보관이력 등에 대한 정보 구축

● 유형별 기록의 관리방안 모색

- 다양한 기록유형에 대한 최선의 관리방안 도출
- 장기보존까지 염두에 둔 거시적 관리방안 마련

● 소재정보 구축을 통한 수집, 생산

- 도큐멘테이션 정보 구축
- 획득된 리드를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집, 구술생산 확보

28



마을기록물 분류/기술 I

기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송영랑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2강. 마을 기록물 분류/기술 I

기록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기록분류 (classification)

1. 기록 조직화

- 기록을 조직화 하는 것은 업무활동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분류함으로써 기록들 간의 상호 관계를 쉽게 파악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 기록을 조직화하는 것은 기록에 담긴 내용뿐만 아니라 기록을 생산하게 된 활동이나 업무, 기록을 생산한 개인이나 조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이나 업무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기록을 조직화하는 것은 기록을 업무기능 단위 별로 구분하여, 선별 평가와 보존기간 설정 및 공개 여부와 접근 권한의 설정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2. 기록 분류의 정의

- 기록을 조직화하고 내적인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과정

3. 기록 분류의 목적

①기록의 생산맥락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증거가치를 높임
②기록의 검색과 활용을 지원
③기록의 계층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제공
④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맥락에 기초해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4. 기록 분류의 원칙

- 출처존중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des fonds 또는 principle of provenance)
 - 하나의 부서 또는 조직에서 생산한 기록은 함께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기록 생산기관의 존중)
 - 생산자 또는 그 기록을 산출해 낸 업무기능이 서로 다른 기록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 분리된 기관의 기록은 분리해서 관리한다.
 - 두 기관의 기록을 한데 합쳐서 관리하지 않는다.
 - 같은 사안에 관한 두 기관의 기록을 한데 합쳐서 보관하지 않는다.

3

■ 원질서 존중의 원칙

-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생산하고 축적하고 유지한 순서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입수된 형태대로 순서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 기록을 원질서 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각종 관계 정보(기록과 기록관의 관계, 기록과 업무 흐름 간의 관계 등)와 의미 있는 정보를 기록의 원질서로부터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을 이용하는데 기록 생산자가 만든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보존 기록관(Archives)이 새로운 접근 도구를 만드는 업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기록이 원래 생산되고 사용된 방식을 의미한다.
기록을 생산한 기관이 효율적으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분류, 편철, 검색 방식대로 기록을 보관

4

5. 기록 분류 방법

조직별 분류	①그 출처를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보고, 해당 조직별로 기록을 분류하는 방식
	②조직의 구조가 안정되고 기능적·행정적 업무가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만 권고
	③현대 조직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자주 전환하게 되면서 조직 분류 적용이 힘들
주제별 분류	①도서관이나 정보자료실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기능별 분류	①조직이 수행하는 기능에 기반한 분류방법
	②기관의 기능과 활동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업무와 기록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음
	③분류체계의 구조는 계층성을 가짐 기능functions - 활동activities - 처리행위transactions
	첫 번째 계층:한 기관의 주요 업무 기능을 반영하여 설정 두 번째 계층:기능을 구성하는 업무 활동으로 구성 세 번째와 이하 계층:각 업무 활동 속에서 발생하는 상세한 처리행위

5

6. 기록 분류의 추이

- Schellenberg는 '분류(classification)'라는 용어는 현용기록관리 에 사용하고, 보존기록에 대해서는 '정리(arrangement)'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 그러나 최근 각국의 기록관리 정책은 현용기록과 보존기록을 구분하지 않고 기록 연속성(Record Continuum)개념에 따라 조직화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전자기록시스템의 확산이라는 새로운 정보환경에서 '정리'의 개념 역시 물리적 질서보다는 논리적 질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6

기록분류체계의 개발

1. 기록 조사

- 기초 조사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 구조, 업무, 조직 운영에 대한 규제, 사회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다.
- 기초조사의 범주
 - 조직분석 자료(법령, 업무분장표 등)
 - 웹사이트 자료(인트라넷, 웹사이트 등)
 - 출판물(연차보고서, 간행물, 정기간행물 등)
 - 각종 사업계획(중장기 계획 등)
 - 조직 내부 규정
 - 업무처리절차 관련 기록 등
 - 현재의 기록관리시스템(매뉴얼 등)
 - 관련 법률
 - 보존중인 기록, 현재 생산되고 있는 기록 등

7

2. 업무 분류표의 개발

- 업무 분류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분석해야 한다.
 - 조직의 목적과 전략
 - 조직의 목적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 기능(functions)
 - 그 기능을 구성하는 조직의 업무 활동(activities)
 - 특정한 활동과 개별 처리행위(transaction)를 수행하는 업무 처리과정(work process)
 - 활동을 구성하는 모든 단계별 업무
 - 각 단계별 업무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처리행위
 - 한 업무활동 내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개별 처리행위의 집단
 - 조직의 기존 기록
- 업무 분석
 - 맥락분석, 기능분석, 순차분석 등 세 가지 분석 방법
 - 맥락분석과 기능분석은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분석 방법
 - 순차분석은 업무과정의 구체적 단계와 순서를 밝히는 미시적 분석
 - 맥락분석에서 확인해야 할 것을 법적 요건, 업무규칙, 그리고 공동체의 기대
 - 기능분석은 조직의 광범위한 목적과 목표에서 시작하여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향식으로 분해하는 분석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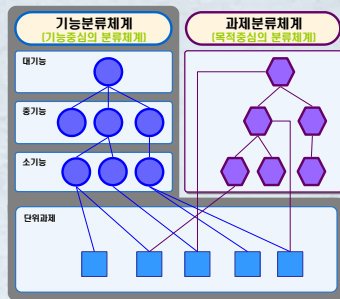
8

기록분류의 실제

1. 한국 정부기능분류체계

분류체계	세부설명
정책분야(1레벨)	•대국민 서비스, 정부 내 활동 등의 정부의 Business Area를 고려하여 15개 분야로 구분 •분류기준은 정부의 예산배분체계, 국가 간 행정서비스의 통계자료 비교를 위한 국제기준 등이 고려됨(예시 : 일반공공행정)
정책영역(2레벨)	•정책분야를 각 부처별 수행하는 기능과 체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Business Area별로 51개 영역으로 세분류(예시 : 일반행정)
대기능(3레벨)	•각 부처의 국/실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예시 : 정부자원관리)
중기능(4레벨)	•각 부처의 과/팀 수준에서 담당하는 기능(예시 : 조직제도)
소기능(5레벨)	•중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법률, 직제 등 법적근거를 통하여 정해진 기능(예시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
단위과제(6레벨)	•업무 간 유사성, 독자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소기능을 영역별, 절차별로 세분화한 업무영역(예시 :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고도화)

2. 한국 기록 분류체계



참고

업무분류체계(BRM)						기록관리항목			
조직분류	기능분류								
처리과명	1 레 벨	2 레 벨	3 레 벨	4 레 벨	5 레 벨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임사유	기능유형
정책 분야 아	정 책 영 역	대 기 능	중 기 능	소 기 능	단 위 과 제	200자 이내	1,3,5,10,30 증영구, 영구 중 택일	100자 이내	고유/공통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3. 중국 당안분류표(檔案分類表)

CORD	항목의 명칭	CORD	항목의 명칭	CORD	항목의 명칭
A	中國共產黨黨務	H	科學研究	Q	郵電(우편, 통신)
B	國家政務總類	J	計劃, 經濟管理	R	城鄉建設, 建築業
C	政法	K	財政, 金融	S	環境保護, 土地管理
D	軍事	L	貿易, 旅行	T	海洋, 氣象, 地震, 測繪
E	外交	M	農業, 林業, 水利	U	標準, 計量, 專利(專賣)
F	政治協商會議, 民主黨派, 群眾團體	N	工業		
G	文化, 教育, 衛生, 體育	P	交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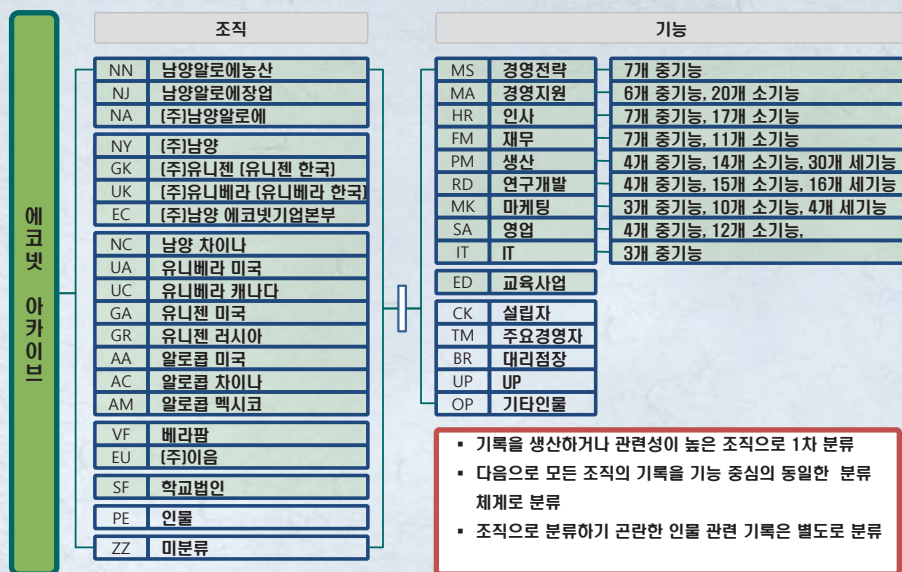
3. 중국 당안분류표(檔案分類表)

第一等級類目	第二等級類目	第三等級類目	第四等級類目
N 工業			
	NC 煤炭		
		NC1 煤炭地質	
			NC11 煤炭地質調查
			NC12 煤炭礦地質調查
			NC13 水文地質, 工程地質, 環境地質調查
			NC14 地球物理, 地球化學, 遙感地質調查
			NC15 探礦工程
			NC16 實驗測試
			NC18 地質測繪
			NC19 其他

4. 주제 분류 사례: 한국근현대 일상사 아카이브

1층위	2층위
1. 사람과 삶	1)노동자·농민·직업 2)아동·소년·청년 3)여성 4)이주·이주민 5)교육 6)도시·시장 7)죄와 벌 8)종교·신앙 9)국가와 일상
2. 의식주와 근대문물	1)의 2)식 3)주 4)통신·운송·교통 5)문물 6)미용·화장 7)병과 죽음
3. 문화와 여가·놀이	1)놀이·여가·운동 2)축제·기념회 3)독서·문학 4)영화·사진·미디어·광고 5)음악 6)일탈·유흥

5. 기업 아카이브 사례



6. 트루먼대통령기록관 Presidential Papers

Series	Description	Sub-Series(File)
[1] President's Secretary's Files	트루먼 대통령이 그의 개인 비서 Rose Conway에게 민감한 사안의 기록물을 포함한 몇몇 기록물을 그의 사무실에 보관토록 지시 국가 안보 및 정보부 관련정보, 대통령의 민감한 서신, 연설문 파일, 각종 다양한 노트, 비망록 등	—
[2] White House Central Files	White House Central Files 담당 부서에서 생산한 시리즈로, 대통령과 백악관 직원이 보낸 문서들을 포함	Official File President's Personal File General File Confidential File Permanent File Public Opinion Mail Miscellaneous File
[3] Staff Member & Office Files	White House Office의 구성원들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로, ①하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White House Central Files 파일링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은 기록물 ②트루먼 행정부의 임기가 완료되어 집무실에서, 트루먼 대통령의 잔여 문서들과 Kansas City로 이송된 기록물	—

1
5

6. 서울기록원 조직화 사례

주요내용



▣ 서사형 S-NAP(Seoul - Narrative Archiving Policy) 개발

- '서울의 사회현상과 삶의 현장'이라는 관점의 서사를 기반으로 S-NAP를 설계하고 서울을 재현할 수 있는 아카이빙 정책 개발(9개 영역 < 상위 S-NAP 70개 > 하위 S-NAP 240개)



▣ S-NAP 을 기반으로 서사형 수집 진행

- 토달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면서 S-NAP기반으로 공공, 민간, 협치, 개인으로부터 서울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수집을 진행함 (240여개의 S-NAP영역에서 2019년은 '상징' 영역을 중심으로 수집)
- 기록공유를 전제로한 '사본수집' 진행, 특히 다규멘터리 아카이빙을 처음 시도함



▣ 네트워크 기반의 생태계 조성

- 자생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거나, 잠재적 아카이브 소장자,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여 기록생태계 조성
- 공동체, 개인, 공공기관, 협치기관을 대상으로 지원, 협력 및 기록공동이용체계 구축 기반 조성

1) 서울을 재현한다

- 토달 아카이브 체계를 지향하며 서사주제와 관련된 공공기록, 산하기관기록, 민간기관기록, 개인기록, 예술표현 등을 수집하여 서울을 종합·재현 할 수 있도록 함

2) 서울을 250여개의 수집주제로 영역화 한다

- 서울 전체를 아카이브 하기 위해 250여개의 서사기반 수집주제영역을 구성하고 연차적 수집 계획을 설계함
- 타기관은 특징주제 중심으로 주제의 부분을 재현한다고 하면, 서사중심 아카이브는 250여개의 서사를 기반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서울의 총체를 재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단일한 생산 맥락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역사적, 사회적 흐름을 수집하여 전체를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임

3) 유관기관 아카이브 결과의 수집-연계한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의 아카이브 작업은 유의미함.
- 서울기록원은 유관기관들의 유의미한 아카이브 결과까지 수집-연계하여 일반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함



□ 주요수집대상

- 공공·협치·민간기관과 개인을 대상으로 총 41곳의 수집대상자를 접촉하여 사본수집 및 공유 실행
 - 1차 : 서울시 소장 청도문서고 건 목록 조사 → 2차 : 수집을 위한 대상기관 조사 착수

공공기관

- 국가기록원, 서울시, 문화재청 등



협치기관

- 이음피움봉제역사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전태일기념관, 장충단공원 기억의 공간 등



민간기관

- 강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한국소극장협회, 한국여성민우회, 416기억저장소, 어린이 청소년책 작가연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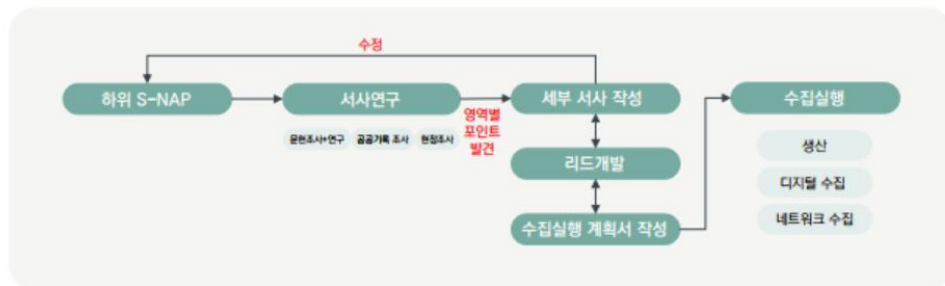
개인

- 평화의 소녀상 작가, 태극라사, 라라사진관, 봉제공장 명은사, 성우이용원, 존슨칼럼(필리핀마켓) 등



수행 과정

- 수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성을 기반으로 '서사기반 수집절차'**를 마련함.
서사 기반의 수집절차는 하위 S-NAP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영역별 포인트**를 발견하고 서사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영역 및 리드개발**을 실행함
- 수집실행 과정을 통해 추상성 있는 S-NAP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서사를 수정 보완하는 등 **변증관계 속에서 수집 진행**



서사중심 아카이빙 산출물 보기 방식

- 이번 서사중심 수집을 진행하면서 단일한 생산 맥락 이상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하여 서사형 수집결과물 보기 방식을 채택하고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접근방식으로 수집결과물을 제공함

서사형 보기

- '서울의 옛것',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광장의 외침' 4개의 수집주제영역에서 핵심결과물을 선별하여 기록 이면의 이야기를 기록과 함께 보여줌



수집 객체와 수집목록

- 관리번호, 서사항목, 수집정보

관리번호	서사항목	수집정보
2021-001	서울의 옛것	2021.01.01
2021-002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2021.01.01
2021-003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2021.01.01
2021-004	광장의 외침	2021.01.01
2021-005	서울의 옛것	2021.01.01
2021-006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2021.01.01
2021-007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2021.01.01
2021-008	광장의 외침	2021.01.01
2021-009	서울의 옛것	2021.01.01
2021-010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2021.01.01
2021-011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2021.01.01
2021-012	광장의 외침	2021.01.01
2021-013	서울의 옛것	2021.01.01
2021-014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2021.01.01
2021-015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2021.01.01
2021-016	광장의 외침	2021.01.01
2021-017	서울의 옛것	2021.01.01
2021-018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2021.01.01
2021-019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2021.01.01
2021-020	광장의 외침	2021.01.01

다큐멘터리 보기

- 성북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30분), 영화 간판쟁이 -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부(40분), 광장 - 세월호(30분) 3편의 다큐멘터리 제작



▣ S-NAP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연구 절차

- 서울의 사회적 기억을 기록화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 시도
 - 기존수집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다원적 총체적 기록화 지향
 - 서울을 표상하는 상징들을 서사 기반으로 엮어내고 기록 이면의 숨은 내러티브를 찾아 기록에 의미를 부여
 - 시민들의 삶과 기억을 통해 서울의 도시 구조를 드러내고 기록을 조직화하여 미시사 관점에서 사회적 기억 아카이빙 시도

S-NAP 설계



▣ S-NAP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구조

수집주제영역

상위 S-NAP

하위 S-NAP

서울의 서사를 담고 있는 9개 수집 주제 영역을 구성

01 Symbol
상징

서울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건물, 말과 표시, 시민의 활동이 응축된 장소 등을 주제화 함

02 Idea-Value
사상과 가치

서울을 지배하는 오랜 가치와 습관, 사상, 이데올로기를 주제화 함

03 Flow
흐름

서울 내의 사람, 자본, 사물의 흐름들을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고 그 매커니즘과 현상에 대해 주제화 함

04 Activity
활동

역동적 장소인 서울의 활동성을 직업, 노동, 교육, 생활, 사회관계, 여가, 정치 활동의 측면에서 주제화 함

05 Life-Story
생명과 이야기

서울을 살아가는 군중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일상의 표정들을 주제화 함

06 Network
관계망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체제에 주목하여 관계를 주제화 함

07 Structure
구조

도시구조의 공간간적 총위 속에서 인프라 구조를 드러내는 요소들을 주제화 함

08 Event
이벤트

도시의 기억과 도시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사건을 통해 서울의 심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09 Stuff-Things
물집

사람들과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있는 서울의 물질 요소들을 주제화 함

상위 S-NAP

- 서울을 표상하고 있는 수집 주제로 구성.
- 영역별대서사의 맥락 속에서 기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수집의 주제로서 상위 수집실행지침별로 고유 서사를 갖고 있음

하위 S-NAP

- 실제 수집을 실행하는 단위.
- 상위S-NAP서사의 맥락 속에서 실제 수집 대상 객체들을 조직화하여 세부 서사를 갖는 하위S-NAP구성함.
- 기록이 갖는 의미와 가치, 수집의 범위, 수집 지침의 내용, 참고자료 등으로 작성

▣ S-NAP (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전체 구조

1 Symbol	2 Idea-Value	3 Flow	4 Activity	5 Life-Study	6 Network	7 Structure	8 Event	9 Stuff-Things
1.1 책에서 기록을 얻는다는 사실 1.1.1 책에서 기록을 얻는다는 사실 1.1.2 책에서 기록을 얻는다는 사실 1.1.3 책에서 기록을 얻는다는 사실 1.2 기록의 공간 1.2.1 기록을 얻는다는 공간 1.2.2 기록을 얻는다는 공간 1.2.3 기록을 얻는다는 공간 1.3 기록의 삶과 기록의 삶 1.3.1 기록을 얻는다는 삶 1.3.2 기록을 얻는다는 삶 1.3.3 기록을 얻는다는 삶 1.4 기록의 기록 1.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5 기록의 기록 1.5.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5.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5.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6 기록의 기록 1.6.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6.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6.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7 기록의 기록 1.7.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7.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1.7.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1 기록의 기록 2.1.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1.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1.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2 기록의 기록 2.2.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2.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2.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3 기록의 기록 2.3.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3.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3.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4 기록의 기록 2.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5 기록의 기록 2.5.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5.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2.5.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1 기록의 기록 3.1.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1.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1.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2 기록의 기록 3.2.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2.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2.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3 기록의 기록 3.3.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3.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3.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4 기록의 기록 3.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3.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1 기록의 기록 4.1.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1.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1.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2 기록의 기록 4.2.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2.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2.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3 기록의 기록 4.3.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3.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3.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4 기록의 기록 4.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4.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1 기록의 기록 5.1.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1.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1.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2 기록의 기록 5.2.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2.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2.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3 기록의 기록 5.3.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3.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3.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4 기록의 기록 5.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5.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1 기록의 기록 6.1.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1.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1.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2 기록의 기록 6.2.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2.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2.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3 기록의 기록 6.3.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3.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3.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4 기록의 기록 6.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6.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1 기록의 기록 7.1.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1.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1.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2 기록의 기록 7.2.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2.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2.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3 기록의 기록 7.3.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3.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3.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4 기록의 기록 7.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7.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1 기록의 기록 8.1.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1.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1.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2 기록의 기록 8.2.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2.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2.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3 기록의 기록 8.3.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3.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3.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4 기록의 기록 8.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8.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1 기록의 기록 9.1.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1.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1.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2 기록의 기록 9.2.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2.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2.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3 기록의 기록 9.3.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3.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3.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4 기록의 기록 9.4.1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4.2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9.4.3 기록을 얻는다는 기록

▣ S-NAP의 활용

- 서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살아있는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
- S-NAP기반으로 수집된 기록들은 수집 영역별 **서사에 부합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며, 수집 결과는 **서사 기반의 기록 콘텐츠 자체로 활용 가능**
- 새로운 기록 활동들을 발굴하고 지속적 네트워크 유지를 통한 기록 자치 생태계 구축에 활용

▣ 서울기록지도의 활용

-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의 결과로
수집된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 대상
객체의 장소성에 주목하여 기록과의 유기적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활용
- 기록 활동 네트워크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인 추가 수집 및 현황 파악

Seoul Archive Map

서울의 서사기반 수집 기록물과 활동을 보여주는 서울 기록 지도



▣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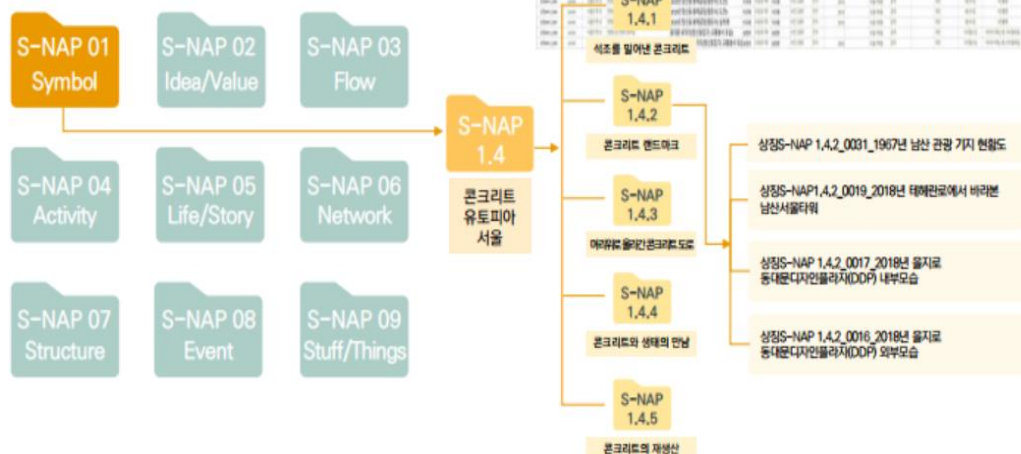
- '서울의 옛 것', '광장의 외침', '콘크리트 유토피아 서울', '조형물, 기억과 통치의 궤적'

4개의 영역에서 수집한 다량의 수집기록 중 핵심기록을 선별하여 서사형 아카이브 보기를 제작함



▣ 분류형 아카이브 보기 제작

- 서사를 중심으로 수집기록물을 분류하고 목록화



▣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보기 제작

- 다큐멘터리는 수집기록과 기록으로 포착하지 못한 서사를 설명해주는 도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수집사업으로 3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함



- ▶ 정수은 감독
- ▶ 영화 간판쟁이
- 사라져 가는 것들의 안부



- ▶ 임기웅 감독
- ▶ 광화문-세월호



- ▶ 임기웅 감독
- ▶ 한양도성 밖 첫 번째 마을 창신동



다양한 주체와의 네트워킹으로 기록학 저변 확대

- 네트워크를 만들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제 간 연계 계기 마련
- 현장 인터뷰, 특별수집 과정에서 공동체 혹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형 아카이브의 기반 마련

새로운 서울기록 수집 모형 창출

- 다양한 전공과의 협업으로 이뤄낸 연구 성과는 수집방법론으로 적용될 것이며, 새로운 아카이빙 방법론으로 자리매김 가능
- 서울의 일상기록을 아카이브에 기초한 귀납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수집 → 서울다움을 유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수집모형 제공

서울 보통사람의 '이야기 개발'과 맥락화를 통한 서울 일상의 연구 증진

- 서울시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사라져가는 삶의 흔적을 기록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적용
- 서울기록 수집은 **서울시민의 이야기의 '저장고'**로 역할 수행

기록 정리

1. 기록 정리(arrangement)의 개념

- 기록의 맥락을 보호하고 기록을 지적, 물리적인 통제 하에 두기 위해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면서 기록을 조직하는 절차
- 논리적으로 기록을 분류하는 과정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존기록관으로 이관한 후 기록을 재배치하는 과정
- 보존기록(archives)의 조직을 분석하는 전체 과정. 이 과정을 통하여 그 출처와 원본 질서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이해를 반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순서대로 보존기록을 그룹, 시리즈, 건 등으로 배열하는 일
- 정리와 기술(description)은 문서고의 소장 기록에 대한 파악 방법
- 문서의 물리적인 순서나 보관위치를 정하는 과정이 아닌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
- 정리 개념의 핵심은 생산과정 중에 형성되는 문서나 기록의 자연적 축적과정을 확인하는 것
- 일련의 영구기록의 조직을 분석하는 전체 과정
- 이 과정을 통해 그 출처와 원질서를 이해
- 영구기록을 그룹, 시리즈, 건으로 배열하는 일
- 정리는 기록이 생산되고 이용되었던 방식을 반영함

2. 지적 통제(intellectual control)와 물리적 통제

○ 논리적 측면
이용자는 어떤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그 기록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그 기록이 서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관리적 측면
문서고에 있는 모든 기록 시리즈(series)와 건(items)들에 대해 찾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지적 통제 (intellectual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로 하여금 어떤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고, 그 기록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그리고 서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것 • 출처 확인 및 분류, 기술과정을 통해 기록의 내용과 생산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지적 통제의 주요한 활동은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색도구를 제공하는 것
물리적 통제 (physical 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고에 있는 모든 시리즈와 기록 건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검색도구에 표시된 위치에 기록이 제대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 서고관리나 기록의 수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수 점검도 물리적 통제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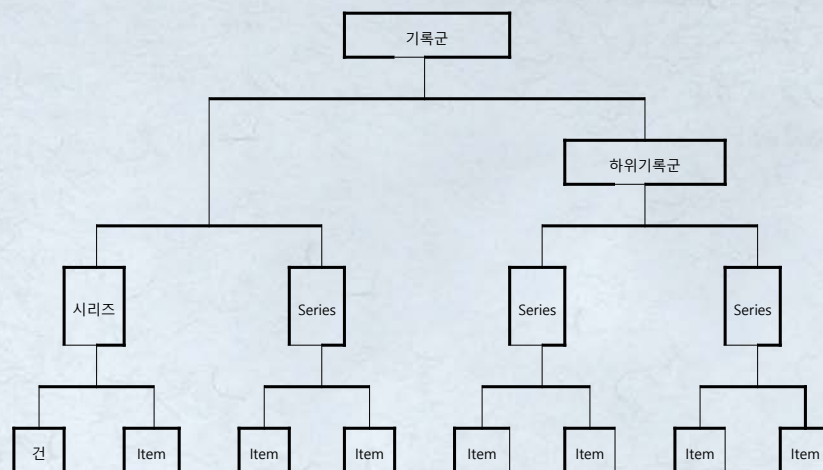
3. 기록 정리의 목적

- 정리는 기록 기술의 단위(unit)를 정하는 기준
 - 기록은 전체 기록군 속에서 유기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기술되어야 하는데 정리를 통해 계층화와 범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정리는 기술의 전 단계(前段階)에서 행해져야 하며, 정리에 따라 설정된 계층별로 집합적으로 기술함
- 정리는 보존기록 검색을 위한 유용한 도구
 - 기록은 전체 기록 set 속에서 보아야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체계를 통해 기록 간의 맥락을 알 수 있음
 - 소장기록을 건, 철 단위로 선택하면 많은 수에 달하나, 상위계층을 선택하면 검색건수를 줄일 수 있음
- 보존기록의 공개, 재평가 등의 업무에도 활용

3. 기록 정리의 특징

- 모든 보존 기록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 기관에 따른 업무 체계의 상이성, 기록 계층을 구성하는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그 성격에 맞게 정리체계를 구축
 - 생산기관의 조직 및 기능 분석에 따라 분류체계를 설계하되 이관 받은 보존 기록 set를 대상으로 귀납적으로 보완
 - 보존기록을 위한 분류체계 개발이라 함은 기록 계층화를 의미
- 각급 기관의 준현용 기록 분류체계를 보존 기록 분류체계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보존기록은 준현용 기록 중 영구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만을 선별한 것
 - 준현용 기록 분류체계를 보존 기록 분류체계에 반영하지만, 보존기록 정리를 위해 해당 아카이브가 독자적으로 정리체계를 개발해야 함

4. 보존기록의 정리 계층



4. 보존기록의 정리 계층_계속

- **그룹(Group)**: 독립된 생산 기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정리의 첫째 구분. 영구기록
- archives group, 풍(fond), records group
- **하위그룹(Subgroup)**: 그룹 아래 단계의 영구기록 정리에서 이루어지는 분리된 하위 분류
- **시리즈(series)**: 동일한 기능이나 활동과 관련되어 모아졌거나, 동일한 형태(form)를 가졌거나, 생산·접수, 이용 과정에서 생긴 어떤 다른 관련성을 가진 조직이나 개인의 파일들(files)과 기록(records)의 정리 차원
- 한 조직이나 개인이 같은 기능이나, 활동에 관련된 것을 묶어놓거나, 생산·접수 이용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형식 또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 파일과 기록을 정리하는 기준
- **파일(file)**: 동일한 주제, 활동,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을 위해서나 영구기록의 정리 과정에서 함께 편철한다. 파일은 보통 시리즈 안의 기본 단위
- **아이템(item)**: 시리즈 안에 있는 정리와 기술의 기본적인 물리적 단위

3
5

4. 보존기록의 정리 계층_계속

계 층	설 명
기록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조직이나 가족, 개인이 생산, 수집한 전체 기록 • 보존기록관에서 관리상 목적을 위해 출처 기반으로 구성된 기록의 집합체 • 유럽에서 형성된 '풍(fonds)'을 미국 환경에 맞게 편의적으로 재구성한 개념 • 규모가 큰 기관의 경우, 여러 개 그룹으로 나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 지리, 시기, 기능, 유사 매체 유형에 기초해 설정하기도 함
시리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활동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 활용되어 하나의 편철 체계로 정리된 기록들의 집합 • 특정 주제를 가졌거나 동일한 형식을 가졌다는 공통점 때문에 형성된 기록 집합체인 경우도 있음 • 서구의 경우 기록 시리즈는 목록이나 기술의 단위가 되는 경우가 많음
기록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주제, 용도 등을 기준으로 기록관리 과정에서 함께 묶여지는 하나의 조직화된 기록의 단위 • 하나의 폴더에 모아 놓은 기록건의 집합
기록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적으로 개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록 단위로 기록관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

3
6

5. 기록 정리의 원리

- 정리는 기록이 생산되고 이용되었던 방식을 반영한다.
- 아카이브는 생산기관에서 원래 정리된 기록의 상태를 존중해야 하고, 기술 작업은 반드시 그 원래의 정리 상태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 기술 작업을 통해 기록의 원래 생산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을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함.
 - 따라서 아카이브는 기록을 찾아 이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기록의 내용과 생산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보존기록(archives)의 정리는 출처에 대한 존중(respect des fonds)이라는 핵심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 이 원칙은 보존기록을 생산과 축적의 책임이 있는 기관에 따라, 또 업무에 사용 중일 때 만들어진 기록의 원래 질서대로 모아서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원래 프랑스 용어인 '출처 존중(respect des fonds)'은 종종 '기록 생산자에 대한 존중(respect for the creator of the records)'이라고 간단히 정의된다.

5. 기록 정리의 원리_계속

- 출처 존중의 원칙은, 출처주의와 원본질서라는 두 개의 관련 개념으로 되어 있다. 출처주의는 기록의 '출신 사무실(office of origin)'을 말한다. 원본 질서 (original order)란 원래의 사무실에서 생산, 정리, 보관된 조직과 질서를 말한다.
- 두 개 기관(agency)의 보존기록을 합치지 말라. 서로 다른 기관의 보존기록은 설사 비슷한 업무에 간여하거나 인적으로 중복되더라도 따로 취급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개인의 사적인 보존기록도 비록 그 개인이 연계되어 있고 같은 사건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 원본 질서를 보여주는 보존기록을 재정리하지 말라. 그 질서가 생산기관의 활동과 기능을 분명히 반영한다면 이관된 보존기록의 원본 질서를 재정리해서는 안 된다.
- 기록의 정리와 기술 작업에 핵심적인 사항은 기록이 레벨 별로 정리 기술된다 는 점이다.
 - 기록은 개별 문건이 아닌 그룹 또는 세트로 취급 함

5. 기록 정리의 원리_계속

- 기록이 입수된 차이 때문에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는 정리 방법이 다르다

아카이브 (기관형 보존기록관)	- 보통 시리즈 수준에서부터 물리적 정리의 실제 작업을 시작한다. - 주로 이관을 받는다
매뉴스크립트 보존소 (수집형 보존기록관)	- 컬렉션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3
9

기록 정리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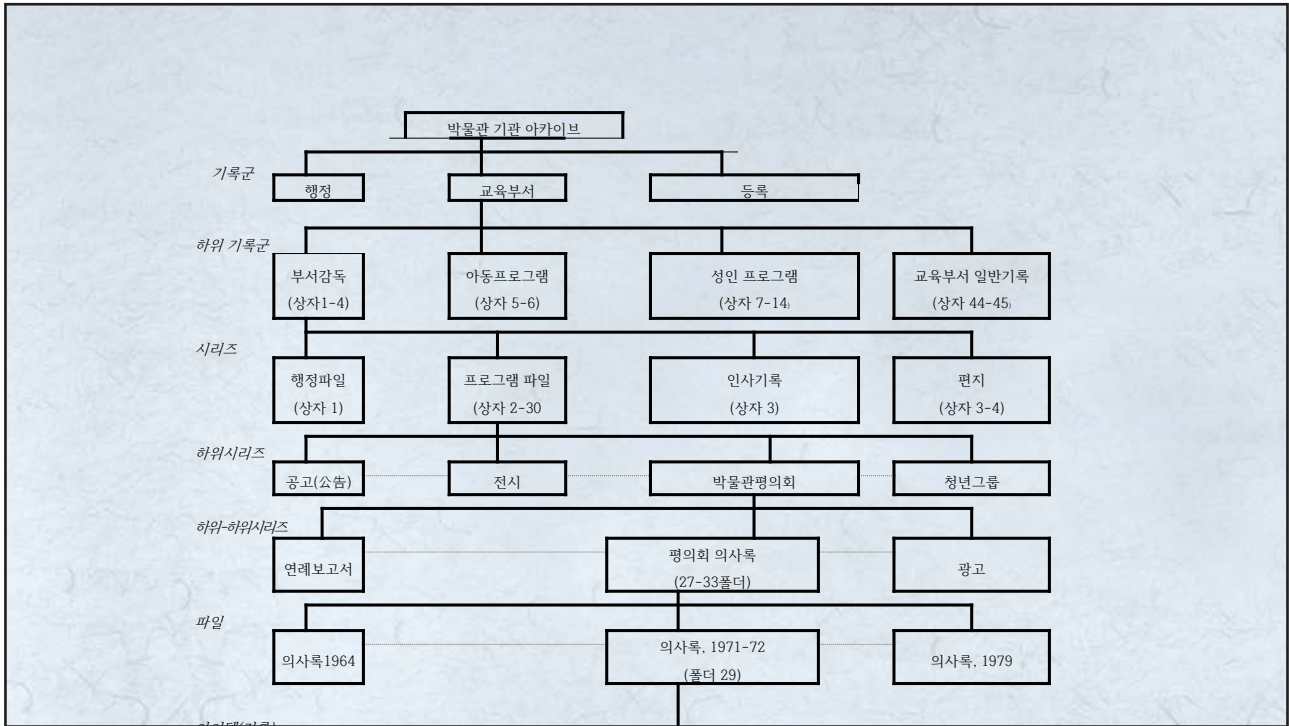
1. 미국

NARA

- 레코드 그룹 : RG332 미군 제24군 기록군
- 서브그룹: 제24군 역사파일
- 시리즈: G-2 Periodic Report (군첩보주간보고)
- 파일: 1946년 1월-3월 (1월-3월간 주간첩보보고철)
- 아이템: 1946년 2월 둘째주 첩보보고

록펠러가의 기록

- Fonds:** Papers of the Rockefeller family (록펠러 家門의 서류)
- Sub-fonds**
 - Papers of John D. Rockefeller, Sr. (록펠러 씨의 서류)
 - Correspondence relating to business affairs(비즈니스 업무에 관한 서신)
 - Correspondence relating to philanthropic activity(博愛적 활동에 관한 서신)
- Series**
 - Personal correspondence (개인적인 서신)
- Item**



기계노동자. 항공산업노동자국제연맹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and Aerospace Workers)

시리즈	서브 시리즈	주요 기록
조직 의사록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집행이사회 의사록(1953~1955)	의사록(2박스)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집행이사회 의사록(1955~1987)	의사록(21박스)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 금속연맹 집행이사회 의사록(1979~1987)	의사록(6박스)
	기계노동자 국제연맹 집행이사회 의사록(1891~1892/1934~1937/1944~1989)	의사록(7박스)
Wiam W. Winpisinger 의장 기록		[1977~1982/1988] 신문절발, 통신기록, 1982년 노동절 관련 기록, PATCO 노동쟁의 기록, Wiam W. Winpisinger 선거 기록, 프로필 등(7박스)
IAM 조합원 연설	연표	연설기록을 연대기, 알파벳 이름순으로 정리(34박스)
	알파벳순	
IAM 국. 센터	교육국(1960~1974)	보고서, 메모, 통신기록, 직업교육 추천서, 노동운동의 역사 과정 자료, 노동사 개요, 연습 프로그램 기록 등(14박스)
	국제관계(1975~1988)	예산, 세미나 기록,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동센터, 노동조합 교육 프로그램(아프리카), 아시아계 미국인 자유노동협회 기록 등(10박스)
	전략자원(연구)국 (1966~1987)	보잉사 및 제너럴 일렉트릭사 등의 직업 분류, 기술 기록, 임금 업무 매뉴얼 등 (6박스)
	커뮤니케이션국(1956~1996)	일지, 메모,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필름 등 시청각기록, 전자 뉴스레터 등 (6박스)
	IAM 관리(1985~1987)	관리 프로젝트 보고서, 의사록, 노동 프로그램 지원 기록 등(3박스)

기록 기술

1. 기록 기술(description)의 개념

- 기술은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와 기록의 성질을 알려주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에 대한 설명이다.
- 기술이란 기록의 구조·기능·내용에 대한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표현 하는 과정 또는 이를 통하여 검색도구를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 기록생산자 또는 생산기관, 생산자의 역사, 생산일자 또는 생산연도, 기록 의 생산배경, 기록의 분량과 형태, 기록에 대한 평가, 주요 내용, 키워드, 기록에 대한 처리사항 등을 기입함으로써 기록을 쉽게 식별하게 해주고 이 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약속된 가공방법이다.
- 기록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방대한 기록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서이다.

기록 기술 이론

1. ISAD(G), 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ICA, 1993). 기록 기술 국제표준

기술규칙

- 기술규칙이란 목록 입력 시 통일을 기하기 위해 기록의 기술형식을 정하고, 일관된 목록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술 요소(記述要素)와 그 배열수단을 정해 놓은 규칙으로 성문화가 필요하며, 각 기록관리기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준기술규칙을 정함

ISAD(G)의 목적

- 일관되고 적절하며 자명한 기술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기록에 관한 정보의 검색과 교환을 촉진시킨다.
- 다른 아카이브들이 작성한 기술들을 수렴해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가능케 한다.
- 기록 기술의 표준화를 통한 협력적 데이터 교환

기본원칙: 다계층 기술(multilevel description)의 원칙

- 기술은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 어떤 기록 집합체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는 그것이 해당되는 최상위 계층에서 기술하고, 상위 계층의 기술에서 제공된 정보는 하위 계층에서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정보의 중복을 피한다.

4
4

2. ISAD(G). 기술영역과 요소

영역	요소
1. Identity statement area (식별영역)	1) Reference code(s) (참조코드, 식별기호) 2) Title(제목, 문서명) 3) Dates of creation of the material in the unit of description(기술단위에서 자료의 작성(생산)일자) 4) Level of description(Fond, Series, Sub-fond, File, Item) 5) Extent of the unit of description (Quantity, bulk, of size) (물리적 범위와 자료의 형태)
2. Context area(출처와 보존에 관한 영역)	1) Name of creator(기관명, 개인명) 2) Administrative/Biographical history(행정적, 서지 적 내력) 3) Dates of accumulation of the unit of description (기술단위의 축적날짜, 수집일자) 4) Custodial history(소유, 보관이력) 5) Immediate source of acquisition(수집방법-기관 기관, 기증자, 구입처 등)
3. Content and structure area (내용과 구조영역)	1) Scope and content / Abstract 2) Appraisal, destruction and scheduling information (평가, 폐기, 일정에 관한 정보) 3) Accruals(문서의 량과 그의 변화-추가이관, 기증) 4) System of arrangement(정리 체계)

4
5

2. ISAD(G). 기술영역과 요소_계속

영역	요소
4. Condition of access and use area (접근조건과 이용 영역)	1) Legal status(법률적 상태, 이관 법적근거) 2) Access conditions(접근조건, 열람조건) 3) Copyright / Conditions governing reproduction (복제를 통제하는 版權이나 조건들= 저작권) 4) Language of material(자료에 사용된 언어) 5) Physical characteristics(이용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특성) 6) Finding aids(검색도구들)
5. Applied materials area(관련 자료영역)	1) Location of originals(원본의 위치, 원본소장기관) 2) Existence of copies(복제사항, 사본의 실존사항) 3) Related units of description(아카이브 내 관련된 기술단위) 4) Associated material(다른 아카이브와 관련된 자료) 5) Publication note(이용, 연구, 분석에 관련된 출판 판물 註記)
6. Note (이상의 어느 영역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정보)	

4
6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민주화운동사료관의 기록군 기술	
기록군(fonds) 기술	
참고코드	KR KDF F11*
표제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사료군
일자	1992-1999(생산기관의 존속일자)
기술계층	사료군
기술단위의 교모와 매체	문서보존상자 27개, 사진 300여 점, 박물 10점
생산자명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기록물 이력	1998년에 해산된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가 생산했던 기록 일부가 한국청년연합회(KYC) 창고에 일부 보관되어 있었다. 200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발족 및 민주화운동사료관 건립에 따라 한국청년연합회가 기증의사를 밝힘에 따라 2002년 3월 27일 대부분의 기록물을 기증받았다.
수집/이전의 직접적 출처	한국청년연합회(KYC)
범위와 내용	이 사료군은 한청협의 조직구성을 반영한 13개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시리즈의 주요 자료로는 각 지역 의장단들이 모여 각종 안전에 대해 의결한 중앙상임위원회 회의자료, 지역청년회 회의자료를 포함하여 각 지청협의 행사 관련 사진과 자료집, 팸플릿 유인물, 소식지, 기관지 그리고 연수 관련 자료, 연대사업자료 일부, 기타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이범영 동지 영장, 한청협현판, 박물 등이 속한다. 이외에 한청협 사무처에서 취합한 주소록과 회원명단, 가입신청서 등과 한청협 소속 각 위원회에서 생산한 특별활동 관련 기록들이 다수 있다.
평가·폐기·처리 일정 정보	한국청년연합회(KYC)에서 수집한 한청협 자료를 모두 보존하였다(2년 뒤 재평가 실시예정).
주 가	앞으로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와 관련한 개인자료를 기증받고 구술기록을 수집하는 등 추가적인 입수가 예상된다.
정리체계	이 사료군의 기록물들은 기본적으로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회의의 기구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각종 회의자료, 소식지, 기관지, 자료집,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박물 등 기록의 유형이 다른 것은 분리하여 시리즈를 삼았다. 또 회의록이나 소식지, 기관지, 자료집 등은 그 내부에서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_계속

열람조건	사료군 일부는 2003년까지 열람이 제한되어 있다.
재생산 조건	이 사료군에 한해서는 기록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있다. 아카이비스트 허가하에 문서의 경우 복사 가능하다.
언어와 자체	한국어, 부분적으로 영어
물리적 특성과 기술적 요구사항	사진은 모두 네가티브 필름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열람 시에는 이 원본 대신 디지털화된 사본을, 열람용 컴퓨터로 이용한다.
검색도구	관련 상자 목록과 함께 인쇄본 인벤토리를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형태의 목록을 이용할 수 있다.
원본의 존재와 위치	일부 파일의 원본은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회의의 후신인 한국청년연합회에 소장되어 있다.
사본의 존재와 위치	박물이나 사진의 디지털 재생산물은 민주화운동사료관의 홈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련 기술단위	한국청년연합회에 일부 녹음테이프와 비슷한 관련자료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출판주기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회의의 행정연혁은 유기홍이 엮고 한청협전국동지회에서 1999년 발간한 『한청협 10년사』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주 기	한국청년연합회로부터의 이관 당시 기록물 외에, 『정세연구』(50여권 중복본포함), 『민주화의길』(28권 중복본포함), 『자주의길』(1-5호 40여권 중복본 포함), 이강산의 『기근나무에 이범영추모문집』(중복본 약 75권), 『수선화를달부르던사람』(이범영회고문집 중복본본 70여권) 등과 같은 도서들이 함께 기증되어 참고자료로 따로 관리되고 있다.
기술담당	강소연



마을기록물 분류/기술 II

실습(분류체계, 설계)

송영랑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마을문화와 기록

한상헌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마을문화와 기록

강의: 한상헌(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장)



1_ 마을과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

각광받는 ‘마을’의 가치

“마을은 민주주의의 미래다” - 유창복(2018)

“괜찮아, 마을이 있잖아” - 김동순(2019)

“마을, 가장 아름다운 혁명이 이루어지는 곳 ”

“포스트코로나, 동네가 삶의 중심이 된다” - 모종린(2021)

마을의 다층적 개념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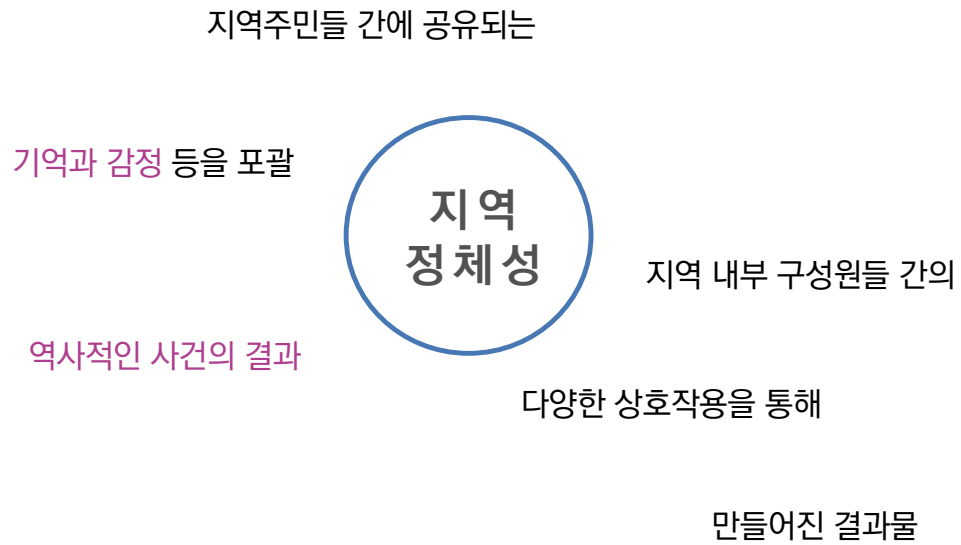
일상생활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

주민들의 친숙한 관계 형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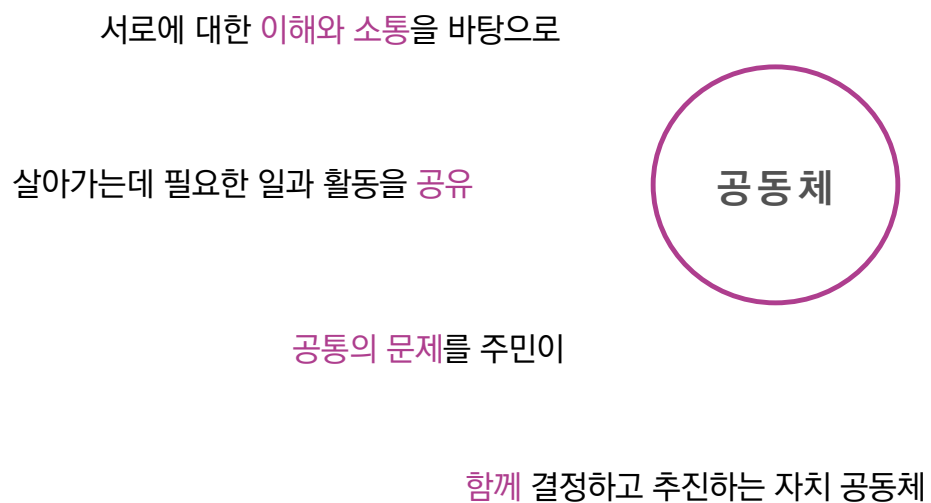
정서적, 물리적 생활권 ...

경험의 보존터 ...

마을과 지역정체성



마을과 공동체



마을, 지역정체성, 공동체



문화공동체의 중요성



마을박물관

- 마을 단위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기록
-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

인천의 마을박물관

- ✓ 잘 보존된 마을의 역사는 그 자체로 독창적인 콘텐츠이자 지역 정체성으로 확립될 수 있으며,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된 문화집적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 ❖ 마을큐레이터 육성과 주민 커뮤니티 형성의 구심점
 -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박물관, 독정마을박물관, 싹골마을박물관
- ❖ 마을박물관 특화단지조성으로 지역의 문화적 자산가치 향상
 - 인천 동구 배다리성남마을박물관,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 미추홀구 마을박물관

관저동마을역사관

- ✓ 대전 최초의 마을박물관인 '관저마을역사관'
- ✓ 사회적기업 모두의책협동조합이 기획, 2019년 5월부터 자료수집과 전시관 공사를 거쳐, 2020년 1월 개관
- ✓ 마을의 유휴공간을 마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전시 및 보전하는 장소로 활용



- 공동체의 정체성 부여, 결속력 강화
- 주류미디어에 대한 대안 미디어 역할 : 미디어 접근성의 강화

관저신문

- ✓ 2011년 <관저마을 신문사>로 시작, '모두의 마을미디어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관저마을신문>과 <관저FM> 두 곳을 운영
- ✓ 관저지역 공동체의 활동을 묶어내는 역할과 함께 관저동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제작
 -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
 - 발행한 신문을 직접 읽어 주는 방송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고정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영

	주민 간 친목도모	정보 전달·공유	지역의제 발굴·공론화	사회적 가치 실현
관저마을신문	○	◎	◎	
관저FM		◎	◎	



판암골소식

- ✓ 대전지역에서 마을미디어를 최초로 시작하였다고 평가되는 <판암골소식>은 동구에서 2005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임
- ✓ 마을신문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유튜브, 팟캐스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마을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확장
 - 제작 과정에서 어른 기자와 어린이 기자들이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교정·교열에 참여
 - 마을미디어 기본교육과 라디오 제작실습, 팟캐스트 교육을 진행

주민 간 친목도모	정보 전달·공유	지역의제 발굴·공론화	사회적 가치 실현
○	○	◎	◎



- 독자적 순환이 가능한 글로벌 생활창작네트워크
- 마을시장과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으로 지역재생 주도

마포구 일상예술창작센터



성남시 태평공공예술창작소



2_ 마을에 대한 또 다른 생각

마을과 공동체 - 유토피아적 상상력



스머프 마을과 보로로 마을은
마냥 아름다운가?



마을과 공동체 - 욕망과 편리함의 유혹

내 삶이 변화되는 Smart City



스마트시티에 사는 우리는 스마트한가?



자연의 갈구? 계급의 욕망?

마을과 공동체 - 가상현실의 도래



가상현실과 사이버스페이스 시대에 마을과 공동체의 의미는?



브뤼헬(P. Bruegel)의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3_ 기록에 대한 또 다른 생각



라스코 동굴벽화의 커뮤니케이션적 해석

“결정적 순간(decisive moment)”의 시간성과
윤리적 쟁점



동화의 사례를 통해 본 수집과 기록의 이데올로기성

- “동화”란? : 童話. Maerchen
- 전래동화/ 민담의 역사
 - BC 30C - 길가메쉬 서사시
 - BC 5C - 그리스신화, <변신이야기>, 호메로스 서사시
 - 9C - 십자군전쟁으로 켈트, 아랍, 인도 설화 융합
 - 15C - 아랍어로 <천일야화> 기록
 - 17C - 바실레, 페로
 - 19C - 그림형제, 안데르센
-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국 민담은? / 이동과 판본의 문제
이데올로기적 함의 : 사회변혁에까지 이르는 영향





“거미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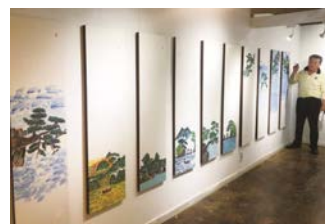
그래도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



- ‘장소의 기억’을 형성, ‘장소의 기억’을 공유 ⇒ 문화적 정체성 확보
- ‘기억의 장소’에서 ‘회상의 장소’로 나아가는 생생함
- 특정한 장소들이 특별한 기억의 힘을 지니는 것은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확고부동하고 장기적인 연고(Assmann, 1998).



충주댐 제천 수물역사관



박찬훈 대청호 그림전과 작품(자료: 옥천향수신문)

공동체 중심 로컬리티 기록학의 필요성(설문원, 2012)

-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 생산하는 작업”
-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려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기억을 기록으로 포착하는 과정에서 기록과 관련된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가가 성공의 관건임

참고자료

김동순(2019). <나는 마을이다>. 춘양사.

모종린(2021). <머물고 싶은 동네가 뜬다>. 알키.

설문원(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유창복(2018). <마을정부를 말하다>. 행복한책읽기.

한상현(2019). 지역문화공동체적 관점에서 본 마을박물관의 가치 탐색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Assmann, A(1998). *Erinnerungsräume*. 변학수·채연숙 譯(2011). <기억의 공간: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평가 및 발표

김하나

우리마을
우리기록

마을기록학교
기초과정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MEMO

.....

.....

.....

.....

.....

.....

.....

.....

.....

.....

.....

.....

.....

.....



우리마을 | 마을기록학교
우리기록 | 기초과정

발행일 2021년 5월 07일

제작 모두의책협동조합 www.modubook.kr

등록번호 제 25100-2015-000001호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2층

전화 (042)223-1507 / FAX (042)716-1515

E-mail modubook@modubook.kr